

강 혜 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여항인물전을 활용한 전기(傳記)문학 교육 방안

200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김 보 라

여항인물전을 활용한 전기(傳記)문학 교육 방안

강 혜 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김 보 라

인 준 서

김보라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2005년 6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여학인문잡지(傳記) 문학 교육 방안

김보라

논문개요

본고는 당대 변동기적 사회상과 인간상을 두루 담고 있는 조선후기 여항인물전의 교육적 가치를 찾아보고, 이를 활용하여 전기문학 교육에 적용하고자 함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후기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변화로 인해 신분제가 와해되고, 이에 따른 아전 및 중인계층의 왕성한 활동으로 문학 담당층의 확대가 일어나게 되었다. 기존의 문학 담당층이었던 사대부 계층이 여항인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여항인들 스스로도 주변 인물들을 입전하여 다양한 인물군을 문학에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화가, 가객, 악공, 역관, 유흥, 의관 심지어 거지나 숫장수 아내, 사기꾼 등 한결같이 새로운 가치를 드러내는 인물들이 문학의 소재로 입전되었다. 본고는 이들에 대한 전을 여항인물전이라 일컬었다.

이러한 여항인물전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현행 전기문학 교육의 방법적 틀을 넓히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Ⅱ장에서는 전기문학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내었다. 여기서는 중·고등학교에서의 전기문학 교육 실태를 바탕으로, 전기의 장르적 속성의 문제, 하위 분류 체계의 문제, 입전 대상의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그 다음으로 인물전의 개념과 유형, 여항인물전의 개념과 형성과정 등을 살펴봄으로써 전에 대한 배경지식을 두루 마련해 두었다. 그리고 여항인물전이 지니는 교육적 가치 및 문학 교육적 의의 역시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여항인물전의 하위 유형을 총 네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에서 교육적인 문제의식을 도출해 내었다.

첫째로, 순간적 기지를 발휘한 인물군에서는 현실대처 방법의 문제를 이끌어

내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자신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을 현명하게 극복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현실 대처 능력이 갖춰져야 한다. 이러한 현실대처 능력이란 하루 아침에 키워질 수는 없는 것으로, 어릴 때부터 학교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함양되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현실대처 능력의 함양을 위해 본고에서는 <포호처전>과 <각저소년전>을 교육자료로 제시하였다. 이 두 작품은 위기 상황에서의 대상의 지혜와 용기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학습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위기 대처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작품의 바람직한 지도 방법을 교수-학습 방안 또한 제시하였다

둘째로, 전문적 직능을 발휘한 인물군에서는 자아실현과 직업의식의 문제를 이끌어 내었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삶의 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시기로써, 이러한 시기에 학생들에게 올바른 직업관과 인생관을 내면화 시킬 수 있는 교육자료를 제시해 주는 것은 필수적이다. 때문에 여기서는 여항인물전 중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의 모습의 구체적으로 담겨있을 뿐 아니라, 입전 대상의 직업의식이 확고하게 드러나는 <이안민전>과 <침은조생광일전>을 교육자료로 제시하였다. 이 두 작품에서는 모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개인적인 이득보다는 타인과 나라를 위해 자신의 재능을 다하고자 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살필 수가 있었다. 이러한 작품들이 전기 문학의 교육적 자료로 활용된다면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직업의식 함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사회적 시혜를 한 인물군에서는 사회 정의와 공동체적 삶의 문제를 이끌어 내었다.

여항인물전 속에는 사회적 시혜를 베푸는 이들의 미담이 잘 담겨져 있다. 이러한

여항인물전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물든 현대의 학생들을 바람직한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줄 뿐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방법 또한 터득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사회적 시혜의 행위가 돋보인 인물을 입전한 <만덕전>, <장복선전>을 교육자료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이 작품들에 대한 학습활동과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여 학교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분적 좌절을 겪은 인물군에서는 사회제도의 모순과 현실 개혁의 문제를 이끌어 내었다.

과거의 신분제와 마찬가지로 현대 역시도 인간의 삶을 제약하는 사회 제도의 모순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회제도의 모순을 인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현실 개혁의 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자료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우상전>과 <최복전>은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불우한 삶을 살다간 인물들을 입전한 작품이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의 교육방안을 통해 사회제도의 모순은 어떠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 이를 극복해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상에서 제시한 여항인물전의 교육방안은 ‘학생들로 하여금 작품을 통해 흥미와 교훈을 얻게 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기 문학의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도록 구성한 것으로, 이를 학교교육에서 활용한다면 현행 전기문학의 교육적 틀을 보다 넓힐 수 있으리라고 본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선행 연구사 검토	3
3. 연구 범위 및 방법	6
II. 전기문학 교육현황과 여항인물전의 교육적 가치	9
1. 현행 전기문학 교육 현황과 문제점	9
2. 인물전의 개념과 여항인물전의 형성	16
1) 인물전의 개념과 유형	16
2) 여항인물전의 개념과 형성과정	22
3. 여항인물전의 교육적 가치와 의의	28
III. 여항인물전의 유형별 교육 방안	31
1. 순간적 기지를 발휘한 인물 - 현실 대처 방법의 문제	34
1) <포호처전> 교육방안 예시	37
2) <각저소년전> 교육방안 예시	47
2. 전문적 직능을 발휘한 인물 - 자아실현과 직업의식의 문제	57
1) <이안민전> 교육방안 예시	61
2) <침은조생광일전> 교육방안 예시	72
3. 사회적 시혜를 베푼 인물 - 사회정의와 공동체적 삶의 문제	82
1) <만덕전> 교육방안 예시	85
2) <장복선전> 교육방안 예시	96

4. 신분적 좌절을 겪은 인물 - 사회제도의 모순과 현실 개혁의 문제	107
1) <우상전> 교육방안 예시	110
2) <최북전> 교육방안 예시	120

IV. 결론	130
--------------	-----

참 고 문 헌

ABSTRACT

I. 서 론

1. 연구목적

본고는 당대 변동기적 사회상과 인간상을 두루 담고 있는 조선후기 여항인물전의 교육적 가치를 찾아보고, 이를 활용하여 전기문학 교육에 적용하고자 함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후기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변화로 인해 신분제가 와해되고, 이에 따른 아전 및 중인계층의 왕성한 활동으로 문학 담당층의 확대가 일어나게 되었다. 기존의 문학 담당층이었던 사대부 계층이 여항인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여항인들 스스로도 주변 인물들을 입전하여 다양한 인물군을 문학에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이 지은 전 속에는 특정 인물의 행적이 남의 모범이 되는 경우도 있고, 기이하거나 처절한 삶이 일상적 평범함을 넘어 남의 이목을 집중시킨 경우도 있다. 이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은 사회, 문화, 역사적 관점에서 뿐 아니라 현대인에게 감동과 교훈을 준다는 교육적 관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물전에 대한 연구는 전의 장르적 성격이나 서술 방식 등 형식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을 뿐, 내용상의 교육적 측면은 지극히 간과되었다. 조선후기 인물전에 내포된 다양한 인물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교육적 가치를 구현하여 전기문학 교육과 연계시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이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것은, 전기작품은 사회적 업적이 뛰어난 '위인'에 한정되어 쓰인다는 보편적 인식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현행 중등교육에 있어서의 전기문이 특정한 결과물을 남겨놓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쉽게 알 수 있는 ‘위인’에만 국한되어 실려 있는 것도 이러한 인식 때문인 것이다. 현재 중등 교과서에 실린 전기문의 주인공들만 살펴보아도 직업과 시대적 배경면에서 상당한 공통점을 지닌다. 이는 현행 전기문학 교육이 인물의 품성이나 삶의 과정을 통해 독자에게 주는 감동이나 교훈정보보다는, 인물이 살았던 시대나 사회적 배경, 또는 사상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정된 인물상과 시대상이 현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더욱이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큰 공감을 얻지 못하는 건 자명한 일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후기의 변동기적 사회상과 다양한 인물상이 반영된 여항인물전을 활용하여 전기 문학의 교육적 틀을 넓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여항인물전 속에서 학생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인물들을 찾아내 유형별로 나누고, 그들의 삶 속에서 교육적으로 유용한 문제의식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리고 학교교육에서 실제적인 전기 문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품의 실례와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함께 제시할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이러한 교육방안은 중학교 국어교과의 ‘문학과 독자’, ‘고전 문학의 감상’ 단원, 고등학교 국어·문학 교과의 ‘문학의 수용’, ‘읽기의 즐거움과 보람’ 단원 등 주로 작품의 효용성을 강조하는 단원에서 전기문학의 교육적 방안으로 활용되기에 적합하다. 이러한 여항인물전의 활용은 ‘학생들로 하여금 작품을 통해 흥미와 교훈을 얻게 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기문학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선행 연구사 검토

본고와 관련 있는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전 양식에 대한 연구

둘째. 개별 작가의 전 연구

셋째. 여항문학 속에서의 전 작품 연구.

넷째. 현행 중등교육에서의 전기문 교육에 관한 연구.

위의 선행연구물 중 셋째와 넷째는 조선후기 인물전 중에서 교육적 시사가 큰 작품들을 전기문 교육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본고의 목적과 관계가 깊은 것이기에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전 양식에 대한 연구로 조태영¹⁾은 열녀전의 유형에서 전 양식의 발전된 모습을 고찰했으며, 이문규²⁾는 허균의 전을 그의 사상과 생애 및 홍길동전과 관련지어 전과 소설과의 밀접한 상관성을 밝혔다. 또, 김균태³⁾는 이옥의 전에 드러난 서술방식의 유형 분류, 구조와 의미를 밝혔다.

개별 작가의 전 연구에 있어서, 정병호⁴⁾는 김려의 전을 서술방식과 작가의식 측면에서 고찰하였고, 박기석⁵⁾은 전의 소재원과 문헌설화과의 관계를 통해 그 형성과정을 고찰하였다.

여항문학 속에서의 전 작품에 관한 연구에는 박희병⁶⁾의 연구가 문학사적 의의

1) 조태영, 「전 양식의 발전 양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3

2) 이문규, 「허균 산문문학의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6

3) 김균태, 「이옥의 문학기론과 작품세계의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6

4) 정병호, 「김려의 전 연구」, 경북대 석사논문, 1989

5) 박기석, 『박지원 문학연구』, 삼지원, 1993

6) 박희병, 『한국 고전인물전 연구』, 한길사, 1992

----,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1

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그는 조선전기 인물전의 특징과 전사(傳史)에서의 위치를 밝히는가 하면, 조선후기 인물전을 사회적 상황과 관련지어 고찰함으로써 인물전의 문학적 의의를 구체적으로 다져놓았다. 이어서 그는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전과 소설의 관계 양상, 조선후기 전의 변모상과 장르운동을 문학사적 관점에서 조망함으로써 전 연구의 폭과 깊이를 확대·심화하였다.

이어 허경진⁷⁾은 여항문학사를 정리하면서 조선 중·후기의 시사의 결성과 여기에 관여한 인물을 열전 형식으로 소개하였다. 이동근⁸⁾은 조선후기의 전과 관련 사실기록의 비교를 통해서 역사적 기록과 전 사이의 내용적 차이를 밝히고 그 의미를 추론하는가 하면, 조선 후기의 전들을 문장 기술의 방법에 따라 설명·논증·서사·묘사의 조합을 통해서 유형분류를 시도하였다. 김용남⁹⁾은 조선후기 중인 작가들이 지은 전을 구성과 서술방식에 따라 나누었으며 작중인물의 행위에 따라 그 유형분류를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현행 전기문 교재에 관한 선행 연구물을 살펴보겠다.

류준형¹⁰⁾은 국정 교과서에 실려 있는 전기문 교재를 본질과 체재면, 가치면에서 분석·고찰하여 국어 교재에 실린 전기문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국어 교과서에 실린 전기문의 인간상들이 지나치게 모범적인 인물로 노출되어 학생들에게 친밀감을 자아내지 못하고 생소함과 당혹감을 주며, 교육적 의도가 너무 투시적이어서 전기문 교재에 대한 혐오감마저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이어 정상규¹¹⁾ 역시 초, 중, 고교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전기문을 분석하

7) 허경진, 『조선 위항문학사』, 태학사, 1997

8) 이동근, 『조선후기 전 문학연구』, 태학사, 1991

9) 김용남, 「조선후기 중인 작가의 전 연구」, 충북대 박사논문, 1999

10) 류준형, 「국어 교재에 나타난 전기문의 분석적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78

11) 정상규, 「전기문의 속살 연구」, 경상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6

여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는 국어 교과서 전기문의 주요 대상 인물이 우리나라 남성으로서, 주로 조선시대와 일제 시대의 독립운동가 혹은 장군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학년, 학교 급별로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인물 중심에서 외국인물로, 현대에서 과거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정근영¹²⁾과 남상구¹³⁾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문 인물을 분석하고, 아동 발달 단계에 따른 인물설정의 중요성을 논하였다. 정근영의 경우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대상 인물을 시대적, 국적별로 한국 인물과 외국 인물을 분석하였는데, 한국인물은 주로 근대 이전의 학자나 관리, 장군, 독립운동가임에 반해 외국 인물은 서양의 근·현대 인물임을 밝혀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동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와 비슷한 시대의 인물상을 존경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우리나라 전기문의 대상 인물에 대해선 거리감을 느낀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상구도 전기문의 인물 선정은 현시대와 사회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 아동들은 서양 인물을 존경의 대상으로 삼는데 너무나 익숙해 있다고 논하였다.

주종진¹⁴⁾과 황경임¹⁵⁾은 전기문 교육을 국어 교육과의 관계에서 살펴보았다. 이들은 전기문학 지도의 방법론적 차원에서 전기문이 국어 교육에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는 밝히고, 그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주종진의 경우 개화기 시대부터 6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위인들의 모습이 교재에 어떤 양상으로 수록되었는지를 살펴, 효율적인 국어교육을 위해서는 좀 더 진취적인 인물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경임의 경우 현실에서의 전기문 지도 방법의 부재를 문제 삼아 전기문학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구체적인 지도 방법 차원에서 역할극이나 모

12) 정근영, 「초등국어 전기문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1994

13) 남상구, 「국민학교 국어과 전기문 인물 선정의 타당성 분석」, 수원대 석사논문, 1995

14) 주종진, 「초등국어 교재에 수록된 전기문의 내용 변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1997

15) 황경임, 「연극적 기법을 활용한 전기문 지도 방법 연구」, 서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의재판, what if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기 작품에 대한 연구는 현행 학교교육의 전기문학 교육과는 별개로 이루어져 왔다. 때문에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 작품의 내용과 입전대상의 문제점 등을 고전 인물전을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한 시도는 아직까지 없었다. 고전 인물전을 활용하여 전기문학 교육 방법의 범위를 넓힐 수 있음에서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본고는 고전 인물전 중 현대와 시대적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조선 후기 여항인물전을 토대로 전기문학의 교육적 틀을 넓히고자 한다.

3. 연구 범위 및 방법

본고는 17세기 중반에서부터 19세기까지 창작된 여항인물전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여항인의 출현 시점을 17세기 중반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시기 이후에 창작된 인물전 중 여항인을 입전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여항인 스스로가 창작한 인물전을 여항인물전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창작된 여항인물전 중 대부분은 전통적인 전기 양식에서 분화되어 소설로 이월되는 양상을 띠거나 야담화, 기사화가 상당히 진행된 모습을 보인다. 때문에 본고에서 제시하는 작품들 역시도 장르론상의 시비를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연구목적에서 밝힌 것처럼 본고의 초점은 전기의 장르적 특성이나 양식의 전개 양상 등이 아닌 내용상의 교육적 가치 구현에 있으므로, 최대한 많은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 내적인 모습을 두루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전기소설(傳記小說) 또는 전계소설(傳系小說)이라 명명되는 작품들까지도 모두 전기의 범주에 포함시켰음을 밝힌

다. 단, 장르상의 시비가 있는 작품들의 경우 각주에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덧붙여 놓도록 하겠다.

II장에서는 먼저 전기문학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내고자 한다. 여항인물전을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전기문학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일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인물전의 개념과 유형, 여항인물전의 개념과 형성과정 등을 살펴봄으로써 전에 대한 배경지식을 마련해 두고자 한다. 그리고 본격적인 여항인물전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 전에 여항인물전이 어떠한 교육적 가치와 의의를 지니고 있는지도 다루도록 하겠다.

III장에서는 여항인물전을 교육적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여러 유형으로 나눈 뒤, 각각의 유형에서 교육적인 효용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유용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의식을 여항인물전 속에서 구현해내기 위해 작품의 실례와 구체적인 교육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 교육방안을 제시한 작품은 총 여덟 작품으로, <포호처전(捕虎妻傳)>, <각저소년전(角觶少年傳)>, <이안민전(李安民傳)>, <침은조생광일전(鍼隱趙生光一傳)>, <만덕전(萬德傳)>, <장복선전(張福先傳)>, <우상전(虞裳傳)>, <최북전(崔北傳)>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작품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먼저 작품의 흥미성을 고려하였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전기 작품을 자신과는 다른 위인들의 업적만을 강조하는 따분한 글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작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전기문학 교육의 효용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본고에서 제시한 여덟 작품 중 <포호처전>과 <각저소년전>은 작품의 흥미성이 두드러진 작품으로, 이 두 작품은 전기문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데 적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입전대상의 대중성을 고려하였다.

본고에서는 입전대상이 당대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인물이었거나 현대인들에게도 아직까지 상당한 인지도를 지닌 인물을 입전한 작품을 선정하였다. <만덕전>, <우상전>, <최북전>이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만덕의 경우 『정조실록(正祖實錄)』에 실렸을 만큼 당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인물이고, 우상과 최북 역시 시와 그림을 통해 최근까지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꼭 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당대 사람들에게 혹은 현대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인물을 입전한 작품을 교육자료로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데 효과적인 것이다.

나머지 <장복선전>, <침은조생광일전> 그리고 <이안민전>은 작품의 교훈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작품이다.

전기문학 교육의 일차적 목표는 학생들에게 교훈을 주고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전대상의 삶의 모습이 학생들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준다면 전기문학 교육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위 작품의 입전 대상들은 모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학생들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상의 총 여덟 작품이 학교교육에서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작품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학습활동과 교수-학습 방안을 이 장에서 함께 제시하도록 하겠다.

Ⅱ . 전기문학 교육 현황과 여항 인물전의 교육적 가치

1. 현행 전기 문학 교육 현황과 문제점

여항인물전을 현행 전기 문학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 교육에서의 전기문학 교육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이 장에서는 현재 중·고등학교 국어와 문학 교과서에서 학생들이 어떤 전기 작품을 배우고 있는지, 전기문학 교육상의 문제점은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전기 작품과 관련 학습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 작품

학년·학기· 입전 대상	(국어 영역-글의 종류) 대단원명· 소단원명	대단원 학습목표	관련 학습활동
1-2. 이중섭	(읽기영역-전기문) 1. 능동적으로 읽기 (1) 화가 이중섭	1. 능동적인 태도로 글을 읽을 수 있다. 2. 글을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쓸 수 있다.	<p><내용학습></p> <p>1. ‘화가 이중섭’의 전체 내용을 생각하며 다음그림을 완성해 보자.</p> <p><목표학습></p> <p>1. 다음 글을 읽고, 글의 내용과 관련되는 질문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해 보자.</p> <p><적용학습></p> <p>1. 이 글을 읽고 얻은 교훈이나 느낌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 2. 화가 이중섭의 추모비를 세우려고 한다. 이 비에 새겨 넣을 비문을 지어 보자.</p>

<p>2-2. 한하운</p>	<p>(문학영역-자서전) 1. 작가와 작품 <보충 · 심화></p>	<p>1. 작가의 삶이 작품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반영됨을 안다. 2. 작품 속에 반영된 작가의 생각을 파악하며 읽을 수 있다.</p>	<p>1. 작가는 어느 날 자신이 나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된다. 이로 인해 글쓰기가 겪은 고통을 정리해 보자. 2. 작가는 자신의 육체적 고통에도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그리고 작가가 찾은 것이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p>
<p>3-1. 이육사</p>	<p>(읽기 영역-평진) 4. 읽기와 토의 (1) 지사의 길, 시인의 길</p>	<p>1. 길을 읽고, 글에 관련된 사항을 토의할 수 있다. 2. 토의를 통해 글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p>	<p><내용학습> 1. 이육사의 생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2. ‘한용운, 윤동주’와 이육사의 생애를 비교하여 말해 보자. 그리고 이 분들에게서 본받을 점을 말해 보자. <목표학습> 1. 이 글에 나타난 이육사의 삶이 다음 시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토의해 보자. (육사의 시-청포도) 2. 일제 강점기에 이육사가 보여준 삶의 자세는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토의해 보자.</p>
<p>3-2. 한용운</p>	<p>(읽기 영역-전기문) 5. 글과 표현 (2) 만해 한용운</p>	<p>1. 글에 나타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찾아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2. 다양한 표현이 주는 효과를 이해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p>	<p><내용학습> 1. ‘만해 한용운’의 내용을 생각하며 다음 표를 완성해 보자. * 독립운동가로서의 모습 * 옥중 생활 * 시인으로서의 모습 * 성격 <목표학습> 1. 글쓰기가 ‘임의 침묵’의 탈고 장면을 가장 먼저 제시한 의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2. 전기문 ‘지사의 길, 시인의 길’이 글의 표현 방법에서 이 글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자.</p>

위의 표를 살펴보면 중학교 전기문학 교육상의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로 전기의 장르 편입상의 문제이다.

현행 학교 교육에서는 전기문을 '정보전달의 글'의 하위 분류에 놓았다.¹⁶⁾ 정보 전달의 글이란 말 그대로 새로운 정보를 알리고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글이며, 독자가 이 글을 읽는 목적은 다분히 '정보의 획득'에 있다. 때문에 전기 작품을 '정보전달의 글'로 가르치게 된다면 작품 속 인물의 삶을 사실 그대로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데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학생들은 전기를 단순히 인물의 일대기를 사실 그대로 알아야 할 필요성에 읽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전기 작품을 교육적 자료로 활용하는 목적은 학생들이 그 작품을 통해 감동과 교훈을 얻고 동시에 입전대상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함으로써 좀 더 나은 삶의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사실성을 강조하는 비문학의 영역보다는 작품의 효용성과 내면화를 강조하는 문학 영역의 목적에 더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서는 국문학적으로 전기소설, 전계소설 등의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전기 작품의 문학성을 연구한 논문들도 상당하다. 이는 전기 작품을 '문학'의 장르로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 역시 전기 작품의 문학과 교육적 효용성을 볼 때, 학교 교육에서 아직까지 전기 작품을 '정보전달의 글'로 분류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둘째로 전기의 하위 분류 체계상의 문제이다.

위 표에서 글의 종류를 살펴보면 전기 작품이 각각 전기문, 자서전, 평전으로 나뉘어 있다. 이 작품들의 종류는 7~9학년 국어과목 교사용 지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명칭 그대로이다. 왜 같은 전기 작품인데 이러한 명칭상의 차이가 생긴 것일까. 이는 현행 학교교육에서 전기문의 하위 종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기

16)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국어), 교육인적 자원부, 2001, p.170

때문이다.

먼저 전기문의 개념을 ‘실제 있거나 있었던 특정한 인물의 생애, 업적, 일화 등을 기록한 글’이라 정의하고, 전기문의 종류를 전기(傳記), 자서전, 평전, 열전, 회고록, 행장으로 나누고 있다. 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보면, 전기는 좁은 뜻의 전기문으로써, 한 인물의 일생 또는 그 일부를 기록한 글이며 사실성을 바탕으로 소설적 형식으로 처리한 글이고, 자서전은 자기 일생에 관한 내용을 자신이 쓴 글이다. 평전은 작가가 역사적 자료를 선정하고 해석하여 정리한 비평적 전기로써, 어떤 인물의 역사적·사상적·문학적 업적 등에 대한 작가의 시각이 드러난 글이다. 열전은 여러 사람의 전기를 한데 모아 차례로 기록한 글이며, 회고록은 자신의 일생 중에서 특히 중요한 활동 부분만을 기록한 글이고, 행장은 죽은 이를 추모하여 쓴 전기이다.

이상의 개념을 살펴보면 하위 분류상의 체계성과 위계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전기와 평전간의, 전기와 열전간의, 자서전과 회고록간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 또한 위의 표에서처럼 어느 특별한 종류에 부합되지 않은 글일 경우 단순히 ‘전기문’이라는 폭넓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하위 유형의 개념과 분류는 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셋째로 입전 대상 선정의 문제이다.

먼저 위의 입전대상들은 대부분 일제 강점기하의 인물들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일제 강점기라는 극한 상황에서 민족을 위해 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을 모범적 대상으로 선정한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전기문학이 동시대의 인물만을 수록한 글이라면 학생들은 전기문학에 고정관념을 지니게 된다.

또한 인물들의 신분과 업적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중섭은 화가이고 한하운과 이육사, 한용운은 모두 시인이다. 물론 이들의 그림과 문학이 예술성도 뛰어나고 현대인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얻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이

렇듯 특별한 결과물을 남긴 인물만을 교과서에 실은다면 전기문학 교육이 위인들의 업적만을 입지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성비의 비율 역시 짊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5차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서에 실린 전기 작품의 인물 성비 비율은 여성이 25%였음에 반해, 6, 7차 교육과정에 수록된 전기 작품에는 여성이 단 한명도 없다.¹⁷⁾ 이는 교과서 편찬 당시 인물의 선택에 있어 성별의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같은 입전 대상의 성비 불균형은 학생들의 의식속에 남성 우월주의로 남게 되어 여학생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수동적인 가치관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이상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전기 작품을 토대로 전기 문학 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 같은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관련 학습 활동 내용은 상당히 바람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대단원 학습목표를 살펴보면, <이중섭>의 경우 '능동적으로 읽기'와 '감상문 쓰기'를, <한하운>의 경우 '반영론적·표현론적 관점에서 읽기'를, <이육사>의 경우 '글을 읽고 토의하기'를, 그리고 <한용운>의 경우는 '글의 표현기법 파악하기'를 학습목표로 제시해 두었다. 이와 같은 학습목표의 설정으로 볼 때, 현행 학교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전기 작품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읽기, 쓰기, 말하기·듣기의 모든 국어사용 능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련 학습활동 역시 이러한 학습목표에 도달하도록 다양하고 조직적으로 체계화 되어 있어 전기문학의 교육 방법론적 측면은 어느정도 바람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7) 손순아, 「소집단 협동학습을 이용한 전기문 지도방안」, 서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p.9

다음으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와 문학 교과서에 실린 전기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2) 고등학교 국어 ·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전기 작품

출판사	작품명	학습목표	관련 학습활동
문원각 문학 (하)	국선생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전체 문학의 방식적 특성을 이해한다. 2. 가전체 문학이 성행한 사회적 상황을 이해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술을 인간의 어떤 속성과 결부시켜 의인화했는가? 2.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각각 어떤 대상을 의인화하고 있는가?
한국교육 미디어 문학 (하)	공방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인화 기법이 가져다 주는 효과를 안다. 2. 가전의 문학사적 의의를 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작품에서 ‘공방’의 가계와 그의 생애에 해서 간추려 보자. 2. 이 작품에서 ‘공방’은 실제 인물처럼 그려져 있다. 이런 표현 방식을 신화의 인물 형상화 방법과 비교하여 설명해 보자. 3. 이 작품과 같은 가전이 고려 시대에 창작된 배경을 말해 보자. 4. 이 작품에서 ‘돈’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중심으로 다음 활동을 해보자.

위의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인물전 부재의 문제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전기문학 작품은 단 두 편, 그것도 가전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뿐 인물전은 단 한편도 들어있지 않다. 더구나 가전도 선택과목으로 배우는 문학교과서에만 실려 있으므로 현실상 고등학생들은 전기 문학을 필수적으로는 배우지 않는 것이다. 이는 전기 문학의 교육적 효용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전기 문학 교육의 일차적 목표는 학생들이 모범적 인물들의 삶의 자세를 본받아 더 나은 삶의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는 데 있다. 청소년기는, 더구나 고등학생 시기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삶의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때이다. 이러한 시기에 그들에게 바람직한 역할 모델을 제시해 주는 것은 학교교육이 해야 할 몫이다. 그런데 이처럼 고등학교에서 더 이상 전기문학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가전 교육 자체에 대한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학교에서는 가전 작품을 다루고 있지 않았다. 중학교 국어교과의 교사용 지도서에도 ‘가전’이라는 단어는 언급되지 않는다. 이는 전(傳)연구자들이 전통적 전의 하위 유형에 가전을 포함시키는 것과는 달리 학교교육에서는 가전을 전의 하위 유형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가전이 지니고 있는 문학과 허구성 때문에 전기는 ‘비문학’으로 다루어지되, 가전은 ‘문학’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학계에서 분류한 전의 하위유형과 학교교육에서 분류한 전의 하위분류가 서로 상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전기를 ‘문학’의 장르로 다루어야 한다는 본고의 주장처럼 전기 작품을 넓은 의미에서의 문학 영역에 포함시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교교육에서는 ‘가전’이라는 용어의 개념 역시 불분명하게 처리하고 있다. 문학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에서 명시되어 있는 가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가전은 서사 문학의 발전 단계에서 소설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의인체 소설 양식으로, 이야기 방식을 취하면서도 교훈적인 내용을 독특한 방식으로 담아낸 고려 시대의 대표적인 문학 양식이다’¹⁸⁾, ‘가전체 문학은 사물을 의인화하여 일대기로 꾸민 것으로, 주인공의 행동이나 처지는 그 사물과 관련된 고사나 역사적 사실을 차용하여 그린 것이다’¹⁹⁾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로 보아 현행 학교교육에 있어서 가전은 ‘가전, 가전체, 의인체’ 등 그 용어 조차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가전에 대한 개념 설명만을 본다면 가전은 고려시대만의 문학이고 전기의 유형 중 하나가 아닌 마치 소설의

18) 문학(하) 교사용 지도서, 한국 교육 미디어, 2001, p.142

19) 문학(하) 교사용 지도서, 문원각, 2001, p.143

하위 갈래인 것처럼 인식하게 된다. 물론 가전에 대한 교육이 교사의 재량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교사들의 참고자료인 교사용 지도서에 이렇게 가전의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지금까지 현행 학교교육에서의 전기문학 교육 현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데에서만 그칠 뿐 각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두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상의 문제점들 중 몇 가지는 본고가 주장하는 여항인물전의 교육적 활용으로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할 것이다.

2. 인물전의 개념과 여항 인물전의 형성

1) 인물전의 개념과 유형

인물전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전의 어원적 의미부터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전의 어원적 의미에 대해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거(遽)라 하여 역(驛)에서 말을 타고 문서를 전달하는 사자(使者)라고 풀이했다. 또한 유협(劉勰)은 『문심조룡(文心雕龍)』의 '사서(史書)의 체제와 문장'에서 좌구명(左丘明)의 좌전(左傳)에 대해 평하기를,

좌구명은 공자와 동시대인으로서 이 서(書) 『춘추(春秋)』의 오묘한 언어를 해독하여 여기서 전체(傳體)를 창시했다. 전(傳)은 전(轉)이다. 경(經)의 내용을 후세에 전수하였으니 이른바 사적의 선구가 된 것이다.

라고 했다.²⁰⁾

이로 보아, 원래 전은 역(驛)과 역 사이에서 명령이나 문서를 전달한다는 구체적인 전달 수단의 의미에서, 성인의 기록인 경을 이어받아 후세에 넘겨준다는 의미로 바뀌어 쓰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장학성(章學誠)의 『문사통의(文史通義)』에서는 전(傳)과 기(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전(傳)과 기(記)는 그 원류가 아주 오래 되어서 육예(六藝)와 앞서거나 뒤서거나 섞여 나온 것이다. 고인의 글에는 일정한 문체가 없었으며, 경전과 사기 역시 분과가 없었다. 『춘추(春秋)』 삼가(三家)의 전은 각기 들은 바를 기록한 것으로 경에 의해서 뜻을 일으켜 세웠으니 이를 기라 할 만하다. 『예기(禮記)』에는 두 대씨(戴氏)의 기록이 있는데 각기 그 말을 전하여 경(經)에 붙여 행했으니 이도 전이라 이를 만하다. 그 후에 나무의 가지처럼 나누어지고, 물의 파도처럼 구별이 되고, 근래에 이르러서는 인물을 기록한 것을 구별하여 전이라 하고, 사적을 서술한 것을 구분하여 기라 했다. 또한 대개 문집 등 집부가 크게 성행하게 되자, 사람들이 스스로 그 분별을 만들어 내어서 그 까닭은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되어 버려서, 마침내 마치 하늘의 떼땃함과 땅의 의리로서 옮겨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굳어졌다. 이런 류가 대단히 많아서 배우는 자로 후세에 태어나면 진실로 인간의 의리에 손상됨이 없으면 여러 사람의 생각에 따름이 없을 것이다.

이로 보건대, 전과 기는 엄격한 구별이 없이 통용되던 것이 근대에 이르러서 그 까닭은 알지도 못한 채 인물에 대해 기록한 것은 전이고 사적에 대해 서술한 것은 기라는 것으로 철칙처럼 굳어져 버려서 바꿀 수 없는 사항이 된 것임을 알 수 있겠다.

따라서 전이란 단순히 명령이나 문서를 전달한다는 어원적인 뜻에서 경전의

20) 김홍식, 「다산 문학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6, pp.5~6

의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한 글로 바뀌었다가, 근대에 이르러서는 인물에 대한 기록을 전이라 하고, 사적에 대한 서술을 기라 한 것이다. 단순한 전달에서 역사의 기록으로 발전하고, 『좌전(左傳)』에 이르러서는 서술의 성격으로 변모함으로써 전은 기록의 성격에서 벗어나 서사적인 면을 보여 주게 되고 이것이 곧 인물 중심의 전 양식, 즉 인물전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²¹⁾

이렇듯 전의 개념은 시대를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전개·발전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이 사마천의 『사기(史記)』 「열전(列傳)」이다. 『사기』 「열전」도 한 인물의 생애를 기술함으로써 경의 의리(義理)를 밝히려는 전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 사마천이 창시한 ‘열전체(列傳體)’는 반고(班固)의 『한서(漢書)』 이래로 정사(正史)의 체재로 굳어 버렸다. 이러한 사서의 열전은 사실이 아니면 지을 수 없고 입전의 대상도 뛰어난 인물이어야 했다. 문사들은 다만 행장 밖에 짓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해경(解經)을 전문으로 삼는 학문이 쇠퇴하고 문인학사들의 개인 문집이 성행하면서 사관과 같은 전문인들이나 지을 수 있는 전기(傳記)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기에 이르렀다.

전에 대한 분류는 서사증(徐師曾)의 4품 분류, 즉 사전(史傳)·가전(家傳)·탁전(托傳)·가전(假傳)이 기준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명칭을 그대로 썼을 때 한자음이 같아 혼동될 염려가 있으므로 열전·사전(私傳)·탁전·가전(假傳)으로 구분해서 쓴다.²²⁾

이 중 본고에서는 인물전에 해당하는 열전과 사전, 탁전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21) 김홍식, 위의 논문, pp.6~7

22) 김용덕, 『한국 전기 문학론』, 민족문화사, 1987, p.16
전의 유형은 학자에 따라 조금씩 분류한다. 김홍식의 경우 전의 유형을 내전과 외전, 열전, 가전(家傳), 탁전, 가전(假傳)으로 나누었고(김홍식, 위의 논문, pp.7~13), 이동근의 경우 전을 정체(正體)와 변체(變體)로 구분한 뒤 정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열전, 사전(私傳), 탁전, 가전(假傳)을 제시하였다. (이동근, 위의 책, pp.202~203)

① 열전(列傳)

우선 열전이라는 명칭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열전은 사관(史官)이 짓는 정사(正史)의 공식적인 전을 말한다. 이러한 전을 흔히 사전(史傳)이라고도 하는데 열전이라 한 까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문인학사들이 사사로이 짓는 사전(私傳)과 발음상 구별하기 위함이다. 사전을 서사증(徐師曾)의 경우처럼 가전(家傳)이라 할 수 있으나 가전이라 하면 또한 가전(假傳)과 발음이 같아서 혼동을 준다. 따라서 가전(家傳)을 사전(私傳)으로 사전(史傳)을 열전으로 부르면 용어상의 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열전이라는 명칭은 사기의 본기(本紀)·세가(世家)·표(表)·서(書) 등과 함께 독립된 편차의 이름으로 쓰인 바 있다. 열전이라는 말 속에는 『사기』에 수록된 낱낱의 전을 열거하였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낱낱의 전을 수록할 때 <백이열전(伯夷列傳)>, <관안열전(管案列傳)>, <오자서열전(伍子胥列傳)>과 같이 <~열전>이라는 표기를 일일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때 <~열전>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문체의 유형분화를 표시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정사에 수록된 서인술사(叙人述事)의 전체(傳體)를 ‘열전’이라고 독립된 의미로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종래에 있던 좌전(左傳)·시전(詩傳)·서전(書傳)·계사전(繫辭傳) 등 의경기의(依經起義)한 전과는 이미 다른 독특한 양식으로 의식하였으므로 굳이 <~열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리라 본다. 따라서 정사에 수록된 전을 열전이라 부르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열전의 입전대상은 계세징인(戒世懲人)하고 포핍(褒貶)하는 데 전범이 될 만한 인물이다. 사마천은 제 1권에 <백이열전>을 내세우고 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인간 역사의 본질을 주장하고, 동양의 정신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의리의 본을 드러내려 한 결과이다. 『사기』의 열전에서는 이처럼 의리뿐 아니

라 갖가지 분야에서 특출한 행적을 남긴 사람들을 입전하고 있다. 학자·정치가는 물론 가객·협객·점술인·장사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 70편의 열전 중에는 성격이나 활약상에 따라 일인일편(一人一篇)으로 입전할 것도 있고 이인일편(二人一篇)으로, 또는 성격이나 활약상에 따라 일편으로 입전한 것도 있다. 반고의 『한서(漢書)』에서는 한 인물을 한 편의 전으로 하면서 비중이 큰 인물을 상·중·하로 나누어 작전(作傳)하기도 하였다.²³⁾

열전의 입전의식은 공적 가치의 표창(表彰)과 선악의 포폄이다. 선악을 비판하는 춘추필법은 사서의 기본정신이였다. 공자는 『춘추(春秋)』에서 성공과 실패의 사실을 들어서 비판하였고 국가의 존망을 입증하여 선악의 규범을 분명히 했다. 사악을 적발하여 규탄하는 일이야말로 군자의 몫이었던 것이다.

② 사전(私傳)

열전은 공식적인 입장에 있는 사관이 공적인 인물을 표창하고 선악을 포폄하는 데 있다면, 사전은 사관이 아닌 문인 또는 학사들이 사사로운 입장에서 지은 전이다.

문인들에 의해 지어지는 사전은 문체가 화려한 데로 흘러 전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문집에 분분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전의 입전대상은 공적인 인물의 표창에 있지 않으므로 열전에서 제외된 인물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세속에 묻혀 있으면서 덕이 있어도 드러나지 않거나 보잘 것 없는 인물의 경우라 할지라도 본받을 만한 일이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입전의식도 열전이 공적 가치를 실현시킨 인물을 포창하며 그에 반대되는 인물을 폄하하여 당대질서를 유지시키려는 데 있다면, 사전의 입전의식은 공적으로 표창받지 못할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에게서 긍정적 가치를 발견하여 부각시키려는 데 있다고 하겠다. 그

23) 김용덕, 위의 책, pp.16~17

러니 작전자는 열전에서처럼 제약을 벗어버리고 자유스럽고 다양한 입전태도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사전은 연보나 행장을 기초로 지어지므로 구성이 단조롭고 연대기적이다. 그리고 비교적 사실에 입각하려 하면서도 조상의 업적을 찬미하려는 경향에서 문체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경향으로 흐르게 된다. 또는 친분이 있는 관계일 경우에도 그에게서 긍정적 가치를 발견하여 부각시키려 하므로 열전에서처럼 제약이 가해지지 않는 자유스럽고 다양한 입전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③ 탁전(托傳)

탁전은 현실의 부조리와 모순을 풍자하고 깨우치기 위해 특정인의 행적을 통하여 우의(寓意)한 전이다. 한 인물의 행위를 통한 우의로써 교훈을 주려고 한 점이 전의 근본정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열전이나 사전이 비교적 사적이 확실한 인물의 행적을 정확히 기술하여 후세인에게 계세적 교훈과 명철보신(明哲保身)하는 지혜를 주려고 한다면 탁전은 풍자적·우의적 필법으로 입전하여 교훈을 주려고 한다.²⁴⁾ 열전에서는 인물을 부각시켜 포폄하여 권선징악의 깨우침을 주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탁전에서는 인물 그 자체가 아닌 인물의 행위를 중시한다. 설령 그러한 행위의 인물이 실존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보조적 수단일 뿐 작가의 의도는 행위나 사건 뒤에 기술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므로 자기의 의도대로 작중 인물을 설정하여 변형시킬 수도 있고 전생애가 아닌 어떤 사건 한들을 부각시켜 강조할 수도 있다.

탁전은 기이한 재주를 지녔으며 기용되지 못한 인물을 주대상으로 삼으면서 때로는 사회의 모순이나 비리를 우의하고자 했다. 열전의 입전대상 인물은 공적

24) 김용덕, 위의 책, pp.19~20

인 인물이며 작전자는 객관적 입장에 서 있다. 그러나 탁전의 인물은 결코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니며 서술태도도 주관적 입장에 있다는 점이 다르다. 또 열전이 공인된 인물의 행적은 포폼하고 후세 사람들은 계도하려는 데 반해, 탁전은 한 인물의 포폼보다는 그 인물의 행위 그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우의의 수법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다. 또한 탁전이 사전과 구분되는 요건은 작가의 주관이 문면에 강하게 드러나는 점인데, 그 제목에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풍자하고자 하는 주제를 강조한 제목을 쓰는 경우도 있다.

탁전의 작가는 임의대로 그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여 마음껏 주장을 펼 수 있으므로 사전처럼 잘 아는 사이이거나 연보·행장 등의 근거가 없어도 전설만 가지고 입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화성과 주관의 강화로 실존인물보다 과장되거나 허구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이 점이 소설과 전의 혼동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탁전은 조선후기 여항인물전의 성격과 유사하다. 즉 탁전의 서술양식과 성격은 여항인물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다.

2) 여항인물전의 개념과 형성과정

역사적으로 여항(閭巷) 또는 위항(委巷)이란 용어는 조선 초부터 사용되었으며 그 후로도 계속해서 빈번히 사용되었다. 여항인이란 일반적으로 중앙의 요직에 나아가지 못하는 예인, 역관, 경아전 등의 중인층을 일컫는다고 하는 데에는 큰 이의가 없지만, 문학적 용어로 사용할 때에는 위항문학, 여항문학, 평민문학, 중인문학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다.²⁵⁾ 이는 한 시대의 문학적 용어를 규정하

25) 구자균의 경우 조선의 사회계급을 아홉으로 나누고, 이중 중인 서얼 서리계급을 주로 여항인이라 칭하였으나 평민, 천민과 같이 수족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서 평민으로 지칭하여도 좋을 것이

는 데 있어 역사적 개념과 문학적 개념 사이의 혼돈에서 오는 듯 하다.

좁은 뜻의 여항 문학이란 서울을 중심으로 경아전과 기술직 중인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문학을 말한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여항 문학이란 여항인들 스스로가 창작하고 향유한 문학과 사대부 계층이 여항인을 소재로 삼은 문학 전반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명명하는 여항인물전이라는 용어 역시 작가가 사대부일지라도 여항인을 입전한 작품이거나, 여항인들 스스로가 창작하고 향유한 인물전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면 여항 인물전에 입전 대상은 중앙관서의 각종 경아전은 물론 지방 관아의 서리, 아전 그리고 건달, 노비, 기생, 거지 등 피지배층 모두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조선 후기 여항인물전에는 이러한 다양한 인물군상이 입전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인물들이 문학의 소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조선후기의 사상적·사회적 배경 때문이라 할 수 있다.²⁶⁾

임병양란(壬丙兩亂) 이후 조선은 정치·사회·경제·문화의 모든 면에서 엄청난 변

라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조선사회에 있어서의 사부(士夫)를 제외한 여항인의 문학, 특히 이 중 특수한 계급이며, 일반 상민보다는 교양이 높았던 서리, 중인, 서류(庶流)의 문학을 위항문학으로 규정하고, 이를 상민, 천민의 문학과 함께 평민문학으로 지칭하였다. (윤재민, 『조선후기 중인층 한문학의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 연구원, 1999, p.3)

이 외에도 여항, 위항, 평민, 중인이라는 용어의 개념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분류하였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분류체계를 정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들이 담당하고 향유한 문학의 용어 역시 여항문학, 위항문학, 평민문학, 중인문학 이라는 말로 다양하게 불리워지고 있다. 이러한 용어의 개념에 대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면 윤재민의 위의 책을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26) 물론 조선후기 이전에도 여항적 인물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항적 인물이란 신라에서 조선초에 이르기까지 지배, 관료계층에 속하지 않는 예인, 의인 중에서 열전이나 문집에 입전된 상인(常人)으로, 조선후기 여항인과 같이 계층간의 저항적 갈등 의식이나 자의식이 없으나 삶의 과정 속에서 의로운 언행이 보여지는 인물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물들을 완전히 ‘여항인’이라고 지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대해 주명희는 “삼국사기 열전 권8에는 설씨녀, 검군 등 11명의 여항적 인물전이 입전되어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 열전에 실린 여항적 인물전의 입전 의도는 타인을 기리면서 동시에 지배층 집단 우위 의식을 드러내는 데 있었다. 또한 여말선초의 여항적 인물전 역시 역사에서 기록되지 아니한 인물들의 특출한 행동을 통해 사대부 계층에 대한 비판과 각성을 촉구할 의도로 입전되기는 했지만 아직은 여항인들을 사회적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 그 존재가치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조선 후기 이전의 여항적 인물전은 본격적인 여항인물전이라 하기엔 부족하다고 하겠다.”고 말하였다. (주명희, 「전의 양식적 특징과 소설로의 수용양상」, 서울대 박사논문, 1986, pp.22~31)

화가 일어났다. 17세기부터 역관을 중심으로 하여 중인계층이 형성되면서 나뉠대로의 문학과 사상이 형성되어 중인 시각으로 본 인간평등 사상이 형성되었고, 기존의 성리학의 근본을 흔드는 북학 사상과 상대주의적 사상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이 피지배층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켜 여항인물전의 발전에 영향을 끼친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신분제가 와해되고 상품 경제의 확대가 일어나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한 중인계층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시사(詩社)를 결성하고 예술을 활성화 시켰을 뿐 아니라 다른 중인계층의 경제적 후원자가 되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경제성과 전문성에 자부심을 느끼고 과거 사대부들의 전유물이었던 문학을 창작·향유함은 물론 주변 인물들에 대한 관심을 문학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 역시 조선 후기 여항인물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상적·사회적 배경 속에 여항인물전의 창작은 점차 확대·발전되어 1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가객, 악공, 역관, 유흥, 의원, 거지, 노비 등 당대 사회상을 생생하게 대변하는 다양한 인물군상이 작품에 입전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입전자로는 정래교, 박지원, 이옥을 들 수 있겠다.

완암(浣巖) 정래교(鄭來僑)(1681~1759)는 <오효부전(吳孝婦傳)>, <취매전(翠梅傳)>, <김성기전(金聖基傳)>, <임준원전(林俊元傳)>, <백태의전(白太醫傳)>, <화사김명국전(畫師金鳴國傳)> 등 6편의 여항인물전을 남겼다. 그는 생원진사시에 2등으로 합격했지만, 자기 말대로 예순이 지나서야 벼슬길에 오를 수 있었다. 그의 입전대상은 단순히 효, 열을 실행하는 인물이라기보다 주체의식과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재물에 얽매이지 않고 권세에 아부하지 않는 지사적 인물 역시 입전하였다. 물론 완암이 이러한 여항인들에게 특별한 가치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완암의 이러한 개방적인 입전 의식은 이후 박지원과 이옥 등의 문인들에게 어느정도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 의의가 있

다.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1737~1805)은 <마장전(馬埋傳)>, <예덕선생전(穢德先生傳)>, <민옹전(閔翁傳)>, <광문자전(廣文者傳)> 등 9작품의 여항인물전을 남겼다.²⁷⁾ 여기에 입전된 인물들은 미치광이, 인분수거꾼, 거지, 신선, 역관 등으로 그 입전대상이 상당히 확대되었다. 이는 단순한 확대가 아닌 최하층 인물들을 주요 입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음의 기록을 통해 연암의 입전 동기를 살펴보자.

세상의 벗 사귀는 오로지 권세와 이익을 좇았다. 그리하여 여기에 붙었다 거기에 붙었다 하는 세대가 꼴불견이었는데 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이런 세대를 미워하셨다. 그래서 아홉 편의 전을 지어 세대를 풍자하였는데, 그 속에는 왕왕 우스개 소리가 들어있다.²⁸⁾

27) 연암의 작품에 대해 전기로 볼 것이냐, 소설로 볼 것이냐는 그 동안 학계의 끊임없는 논쟁이 되어왔다.

연암의 작품을 소설로 보는 경우를 살펴보면, 김태준은 “박지원의 <우상전>, <김신선전>, <민옹전>, <광문자전>, <예덕선생전> 등은 대개 실제 인물의 전기이면서 전통적인 전기의 질서를 크게 벗어나 있었다. 전기의 양식을 표방하기는 하면서도 그 지향점은 소설이 감당할 수 있는 요소들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다.”고 하였고(김태준, 『고소설과 전』, 『한국고소설론』, 아세아문화사, 1991, p.104), 연암의 작품에 대해 이가원은 ‘한문소설’, 장덕순은 ‘한문단편소설’, 이우성은 ‘한문단편’, 이재선은 ‘한문단형서사문학’이란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용어 모두 박지원의 작품을 소설로 인정하는 명칭들로 볼 수 있다. (이동근, 『전 양식의 역사적 전개양상』,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p.10)

그러나 본고는 전술한 바와 전기의 개념을 넓게 바라보고 있는 바, 연암의 작품을 모두 전기라고 기술하였다. 이는 조선후기의 여항인물전이 대부분 일대기적 기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장면의 극대화나 대화묘사를 통한 서술의 변모양상이 두드러지므로 연암의 이러한 작품들도 근본적으로는 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이다.

이원주의 경우도 “<우상전>은 역관 이연진의 시화를 중심으로 한 전기로서, 구성의 요소는 찾아볼 수 없고, 군자의 도를 말한 <마장전>이나 신선사상의 오류를 지적한 <김신선전>도 소설로 볼 수 없다.”고 하였고(이원주, 『연암소설고(1)』, 한국어문학 15, 1966, p.41), 정홍진 역시 “<예덕선생전>과 <마장전>은 사건전개가 없어 소설일 수 없다.”고 하였으며(정홍진, 『연암 문학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75, p.27), 이동근의 경우도 “필자 역시 연암의 작품 모두가 패사소품체로 되어 있지만 소설적 의장을 구비한 작품은 <양반전>, <허생전>, <호질> 정도라고 생각한다.”(이동근, 위의 논문, p.11)고 하여 연암의 작품을 소설과는 다른 독자적인 전 양식으로 바라보고 있다.

28) 박종채 지음, 박희병 옮김, 『나의 아버지 박지원』, 돌베개, 1998, p.21

이 기록을 통해 볼 때 연암이 전의 입전과정에서 흥미와 관심을 끌기 위해서 허구적 수법과 소설적 장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입전 동기는 신의를 상실한 시정에 대한 비판으로 보아야 한다. 즉 연암은 여항인물을 등장시켜 이들보다 못한 사계층을 각성시키고 지배체제를 더욱 깊게 하기 위해 사의식(士意識) 강한 전을 지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²⁹⁾

다음으로 살펴볼 이옥(李錕)(1760~1812)은 엄밀한 의미의 조선후기 여항인물전을 완성시켰다고 볼 수 있는 작가이다. 그는 총 23편의 적지 않은 전을 지었지만 자신의 문집을 남기지는 않았다. 때문에 그의 작품은 담정(潭庭) 김려(金鑣)(1766~1822)가 여러 문인들의 글을 모아 편찬한 『담정총서(潭庭叢書)』에 실려 있는 것으로만 파악될 뿐이다. 이옥은 서얼이라는 신분적 차별로 인해 출사에 실패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문체반정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받은 사람이었다. 때문에 사대부로서의 현실 참여의 길이 차단된 뒤에는 여항적 인물에 대하여 흥미를 갖는 일탈적 선비의식을 보였다. 그의 전기 작품들이 대부분 생애 후반부에 쓰여진 것도 이러한 사실을 이를 대변하고 있다. 이옥의 경우 여항인물들을 별개의 사회집단으로 보며 그들의 특이한 행동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했다. 즉 여항인물들의 행동을 조선후기의 시정공간에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존재들의 행위로 바라본 것이다. 여항인 집단에 대한 이옥의 관심은 그의 전기 작품 속에 생생히 드러난다. 작품 속에는 시정인들의 삶과 사회현실의 적나라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뿐 아니라 여항인들의 존재가치를 강조한 작가 의식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러한 이옥의 작품은 조선후기 여항인물전의 연구에 있어 상당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상 살펴본 정래교, 박지원, 이옥 이외에도 홍세태(洪世泰)(1652~1725), 김려, 채제공(蔡濟恭)(1720~1799) 등 각각 독자적인 시선으로 여항인들을 바라보며 이

29) 연암 작품에 내재된 이러한 강한 비판의식에 대해 이종주는 ‘연암의 전은 전이라기보다 그 형식을 차용한 논(論)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였다. (이종주, 『북학과의 인식과 문학』, 태학사, 2001, p.139)

들에 대한 전기를 남긴 작가들이 조선후기에는 상당수 존재했다.

이러한 개인 전 작가들의 인물전들을 바탕으로 19세기에는 『호산외기(壺山外記)』(1844), 『이향견문록(里鄉見聞錄)』(1862), 『희조질사(熙朝軼事)』(1866)의 3대 여향전기집이 편찬되기에 이른다.

『호산외기』는 조희룡(趙熙龍)(1789~1859)이 『해동외사(海東外史)』의 본을 받아서 지은 인물전집으로, 총 39항목 42명의 효자·아전·역관·예인·시인·책장수 등의 인물이 입전되어 있다. 『이향견문록』은 유재건(劉在建)(1793~1880)이 지은 전기집으로, 14항목 287명의 방대한 인물전이 실려있다. 여기 수록된 전기 작품을 유재건이 모두 직접 지은 것은 아니고, 이미 지어진 전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향견문록』은 『호산외기』에 비하여 어느 정도 야담화, 기사화가 진행되었다고는 하나 이 역시 넓은 의미의 전기집임에는 틀림없다. 『희조질사』는 이경민(李慶民)(1814~1883)이 지은 것으로, 85명의 인물들이 입전되어 있으나 자신이 지은 것은 없고 모두 남의 글로만 엮였으며 전 양식에서 벗어난 것도 상당하다. 그러나 『희조질사』 역시 당대 인물전의 변용 양상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전기집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인물전집 외에 최근 들어서는 전기 문학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여향인물전 중 흥미로운 작품들을 한 데 모아 따로 출판된 자료집들이 많이 있다.³⁰⁾ 이러한 자료집들을 통해 학생들이 한층 쉽게 그리고 친숙하게 고전 전기를 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30) 최근에 출판된 여향인물들에 대한 전기 자료집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시해 둔다.

구인환, 『진이전』, 신원출판사, 2004
김 호, 『조선과학인물열전』, 휴머니스트, 2003
유홍준, 『화인열전』, 역사비평가, 2001
진재교, 『알아주지 않은 삶』, 태학사, 2005
허경진, 『평민열전』, 웅진북스, 2002
-----, 『악인열전』, 한길사, 2005

3. 여항 인물전의 교육적 가치와 의의

지금까지의 전기 문학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전과 인접 장르와의 관계를 규명하거나 개별 작가의 전 작품 자체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때문에 전의 형식상의 문제 혹은 작품과 작가와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상당한 개과를 이루었지만, 작품 자체의 내재적 가치나 그 효용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렇기에 고전 인물전의 내적 가치를 찾아 전기문학 교육과 연관지어, 효용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조명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전기문학을 효용론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독자들의 사고력을 확장하고 삶의 제반 문제를 고찰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효용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조선후기 여항인물전의 교육적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전기문학 교육에 있어서 여항인물전은 어떠한 의의를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여항인물전 속의 다양한 인물 군상들은 그들의 치열했던 삶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가’와 같은 개인적인 삶의 문제를 생각하게 해준다.

조선후기 여항인물전이 다른 전기 작품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뚜렷이 드러나는 특징은 입전 대상의 성격에 있다. 조선전기의 입전대상은 주로 충신, 열녀, 효자, 열사 등이고 그들의 신분 또한 대개 지배층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 인물전의 입전대상은 대부분 당대 신분적 제약이 뒤따르던 인물들이다. 이 신분적 제약은 그들의 삶을 좀 더 치열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었을 것이다. 비록 이러한 제약을 뛰어넘어 사회적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정적인 환경이 주어진 사대부 계층에 비해 훨씬 힘이 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치열한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떤 인물들은 자신의 재능과 기지를 발휘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보여주기도 하고,³¹⁾ 또 다른 인물들은 그 치열한 삶 속에서 결국 주저앉아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처럼 조선후기 여항인물전에 입전된 이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인간의 개별성과 다양성이 부각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 본질이나 심리적 갈등 역시 잘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이러한 여항인물전을 가르친다면, 학생들은 작품 속 인물의 삶에 공감을 하고 동시에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대의 다양한 삶의 양상 속에서 능동적으로 자신을 표출해 낼 수 있는 자신만의 개성과 장점은 무엇일지 생각하고, 삶의 방향을 개선해 나가는 기회 또한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여항인물전의 교육적 가치는 7차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문학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 즉 ‘작품을 즐기면서 동시에 학생들이 자아를 발견하고 세계를 인식하게 한다’는 목적과도 부합된다. 결국 여항인물전은 문학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케 하는 교육자료의 역할을 담당하는 셈이다.

다음으로 여항인물전에 내포된 조선후기 변동기적 사회상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에 대한 안목 또한 넓힐 수 있다.

우리 역사의 흐름에서 조선후기는 중요한 시대적 위치를 지닌다. 조선전기의 안정적이던 사회 분위기가 조선후기에 오면서 급격히 변화되면서 이전의 지배-피지배의 신분체제가 뿌리 채 흔들리게 된 시기이기 때문이다. 지배층의 정치적 분열 양상 또한 가속화 되고 유통경제의 발달에 따른 평민들의 부의 축적이 가능하게 되면서 조선후기의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당대 변동기적 사회상은 급변하는 오늘날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기

31) 이러한 다양한 인물상에 대하여 박희병은 “이러한 전의 입전대상들은 획일성과 규범성에 따라 움직이는 중세적 인간형이 아니라, 발랄함과 생기, 자의식과 개성이 넘치는 인물들이다. 이른바 주체적 인간상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박희병,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3, p.85)

에 학생들은 여항인물전을 통해 조선후기라는 시기가 단순히 '지나가버린 과거의 시기'가 아닌, 현대와 연속선상에 있는 역사적 시기임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면서 당대의 사회상과 현대의 사회상을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항인물전 속에는 당대 사회적 문물과 제도, 풍습 등이 다양하게 그려져 있어 학생들은 글을 읽음과 동시에 과거의 전통을 인식하게 된다. 이는 딱딱한 국사나 윤리 교과서에서만 배우던 전통의 가치를 학생들이 좀 더 쉽고 자연스럽게 익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문학 교육의 일반적인 기능인 인식적 기능과 윤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문학의 인식적 기능이란 일반적으로 작품에 나타난 새로운 내용의 이해와 인식을 말하며, 윤리적 기능이란 작품에서 드러난 작가의 가치 판단을 통해 바람직한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여항인물전을 통해 과거의 시대상과 사회상은 인식적 측면에서, 전통적 윤리와 가치관은 윤리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여항인물전의 특징 중 하나인 논평의 확대는 타인에 대한 관심의 확대라고도 볼 수 있다. 타인에 대한 관심은 오늘날과 같은 개인주의와 인간소의 현상이 만연한 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가치이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에서 여항인물전을 활용할 때 학생들에게 이러한 논평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한다면 큰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가 작품 속 인물의 삶에 대해 평가해보고 이를 논리적으로 표현하게 한다면, 공동체적 가치관의 습득은 물론 쓰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의 신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때 작품 속 인물에 대한 관점은 학생들마다 다양하므로 이를 토의와 토론의 주제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 여항인물전의 교육적 가치와 의의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여항인물전의 교육적 가치가 현행 전기문학 교육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Ⅲ. 여항인물전의 유형별 교육 방안

앞에서 살펴본 여항인물전의 가치를 구현해 내기 위해 이 장에서는 여항인물전을 교육적 문제의식에 따라 유형별로 나누고, 작품의 실례와 함께 구체적인 교육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기문학 교육은 학생들이 흥미롭고 감명 깊게 작품을 읽음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한다. 학생들이 전기문학을 흥미롭고 감명 깊게 읽기 위해서는 먼저 입전대상이 학생들로 하여금 동일시 되기에 적합한 인물이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너무나 뛰어난 업적을 남겨 이미 위인으로 인정되어 버린 인물들은 자아정체감이 어느 정도 성립된 중·고등학생들에게 더 이상 동일시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들에게 있어 위인은 이미 나와는 거리가 먼 역사 속 인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사대부 계층으로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물을 입전한 작품을 배제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반대로 전기문학 속의 인물이 단순히 학생들의 흥미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정도로만 만족되는 인물이어서도 안 된다. 전기문학 교육은 특정한 인물의 생애나 업적, 일화를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인성발달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기문학을 교육시키고자 할 때 학생들이 동일시 하기에 적합하면서도 삶의 가치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모범적 인물들을 선정하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작품 속 인물들의 내·외적 조건을 세세히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품들을 교육자료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도록 가치별·유형별로 분류하는 일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은 여항인물전을 전기문학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조선후기 인물전집 중 가장 방대한 양을 자랑하는 『이향전문록』의 경우 작품 속 인물 유형을 14가지 직업으로 분류했지만, 이 중 의협, 충렬, 효자, 열녀 등은 사실상 직업이 아닌 가치관의 분류이다.³²⁾ 그리고 조선후기 인물전의 작품만을 실은 문헌의 경우도 대부분 이와 비슷한 분류 양상을 보인다.³³⁾ 개별 연구자들의 선행 연구물들을 살펴보면 자기 자신들의 연구 목적에 따라 작품 속 인물들을 때론 직업이나 신분으로³⁴⁾, 때론 성격과 환경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³⁵⁾, 때론 인물의 현실 대응 양상을 기준으로³⁶⁾ 하는 등 다양한 분류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물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전의 양식적 특성이나 개별 작가들의 전 작품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에 이러한 인물 유형 분류를 본고에서 차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작품을 통해 학생들이 어떠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교육적으로 어떠한 내적 가치를 구현해 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들을 유형화 하였다. 이러한 유형분류는 학생들 스스로가 삶의 제반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의식을 지녀 자신과 사회, 나아가 통시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먼저 순간적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를 극복해낸 인물들이 드러난 작품들을 묶어 이를 통해 현실 대응 방법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개인

32) 허경진, 『평민열전』, 웅진박스, 2002, p.19

33) 조희룡의 『호산외기』에 분류된 인물 유형을 살펴보면, 문학(12명), 덕행(7명), 서화(6명), 이기행(異奇行 : 3명), 효자(3명), 신선(3명), 유협(2명), 의원(2명), 승려(1명), 열부(1명), 가객(1명), 기객(碁客 : 1명) 등 총 39항 42명이 수록되어 있다. 이상의 분류는 신분, 직업, 가치관 등에 따라 나눈 것으로 체계적인 분류라 볼 수 없다.

34) 박희병은 자신의 논문 「한국 고전인물전 연구」에서 조선후기 인물전을 직업이나 신분을 중심으로 각각 예인전, 유협전, 신선전 등으로 나누었다.

35) 김용봉은 이옥의 전 작품을 인물의 성격과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초월적 인물, 보편적 인물, 개별적 인물, 전형적 인물로 나누었다. (김용봉, 「이옥의 전 연구」, 명지대 석사논문, 1999, p.72)

36) 김정일은 조선후기 여향인물전 작품 속 인물들의 현실대응 양상을 중심으로 즉물적 인물과 즉아적 인물로 나누었다. 즉물적 인물에는 인간의 가치를 고양한 인물과 자아실현 및 현실개혁의 인물이, 즉아적 인물에는 극단적 자부심과 자기파괴적 성향을 나타내는 인물과 초월적 삶을 산 인물이 포함된다. (김정일, 「조선후기 여향인물전 연구」, 동아대 박사논문, 2002, pp.38~39)

적 차원의 문제로, 매순간 일어날 수 있는 현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학생 스스로가 현실 대응 방법을 찾아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전문적 직능을 발휘한 인물들이 입전된 작품들을 통해 자아실현과 직업의식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자신의 사소한 능력을 전문적으로 확대시킨 인물들을 교육자료를 통해 접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나아가 참다운 직업의식을 정립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작품에 사회적 시혜의 행위가 두드러진 인물들이 입전된 경우, 이러한 작품들을 묶어 유형화 함으로써, 학생들이 개인과 사회의 관계속에 공동체적 삶의 문제를 고찰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신분적 좌절을 겪은 인물들이 입전된 작품들을 통해, 과거와 현대의 잘못된 사회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지닐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이 같은 유형 분류 뒤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작품의 실례와 학습활동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학교현장에서 실제적인 전기문학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품에 따른 학습활동은 앞서 살펴본 여향인물전의 교육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구현해 낼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한 '활동 중심의 문학'³⁷⁾이 되도록 유도하였다. 내용학습은 주로 작품의 기본내용을 파악하고 작품 속 인물과 주제에 대해 좀 더 깊고 넓은 이해가 수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적용학습은 학생들이 작품 속에서 문제의식을 도

37) 활동 중심의 문학이란 문학을 설명하는 중점을 인간의 활동이라는 특성에 두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와 감상'이라는 말도 이해하는 수렴적 활동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표현 행위를 발산적 활동으로 인식함으로써 글쓰기를 강조하게 된다.

활동 중심의 문학교육의 의의는 첫째, 문학 활동이라는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쌓아 감으로써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능력에 목표를 둔다. 따라서 이해와 표현의 양면을 아우르는 균형적인 능력의 교육으로 발전하게 해준다. 셋째,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활동의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므로써 인간적 의의를 지니게 된다. (최현섭 외,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1999, pp.469~470)

출해 내고 이를 내면화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활동에 대한 선정 취지와 교수-학습활동을 함께 제시하여 실제 학교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교수-학습 방안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읽기 지도 과정인 '읽기 전→읽기 중→읽기 후'의 단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전기문학 교육은 먼저 읽기 활동을 통한 글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도상의 편의를 위하여 읽기 교수 전략을 차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1. 순간적 기지를 발휘한 인물 - 현실 대처 방법의 문제

제 7차 교육과정은 '변화하는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고자 함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³⁸⁾ 다시 말해 현대의 교육은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을 바랍직한 인간상으로 지향하고 있다는 말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이란 현실을 직시하여 그에 알맞은 능력과 행동으로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뜻하며, 이는 다른 말로 '현실 대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현대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고, 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적극적인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 밖으로 쉽게 도태되고 만다. 남보다 더 나은 능력과 실력을 지녀야만, 그리고 남을 밟고 올라서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게 현실인 것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 변화해 가는 매일의 삶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자 한다. 이러한 능력은 물론 단시간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지속적인 학습과 훈련, 지식의 축적과 경험 확대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

38)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국어), 교육인적 자원부, 2001, p.2

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능력을 학생들에게 배양시키기 위해 학교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교육자료로 학생들을 교육시켜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한 방편으로 여기서는 전기문학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전기문학, 그 중에서도 여항인물전 속에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위기를 대처해 나간 인물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는 위기의 상황이 소설처럼 작가가 꾸며낸 허구적 상황도 아니고, 인물 또한 신화 속 인물들처럼 비범한 인물이 아니기에 학생들은 작품에 쉽게 공감할 수가 있다. 학생들은 자신들과 같은, 아니 오히려 더 약자라고 생각되는 평범한 인물들이 순간의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깨달음과 감동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라면?’하는 가정 상황을 설정하여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문제 해결력 또한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지혜와 용기로 상황을 극복해 낼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작품을 읽어봄으로써 간접 경험의 폭을 넓히고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교사는 학생들이 이러한 작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교훈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인물전의 자료를 직·간접적으로 많이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작품들을 몇 가지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달문전(李達文傳)>은 조수삼(趙秀三)(1762~1849)의 문집 『추재기이(秋齋記異)』에 전하는 작품이다. 주인공 달문이 하루는 한 가게에 갔는데 주인이 인삼 여러 뿌리를 보이면서 자랑하였다. 잠시 주인이 방에 들어갔다 나온 사이에 그 인삼이 사라졌는데, 달문에게 물으니 그는 ‘마침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 넘겼다’라고 말한다. 다음날 주인은 께짝 뒤에서 자신이 놔둔 인삼을 발견하고 달문에게 거짓말을 한 이유를 물으니 달문이 말하길 ‘인삼을 내가 이미 보았는데 갑자기 사라졌으니, 내가 만약 모른다고 하면 주인께서는 나를 도둑놈으로 보지 않

겠는가'라고 했다. 결국 달문은 도둑으로 몰리게 될 상황에서 순간적인 기지로 그 상황을 모면하는 재치를 발휘한 것이다.

<유동자전(劉童子傳)>은 조희룡의 『호산외기』에 실려 있는 작품으로, 주인공인 유동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다만 유동자가 아홉 살때 한 사람에게 유괴된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하여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작품 속에서 동자는 유괴된 상황에서도 몇 달을 아무렇지 않게 지내다가 몰래 틈을 노려 이웃집 사람을 이용하여 그 집을 빠져 나온다. 이때 이웃사람에게 '우리 부모님이 사례를 할 것'이라는 거짓말을 한 뒤, 도성에 도착하고서 '이 사람이 나를 훔쳐 간다'고 소리치는 기지를 발휘한다. 이러한 기지에 대해 조희룡은 '남의 등을 빌려 천릿길을 돌아와서는 권모를 내어 그 사람을 쫓아 버렸으니 교활하기도 하다. 혹시 집이 가난하여 그에게 보수를 줄 수 없음을 스스로 알고 이런 계책을 썼던 것일까?' 라고 하며 아이의 기지에 놀라워했다. 이러한 기지를 발휘한 것 역시도 위기의 순간을 지혜와 용기로 극복해 낸 사례로, 이 글을 읽는 학생들에게 현실 대처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에서 살펴볼 <포호처전>과 <각저소년전> 역시 위기의 순간을 용기와 지혜로 극복해 낸 인물들을 입전한 작품이다. 이 두 작품은 학교교육에서 실제적인 전기문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학습 활동 및 교수-학습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포호처전(捕虎妻傳)> 교육방안 예시

① 작품 및 학생-학습 활동 예시

<포호처전(捕虎妻傳)>은 이옥의 작품으로 김려가 편찬한 『담정총서』의 「매화외사(梅花外史)」에 실려있다. 이 작품은 주로 조선후기 여항인물전의 장르적 성격을 규정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 의해 부각되었다.³⁹⁾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후기의 전 작품들은 조선전기와는 달리 대부분 전통적인 전 양식에서 상당히 변용·발전된 양상을 띤다. 때문에 이러한 전의 장르적 속성은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본고는 전의 양식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아닌, 내용의 효용성에 초점을 맞추는 바, 이 작품의 장르적 속성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하지 않겠다.

이 작품 속 아낙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닥친 위기의 상황을 순간의 기지를 발휘하여 극복해낸다. 호랑이와 마주한 극한 상황에서 아낙은 침착성을 잃지 않고 솜을 던져 호랑이를 잡은 것이다. 이는 비범한 재주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낸 것도 아니고, 우연적 사건에 의해 자연스럽게 극복되어진 상황도 아니다. 단지 연약해 보이는 한 아낙의 적극적인 현실 극복 의지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

39) 이동근은 “조선후기는 야담과 전, 소설과의 장르적 변별의식이 분명하지 못하였다. 소재적 측면에서 한계를 느꼈던 산문 작가들에 의해 전의 변체적 형식에 흥미적인 사건을 부분적으로 허구화한 전을 제목만 야담식으로 명명하여 야담에 포함시키고,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하여 교훈성과 흥미성을 구비한 야담을 전의 형식으로 재구조화하는 작업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옥의 작품 중 야담의 수용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문학성이 드러나는 작품으로 <심생전>, <포호처전>, <신병사전>, <협효부전>등 들 수 있다.”고 하였다. (이동근, 위의 논문, p.13)

또한 <포호처전>과 설화와의 연관성에 대해 최태호는 “<포호처전>의 구조는 완전한 민담의 구조이다. 이는 보편적이고 통시대적인 설화로서, 민담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인간과 비인간의 대결을 다룬 것이다. 민담을 이 같이 전으로 옮겨 놓은 뒤 논평을 덧붙이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설화에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는 작가의 관점이다. 이옥은 양반이면서도 서민층의 움직임에 민감했던 인물이었다. 그래서 약자인 인간이 강자인 범을 피로써 잡아낸 이야기를 자기의 작품으로 수용하고, 약자와 강자의 위치가 때에 따라서는 이처럼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최태호, 『한국고전문학 연구』, 역락출판사, 2000, pp.444~445)

해 김정일은 “<포호처전>은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을 벗어난 솟장수 아내의 침착성을 칭찬한 내용이다. 위기를 극복하는 부분에서 솟장수 아내의 참작하면서 인정 많은 태도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다”⁴⁰⁾고 하며, 아낙의 행위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아낙의 위기 대처 능력과 태도는 학생들에게 위기의 상황에서도 침착성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해준다. 그리고 아낙의 모습을 통해 학생들은 운명론적인 사고관을 탈피한, 현실적이고 주체적인 삶의 대응 자세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을 학교교육에서 전기문학 교육자료로 활용한다면, 교사는 이러한 작품의 의의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해야 할 것이다. 교사는 작품 속 인물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행동 양상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이 작품을 통해 학생들이 깨닫게 되는 교훈은 무엇인지, 그리고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학생들이 이 작품을 통해 현실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해 주어야 한다.

<포호처전>의 내용과 그에 따른 학습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0) 김정일, 위의 논문, p.107

<작품 읽기>

호랑이를 잡은 아낙

정읍 산성 아래에 솟 굽는 것을 업으로 하는 백성이 있었다. 그는 홀로 처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집에는 개 한 마리 뿐 사방 십 리에 이웃이 없었다. 그의 처가 아이를 가져 해산달이 임박하였다. 그 백성은 솟을 가지고 장터로 가면서 처에게 당부했다.

“내가 가지 않으면 미역과 쌀을 마련할 수 없어요. 비록 밤이 늦더라도 꼭 돌아 올 것이니 기다려 주구려.”

이 날은 비가 크게 오고 벼락이 치기도 하여 솟이 팔리지 않았고 누구에게 돈을 꾸려고도 해보았으나 얻을 수 없어, 먼 마을까지 돌아다니느라 일찍 올 수 없었다. 밤중에 그의 처가 아이를 낳았는데 개 또한 마침 아궁이 곁에 새끼 세 마리를 낳았다.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다만 싸라기만 조금 남아 있었다. 솟으로 뿔감을 대신할 수 있었으므로 드디어 돌을 가지고 질그릇 항아리를 화로에 피고, 방 안에서 솟을 피워 죽을 끓이고 있었다.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와서 지계문을 밀치고 막 들이닥칠 찰나였다. 그 처는 몸을 일으켜 개를 쓰다듬고 타일러 말했다.

“내 아이는 사람이고, 네 아이는 짐승이다. 어미의 자정(慈情)이 비록 마찬가지이긴 하겠으나 경중(輕重)의 차이가 있으니,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이에 갓난 강아지 한 마리를 호랑이에게 던져주며 말하였다.

“산군(山君)은 굶주렸는가? 너에게 한 주먹 살점을 마치노니, 얼른 돌아가서 사람에게는 해가 미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호랑이가 입을 벌려 받아 삼키는데 마치 학이 음식을 먹듯 하였고, 다 삼키고도 떠나지 않기에 다시 한 마리를 던지니 또 삼켜 버리고는 으르렁거리며 포식하기를 바라는 기색이었다. 그 처가 생각하기를, 강아지 세 마리 중 내가 두 마리를 던져 주었으니 더 이상 줄 수 없고 또 저 짐승의 욕심을 키워줄 수 없으니, 피를 써서 쫓아야 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에 몰래 헌 솥에다 화로 속에 있던 돌맹이를 썬 다음 다시 던졌더니, 호랑이는 그것이 강아지인 줄 알고 씹지도 않은 채 꿀꺽 삼켜 버렸다. 목구멍을 지나서야 비로소 뜨겁게 느끼고, 사자가 공을 굴리듯 날뛰고 포효하다가 죽어 버렸다.

새벽에 남편이 빈손으로 돌아와 보니 처는 탈 없이 아이를 낳은 데다 큰 호랑이가 마당에 자빠져 있었다. 달려가 관가에 보고하였더니 관에서는 그 처에게 쌀 한 섬을 보내주었고, 장(醬)과 미역 따위도 많이 딸려왔다. 관에서는 대신 호랑이의 가죽을 벗겨갔다.

*이자(李子)는 말한다.

아! 호랑이의 죽음은 마땅한 일이다. 호랑이가 틈을 엿보다 그 방 앞에 이르렀을

때 눈앞에 꼼지락꼼지락 하는 것을 모두 고깃덩이로만 보았지, 사람이라고 보지 않았다. 그러므로 죽음의 덫을 밟았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만일 그 백성이 그 방안에 지키고 있었다면 반드시 호랑이가 감히 집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설령 이르렀다 하더라도 잡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그의 처는 한 여자로서 만일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갑자기 호랑이를 만났다면 눈을 가리고 먼저 달아났을 것인데, 어찌하여 호랑이를 잡으려는 데에 뜻을 둘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도 홀로 깊은 밤에 처하여 낫빛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장사(壯士)의 공을 거두게 되었다.

①이런 까닭에 형세가 급박하면 약한 사람도 강한 것을 이길 수 있고, 사려가 미치지 못하면 강한 자도 자신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옛 글에 “근심은 소홀한 데서 생겨난다”고 하였으니 이는 호랑이를 두고 한 말이고, 병법(兵法)에 “죽을 땅에 놓여진 뒤라야 살게 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 백성의 처를 두고 한 말인가 보다.

『담정총서(潭庭叢書)』 「매화의사(梅花外史)」 41

*이자(李子) : 작가 이옥을 뜻함

<학습활동>

▷ 내용학습

1. 아낙이 위기의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한 부분을 찾아 밑줄을 그어보자.

2. 위 글에 나타난 호랑이는 어떤 호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중학교 1학년때 배운 ‘설화 속의 호랑이’의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해보자.

신격화된 호랑이

⇒호랑이를 신성한 존재로 보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음

어리석은 호랑이

⇒약한 자와의 대결에서 쉽게 지는 어리숙한 모습으로 표현



포악한 호랑이

⇒악을 물리치고 선이 이기기를 바라는 민간의식 표현

정과 의리의 호랑이

⇒정과 의리를 지닌 인물로 인격화하여 친근감을 느낌

3. 위의 밑줄 친 ㉠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말해보자.

4. 이 글을 토대로 전(傳)과 설화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해 보자.

	전	설화
공통점		
차이점		

▷ 적용학습

1. 자신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던 경험에 대해 얘기해보자.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함께 얘기해보자.

2. 다음은 순간적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를 극복해낸 현대의 경우이다. 이에 대한 논평을 직접 작성해보자.

강도잡은 우체국 여직원

시골우체국에 침입한 강도를 침착하고 제치있게 경찰에 신고, 체포할 수 있게 한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소재 원곡우체국 사무장 이혜자씨(38)가 10일 이상철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이씨가 근무하는 원곡우체국에 강도가 침입한 것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반쯤. 설 연휴를 앞두고 폭주하는 낮 업무를 마치고 서터문을 내린 채 금고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는 순간 강도가 뒷문을 통해 침입했다.

“강도가 침입했다는 것을 감지한 순간 거의 반사적으로 행동했던 것 같아요. 금고 다 이열을 돌려 잠그고 오른손에 가스총을, 왼손에 비상벨 리모컨을 들었어요”

이를 본 강도가 뒤에서 가스총을 빼앗고 이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댔으나 이씨는 그 순간에도 침착성을 잃지 않고 왼손의 리모컨을 주머니에 넣고 연신 눌러댔다. 강도는 현금 13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려 했으나 비상벨을 듣고 출동한 경찰과 경비회사 직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이씨는 “할 일을 다한 것 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12년째 우체국에 근무하고 있는 이씨는 남편 신성철씨(39·과수원 경영)와의 사이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국민일보 2003-02-10] 정재호기자

② 교수-학습 방안 예시

이 작품은 설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읽기 전 활동에서 전기와 설화와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교사의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단순히 설화와 전기의 개념과 특징, 유형 등에 대한 이론이 주를 이루기보다는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 예를 들어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아버지의 유물’, ‘우정의 길’, ‘설화 속의 호랑이’ 등과 같은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배경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기존의 작품들을 통해 배경지식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기존의 내용을 재점검하게 하고,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확장하게 해주므로 효과적이다.

이와 같은 배경지식의 활성화를 토대로 읽기 중 활동에서는 먼저 학생들에게 이 작품을 읽게 한 후 내용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도록 한다. 이때 교사는 개방적인 수업 분위기를 연출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교사는 반드시 글의 내용에서 학생들이 문제의식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사의 질문은 이 작품을 교수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이다. 이는 작품의 주제와 교훈을 이끌어 내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 하나의 ‘정답’만이 있을 수는 없으므로 교사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대답을 수용하면서 적절하게 그 내용들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학습전개가 끝나면 교사는 읽기 후 활동으로 제시된 학습활동을 학생들이 정리하도록 함으로써 인식의 강화 및 학습의 내면화를 이끌어 내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학습활동의 구성을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 편재를 기준으로, 내용학습과 적용학습으로 나누었다.

41) 본문은 역주는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역주) 이옥 전집』, 소명출판사, 2001을 참고함

먼저 내용학습은 글의 기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으로, 작품 속에서 드러난 아낙의 행위와 호랑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였다. 또한 인접 갈래와의 연관성과 작품의 주제 등을 생각해보는 이해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내용학습에서는 교사의 개입이 어느정도 적극성을 띠는 것이 좋다. 글 이해의 차원에서 교사의 이론적 설명이 요구된다면 적극적인 개입으로 학생들이 글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학습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적용학습에서는 학생들의 경험을 토대로 위기 극복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현실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여기서의 교사의 역할은 다소 소극적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상상과 비판적 사고력은 교사의 개입이 강화될 때 제한되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음은 교사의 지도상의 편의를 위하여 학습활동의 각 항목별 선정 취지와 예시답안을 작성한 것이다.

내용학습 1. 아낙이 위기의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한 부분을 찾아 밑줄을 그어보자.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이 활동은 작품의 주제를 확인하면서 글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다. 교사는 주인공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냈는지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순간의 기지를 발휘하는 현실 대처 방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 것이 좋겠다.

【예시답안】

‘이에 몰래 현 솜에다 화로 속에 있던 돌맹이를 썬 다음 다시 던졌더니’ 이 부분이 아낙의 기지가 가장 잘 발휘된 부분이다.

내용학습 2. 위 글에 나타난 호랑이는 어떤 호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중학교 1학년때 배운 ‘설화 속의 호랑이’의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해보자.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이 활동은 기존에 배운 내용을 재점검 하면서 동시에 작품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다. 학생들은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설화 속의 호랑이’ 단원을 통해 설화 속에 투영된 다양한 호랑이의 의미를 배운 바 있다. 때문에 친근한 소재가 사용된 이 작품을 좀 더 쉽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기존에 배운 내용을 다시한번 재점검 해줌으로써 학생들의 기억의 강화를 돕도록 한다.

【예시답안】

‘포악한 호랑이’라고 할 수 있다. ‘설화 속의 호랑이’에 투영된 ‘포악한 호랑이’의 모습은 악을 물리치고 선이 이기기를 바라는 민간의식이 표현되었는데, 작품 속 아낙의 기지로 호랑이를 물리친 모습은 이러한 민간의식의 표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학습 3. 위의 밑줄 친 ㉠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을 무엇인지 말해보자.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이 활동은 작가의 논평에서 숨은 의도를 추출해 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 작품의 학습 목표를 알 수 있게 하는 활동이다. 교사는 작가가 한 인물을 입전한 의도와 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논평 부분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미리 주지시켜 논평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을 학생들 스스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한다.

【예시답안】

속담에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듯, 약자라 할지라도 위

기의 상황에서 기지와 용기를 발휘하면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고, 강자라 할지라도 자만심에 방심하면 큰 화를 당하게 된다.

내용학습 4. 이 글을 토대로 전(傳)과 설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해 보자.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이 활동은 다른 장르와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다. 전기 작품은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 야담, 설화, 소설과도 부인할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 작품의 경우 소재의 차원에서는 설화를 차용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설화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전기라는 장르는 생소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활동을 지도할 때에는 교사의 설명이 주가 되어야 한다. 이 활동을 심화활동으로 확장시켜 학생들이 직접 전기 작품에 대한 개념과 특징 등을 조사해 오도록 유도해도 좋을 듯 싶다.

【예시답안】

전은 주로 실제적인 인물을 다루고 있다는 점, 그리고 논평을 통해 작가의 가치관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이 특징적인 데 반해, 설화는 허구성이 강하고 흥미 위주로 내용이 전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둘 다 어느 정도의 교훈성을 내포하고 있고, 이야기의 소재가 신변잡기적이라는 점은 공통점이라 하겠다.

적용학습 1. 자신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던 경험에 대해 얘기해보자.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함께 얘기해 보자.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이 활동은 자신의 경험을 작품과 연관지어 표현하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위급했던 상황이 언제였는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 경우 교사가 먼저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하며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도 좋겠다. 교사는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수용하면서 더 나은 대처 방법은 없었는지 함께 의논하도록 한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과 그 대처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예시답안을 제시하지 않겠다.

적용학습 2. 다음은 순간적 가치를 발휘하여 위기를 극복해낸 현대의 경우이다. 이에 대한 논평을 직접 작성해보자.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이 활동은 고전 작품 속 상황을 현대의 상황과 접목시켜 봄으로써, 현대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위기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깨닫게 하는 활동이다. 마치 소설에서나 있을 법한 사건을 자신이 직접 맞닥뜨렸을 때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그 적절한 대처 방법이 예시된 글 속에 드러나 있다. 실제 일어난 상황에 대한 논평을 학생들이 직접 써 봄으로써 인물의 위기 대처 능력을 평가해 보고, 이러한 위기 대처 능력이 현실에서 왜 중요한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도록 한다. 이 때 교사는 학생들이 작성한 글을 발표하게 하여 다양한 위기 대처 방법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시답안】

아아! 이 여인의 지혜와 용기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자신에게 해가 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침착성을 잃지 않고 몰래 비상벨을 눌러 결국 강도를 잡히게 한 이 여인을 누가 감히 백 명의 장성들에 비유하겠느냐. 이러한 여인이야말로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 하겠다.

2) <각저소년전(角觥少年傳)> 교육 방안 예시

① 작품 제시 및 학생-학습 활동 예시

<각저소년전(角觥少年傳)>은 변종운(卞種運)(1790~1866)이 지은 것으로, 그의 문집 『소재시초(嘯齋詩抄)』에 전한다. <각저소년전>은 연약해 보이는 소년, 이 아무개가 씨름숨씨를 발휘하여 힘센 악승(惡僧)을 물리친다는 내용이다.⁴²⁾ 여기에 등장하는 중은 색에 미혹되어 남의 아내를 돈으로 매수하려는 인물이다. 즉 전형적인 악인인 것이다. 특히 남의 아내를 빼앗는데 필요한 삼백금을 채무자들에게 독촉하면서 공갈과 협박을 서슴지 않는 대목에서 그의 포악한 면모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각저소년은 겉으로 보기에 마치 옷과 신발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연약해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매우 지혜롭고 비범한 인물이다. 중이 씨름을 매우 좋아한다는 것을 간파하고 내기 시합을 제안하는 데서 그의 지혜로운 면모가 빛을 발할 뿐 아니라 결국 악승을 물리치는 데서 비범함 잠재력을 표출해내기 때문이다.⁴³⁾

42) 박희병은 <각저소년전>의 장르문제에 대해 “<각저소년전>은 서두의 인정기술과 후기의 전문경위에서 전적 요소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갈등구조, 인물 시각적 시점, 가치탐색, 장면묘사, 대화의 허구적 재현 등에서 소설적 면모가 두드러진 작품이다. 따라서 <각저소년전>은 전이 활발한 장르운동을 거쳐 소설로 이월되는 전계소설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박희병, 위의 논문, pp. 251~256)

본고 역시 <각저소년전>은 여타의 작품에 비해 소설적인 형상화가 두드러진 전계소설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전기의 개념에 전기소설과 전계소설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는바, 이 작품을 여향인물전의 교육자료로 제시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본다.

43) 정병호는 “작자 변종운은 지배층을 응징하는 데 있어 힘의 법칙으로 접근하고 있다. 악승의 부당한 처사를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지지 않고 내기 씨름으로 처리하는데서 이런 점을 알 수 있다. 악승의 죽음에 대해 통쾌하게 여기지 않은 백성이 없었다는 언표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지배층의 가렴주구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감내하기 힘든 고통이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악승의 죽음으로 서사를 마무리 짓고 있는 바 백성들의 의식이 일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9세기에 이르면 호민(豪民)의 지배층에 대한 공격은 빈번히 이루어졌다. 따라서 <각저소년전>에서 악승의 죽음은 당시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19세기 호민(豪民)은 지배층을 무너뜨릴만한 힘을 지닌 계층으로 성장해가고 있음을 각저소년을 통해 감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병호, 『17,18세기 여향인의 문학적 초상과 정래교의 전』, 동방한문학 제14회, 1998. p.162)

물론 선인(善人)이 악인을 지혜와 용기로 이겨낸다는 권선징악의 주제는 여타의 고전 소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제적인 측면보다는 소년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기지를 발휘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소년이 비록 씨름에 남다른 재주가 있었을지라도 중이 씨름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그 시합을 유도해내지 못했더라면 소년은 위기를 쉽게 극복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때문에 이 작품은 자신의 잠재된 능력은 무엇인지, 남의 약점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현실에 대응해 가는 ‘지피지기 전략’의 중요성을 시사해 준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선한 약자가 악한 강자를 물리치는 통쾌함을 맛볼 수 있다. 더구나 그 악인을 물리치는 수단으로써 일반 평민들의 놀이인 씨름을 사용했다는 점, 악인은 똥통에 던져진 채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점 등은 이 작품의 흥미를 한층 더해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학생들이 고전 전기 문학을 딱딱하고 지루한 것이 아닌, 친숙하고 흥미로운 교육 자료로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작품에 대한 내용과 학습활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작품 읽기>

씨름에서 이긴 소년

곽운이라는 자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유혈적 인물이었다.

(중략)

괴력을 지닌 이 중은 주민들에게 무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중은 씨름을 몹시 좋아했지만, 세상에는 그의 상대가 될 만한 사람이 없었다.

중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마침 한 소년이 소에 자기 처를 태우고는 객점으로 들어섰다. 그 소년은 마치 옷과 신발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섬약한 모습이었다. 소년의 처가 소에서 내려 방으로 들어갔는데, 중의 눈에 띈 그 처는 대단한 미인이었다.

이에 중은

“나는 산 속에서 늙어, 본 것이라고는 산꽃과 들풀 뿐이었는데 지금 그대의 아내가 내 영혼을 녹여버렸네. 내 아낌없이 삼백금을 그대에게 주리니 그대는 돌아가서 다시 저 나산(羅山) 아래에서 미인을 구하라.”

라며 일방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양도하더니 곧장 소년의 처가 들어간 방으로 들어
가려 했다.

이에 소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내 오늘이 처와 마지막 시간인 듯 싶으니 잠시 내게 이별할 시간을 주시오”

라며 중에게 부탁을 했다. 처의 방에 들어간 소년 큰 소리로 탄식하기를,

“매일밤 우리 부부가 방에서 씨름놀이를 했는데, 이제 다시는 할 수 없겠구나”

라고 했다. 이 말을 듣자 중은 소년에게 자기하고 한 번 씨름을 해 보자고 했다. 소
년은 씨름에 내기가 없으면 재미가 없으니, 내기 씨름을 하자고 제의했다.

중은 껄껄 웃으며,

“내기 씨름이라고? 좋소. 내가 당신을 이기면 당신은 아무것도 받지 말로 아내를 나
에게 주시오. 당신이 이기면 내 당신의 처를 돌려주리다.”

라고 하였다. 객점의 앞에 작은 언덕이 있었는데, 씨름장으로 삼을 만했다.

둘은 이 곳으로 올라갔다. 마을 사람들도 따라 올라갔다.

마침내 씨름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씨름이 시작되자마자 소년
은 신기에 가까운 씨름기술로 중을 근처의 똥통으로 날려버렸다. 그 똥통은 중이 헤
어나오기엔 너무 깊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 결국 중은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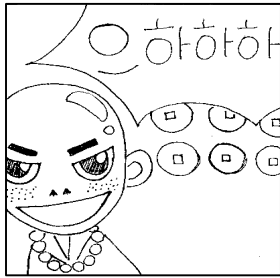
소년은 중이 소유하고 있던 마을 사람들의 빚 문서를 모두 태워 버린 다음, 다시 그
처를 소에 태우고는 조용히 마을을 떠났다. 그리고 이 일을 목도한 곽운은 집으로 돌
아온 이후 다시는 용력을 뽐내지 않고 양전한 사람이 되었다.

『소제시초(嘯齋詩抄)』 44)

<학습활동>

▷ 내용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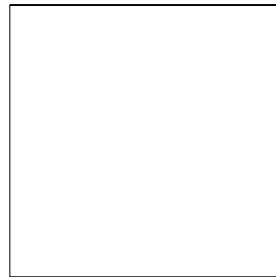
1. 이 글을 읽고 다음 빈 곳에 알맞은 그림이나 글을 순서대로 채워 넣어보자.



1. 한 중이 무력을 행사하
고 있었다.



2. _____



3. 강제로 자신의 처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소년
이 피를 내었다.

② 교수-학습 방안 예시

이 작품은 읽기 전 활동으로 작품의 소재와 주제에 관련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학습 동기의 활성화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씨름과 관련된 그림 자료를 제시하거나 민속씨름의 한 장면을 동영상 자료로 제시하는 것은 소재의 흥미를 높이는 방법이다. 또한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의 상황을 모면한 <토끼전>의 내용을 주제와 관련지어 제시하는 것 역시 읽기 전 활동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읽기 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등장 인물들이 겪게 될 사건들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읽으면서 등장 인물과 더욱 깊이 교감할 수 있게 된다.

읽기 중 활동으로는 학생들이 작품을 읽어 나가면서 등장인물인 곽운, 악승, 소년의 성격을 파악하고 사건의 전개 양상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소년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떠한 기지를 발휘하였는지, 그리고 현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소년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교사의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읽기 후 활동으로 제시된 학습활동은 위 작품을 통해 학생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그에 따른 전략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내용학습에서는 소년의 행위를 통해 학생들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이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당대 사회 현실의 불의를 학생들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지 생각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적용학습에서는 학생들 스스로가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현실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중점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선정 이유와 모범답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4) 본문 역주는 김미정, 「조선후기 자혜인물전 연구」, 경성대 석사논문, 2004를 참고함

내용학습 1. 이 글을 읽고 다음 빈 곳에 알맞은 그림이나 글을 순서대로 채워 넣어보자.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이 활동은 그림의 내용이나 글의 줄거리를 바탕으로 사건의 구성 단계를 점검해 보는 활동이다. 학생들은 그림을 보고 그에 해당하는 사건 구성 단계를 써보거나, 글을 보고 그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려보며 작품에 흥미를 느낄 것이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각각의 사건들이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열된 것이 아니라 서로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지시키고, 구성단계에 따라 갈등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이해시켜야 한다.

【예시답안】

2. 종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한 소년이 아름다운 처를 소에 태우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처를 빼앗으려 한다.
5. 소년은 신기에 가까운 씨름기술로 중을 뚱뚱으로 날려버렸고, 그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중은 결국 죽고 말았다.

내용학습 2. 소년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무엇이었나?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이 활동은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활동이다. 위기의 상황에서 주인공은 어떠한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해 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기본 내용의 이해 및 사건의 해결 양상을 이해하도록 한다.

【예시답안】

소년은 먼저 상대방이 씨름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우리 부부가 더 이상 씨름을 할 수 없구려...'라는 말로 중과의 씨름대결을 유도해 내었다. 이는 위

기의 상황에서 순간의 기지를 발휘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자신의 씨름기술을 이용하여 중을 무너뜨리는데 성공했다. 결국 소년은 순간의 기지와 용기, 그리고 씨름기술로 위기를 극복해 낸 것이다.

**내용학습 3. 다음은 악승과 소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대립 척도표이다.
빈 칸에 적절하게 들어갈 인물의 성격을 쓰고 그 이유를 제시해보자.**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이 활동은 학생들에게 등장 인물의 다양한 측면에 관해 질문함으로써, 작품의 인물 분석을 돕기 위한 활동이다. 이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가 보인 반응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대립 척도표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판단의 근거를 대기 위하여 등장 인물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을 분석하고 종합하게 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를 촉진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예시답안】

악승은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사람이다. 왜냐하면 남의 아내를 힘과 재물로 마음대로 빼앗으려 하기 때문이다.

소년은 지혜롭고 비범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기지와 용기를 발휘하여 상대를 적극적으로 물리치기 때문이다.

**내용학습 4. 위의 글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찾아 밑줄 그어 보자.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말해보자.**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이 활동은 학생들이 작품을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이다. 같은 작품일지라도 학생 개개인마다 수용하는 양상이 다르므로 학생들은 자신이 인상 깊었던 장면을 중심으로 작품을 기억하게 된다. 이러한 수용 양상을 직접

표현하게 하는 것은 학생들의 감상 능력과 수용 정도를 확인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인상 깊게 느낀 부분을 직접 얘기하게 하면서 그들의 작품 수용 양상을 재점검 해주어야 한다.

【예시답안】

‘똥통이 깊었으므로 중은 그 속에서 헤어날 수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다’ 부분에서 약한 소년이 힘센 중을 무너뜨리는 통쾌함을 맛볼 수 있고, 중이 빠져 죽은 곳이 다름아닌 똥통이라는 점에서 해학성을 느낄 수 있다.

‘소년은 중이 소유하고 있던 마을 사람들의 빗 문서를 모두 태워 버린 다음, 다시 그 처를 소에 태우고는 조용히 마을을 떠났다’ 부분은 소년이 중을 이기고 나서 그냥 자리를 뜬 것이 아니라 자신과 상관없는 마을 사람들의 문제까지도 해결해주고 떠났으므로 소년의 사려깊은 마음씨를 알 수 있어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이다.

적용학습 1. 내가 만약 소년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라면 어떻게 위기를 해결했는지 발표해보자.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이 활동은 문제 해결 과정(문제 인식, 문제 이해, 해결 계획 수립, 해결 시행, 평가)과 구체적인 해결 전략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이다. 작품 속 인물과 같은 상황에 자신이 처했을 경우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해나갈 수 있을지, 그 문제 해결 결과 뿐만 아니라 해결 과정과 그 방법도 중시해야 한다. 그리고 ‘표현하기’ 활동이 이러한 문제해결 과정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교사는 숙지해야 한다. 머릿속에서 구성된 의미를 말로써 표현해 내는 과정은 문제 해결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동을 해 봄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을 작품 속 인물과 동일시하여 문제

를 해결해 나가는 데 적극성을 발휘할 것이다. 학생들의 문제 해결 결과가 비록 논리적이거나 현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했을 경우 이를 칭찬해주어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시답안】

학생 1 : 제가 만약 이 소년이었던라면 전 그길로 관가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했을 겁니다. 아무리 중의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거 아닙니까.

학생 2 : 저는 일단 그 중을 안심시킨 후, 하루만 여유를 달라고 사정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밤에 몰래 아내와 즐행량을 쳐버리겠습니다.

적용학습 2.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남이 강제로 빼앗으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각 모듈별로 상황을 가정하여 가장 바람직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토의해보자.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독서 지도에서 가장 권장해야 할 활동 중의 하나가 바로 토의 활동이다.

언어는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고립된 상태에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상호 작용 속에서 그 의미가 획득된다. 따라서 독자가 글의 의미를 좀 더 풍부하게 터득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토의 활동이 필요하다. 토의는 타인과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개개인의 제한된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관점이 적극적으로 상호 작용하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비판적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모듈별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적합한 대처 방안을 찾는 토의를 통해 학생들은 폭넓은 사고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토의 활동에 있어 교사의 역할은 부수적이 되어야 한다. 간단한 토의절차, 토의과정상의 유의점 등만을 설명해 준 뒤 개방적인 토의 분위기를 유도하여 학생

들의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가정된 상황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유보하는 편이 좋겠다. 토의활동이 끝난 뒤에는 각 모듈별로 선정한 최선의 방안을 발표하게 한 뒤 이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활동이 뒤따라야 한다. 이때는 교사의 적극적인 주도로 토의 결과를 학생들이 피드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시답안】

<가정상황> 힘센 친구가 강제로 물건이나 돈을 요구할 때

학생 1. 난 곧장 선생님께 가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내 힘으로 도저히 그 친구를 이길 수 없다면 선생님께 얘기를 해서라도 먼저 상황을 모면해야 하잖아.

학생 2. 선생님께 얘기하는 것은 그저 그 순간만 모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잖아. 다음에 또 그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럴때마다 계속해서 선생님께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학생 3. 일단 나 혼자만의 힘으로 그 애를 이길 수 없다면 친구들과 힘을 합쳐 그 애의 부당함을 직접 얘기해 주는 건 어떨까? 아니면 학생부 건의함에 부당함을 건의하는 것도 괜찮고.

학생 2. 그래. 먼저 돈을 요구하는 친구한테 당당하고 논리적으로 그 부당함을 얘기하다가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학생부에 건의를 하는 게 괜찮겠어. 이런 일은 일회적인 상황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학생부에서 직접 나서서 그런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할 거 같아.

이상 <보호처전>과 <각저소년전>에 대한 교육방안을 살펴보았다. 이 두 작품은 위기의 상황을 순간의 지혜와 용기로써 극복해 낸 인물들을 입전한 작품이었다. 이러한 자료들을 학교교육에서 활용한다면 현대 사회의 다양한 인간관계와 패러다임 속에서 학생들 스스로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현실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리라 본다.

2. 전문적 직능을 발휘한 인물 - 자아실현과 직업의식의 문제

인간은 늘 자신의 이상을 가지고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이는 인간이 자아실현을 목표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은 이러한 개인의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삶의 한 방식이다. 다시말해 직업이란 자아실현의 장(場)인 것이다. 물론 직업은 자아실현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생계 유지 수단이면서 사회적 지위 획득의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단순히 생계 유지만을 위해, 또는 사회적 지위 획득만을 위해 직업을 선택한다면 사람들은 곧 그 직업에 회의를 느끼고 이직을 생각하게 된다.⁴⁵⁾ 결국 직업은 개인이 만족감과 성취감, 보람 등을 느낄 때 진정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만족감과 성취감, 보람 등의 획득은 자아의 실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직업과 자아실현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청소년기는 개인의 일생에 있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삶의 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자의식과 직업의식이 발달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

45) 인터넷 여론조사업체인 폴레버(www.pollever.com)가 최근 네티즌 6,246명을 대상으로 '다시 태어나도 현재의 직업을 갖고 싶은가'를 조사한 결과 53.51%가 "선택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다시 선택하겠다"는 응답자는 18%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른 직업을 갖고 싶은 이유로는 '자아실현을 위해'가 39%로 가장 많았고, '보다 많은 급여를 위해'가 21%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경제신문, 2005년 4월 17일자)

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적성검사나 직업의식 함양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된 능력을 찾아주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이러한 검사나 프로그램의 활용은 그 결과만을 토대로 단편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데서 그칠 뿐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보다는 바람직한 직업의식과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의 사례 등을 볼 수 있는 모범적인 자료들을 제시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직업의 내재적 가치나 바람직한 직업관을 내면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여기서는 자아실현과 직업의식의 문제를 학생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접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여항인물전의 작품을 모범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여항인물전 속에는 조선후기 다양한 직업의 양상, 예를 들어 가객, 약사, 화가, 의원, 아전, 역관 등등 무수히 많은 직업인이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술가를 비롯해 의원, 과학자 등 전문성을 지닌 인물들은 자의식과 직업의식이 강하게 표출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들은 자신의 직업을 천직으로 삼고 물질적 보수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철저한 장인정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시대의 대부분의 직업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귀속적 요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계발하여 이를 후에 자신의 직업으로 삼아 명성을 드높인다. 이들은 입전한 작품들에는 이러한 자기계발의 위한 노력과 직업에 대한 자부심 등이 잘 드러나 있어 자아실현의 양상을 뚜렷이 볼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물론 조선시대의 직업의 종류는 현대와는 많이 다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닌, 그 직업을 통해 사람들이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자신의 사소한 능력을 직업으로 삼기까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렇기에 자아실현을 일구어낸 인물들의 모습을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접하게 된다면 그들의 진로탐색과 직업의식 함양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지금부터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여항인물전의 작품들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제시하도록 하겠다.

<가자송실솔전(歌者宋蟋蟀傳)> 역시 이옥의 작품으로 『담정총서』 내의 「문무자문초(文無子文鈔)」에 실려있다. 이 작품은 천민 출신의 가객이지만 자신의 타고난 음악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천민에게 부여된 운명을 변화시킨 인물 송실솔을 입전하였다. 주인공 실솔은 득음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 폭포수 아래에서 피나는 연습을 한 결과 폭포수가 잠겨버리는 대단한 득음의 경지에까지 오르게 된다. 결국 그는 서평군과 같은 경제적 후원자를 만나 사회적 명성을 드높이게 된다. 이 작품의 경우 개인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당대 천시되었던 가객의 지위를 한층 상승시킨 인물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실솔의 삶의 과정은 신분적 제약을 뛰어넘어 예술적 능력을 통해 자아를 적극적으로 실현시킨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기에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백광현전(白光玄傳)>은 정래교의 『완암집(浣巖集)』에 실려 있는 작품으로, 원래 말(馬)의 병을 잘 고치던 사람이 사람의 병도 잘 치료하여 명성을 날려 어의까지 이르게 된 사실을 그리고 있다. <백광현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정병호(46)는 “백광현이 여항 의관으로서 독창적인 종창치료법에 일가를 이루게 된 수련과정과 투철한 직업의식을 드러내는 데 서술의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의 특출난 능력은 타고난 것이라기보다 후천적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작품 속에서 주인공 광현은 초기에는 침을 잘못 사용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에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결국 어의에까지 오르게 된

46) 정병호, 위의 논문, p.159

다. 어의가 된 후에도 광현의 노력은 계속되는데, 이는 신분에 상관없이 자신의 의술이 필요한 곳이면 서슴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자신의 재능을 직업으로 삼아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학생들은 진정한 직업의식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임준원전(林俊元傳)> 역시 『완암집』에 실려있는 정래교의 작품으로, 입전 대상인 준원은 불우한 문사들과 어울려 세상을 비판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의 예술세계를 형성한 인물이다. 그리하여 그는 시작(詩作)의 능력으로 사대부 계층보다 정신적 우위에 서서 결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이 역시 예술적 능력으로 자신의 자아를 실현시킨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이 밖에 태조의 어진(御眞)을 그린 대가로 등산첨사(登山僉事)까지 제수된 바 있는 화가 <이재관전(李在寬傳)>, 사대부들로부터 총애를 받은 거문고의 명인 <김영면전(金永冕傳)>⁴⁷⁾, 김홍도와 백중(伯仲)이라고 임금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화가 <김득신전(金得臣傳)>⁴⁸⁾ 등도 자신들의 재능을 통해 환경적 제약을 뛰어넘어 임금이나 사대부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물을 입전한 작품이다. 이들 모두 자신의 재능을 직업으로 삼은 인물들로, 직업에 대한 투철한 자기인식이 작품 속에 잘 드러나 있다.

<이안민전>과 <침은조생광일전> 역시 직업을 통해 자아실현을 일궈낸 인물들을 입전한 작품으로, 다음에서는 이 두 작품의 교육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47) <이재관전>, <김영면전> 은 모두 조희룡의 『호산외기』에 실려있음

48) 유재건의 『이향건문록』에 실려있음

1) <이안민전(李安民傳)> 교육 방안 예시

① 작품 제시 및 학생-학습 활동 예시

<이안민전(李安民傳)>은 담정 김려의 『담정유고(澹庭遺藁)』 권9 「단량패사(丹良稗史)」에 실려있다. <이안민전>은 승상의 아들이면서도 어머니가 미친한 신분 이기에 신분적 제약을 지닌 인물 이민철을 입전한 작품이다. 조선시대 작품들 중 기존의 기술천시 풍조에서 벗어나 과학기기의 제작에 힘을 쏟은 과학자를 입전한 것은 보기 드문 경우이다. 당시 유학자들은 과학기기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긴 했지만 그것을 만드는 사람과 기술을 천시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종·숙종조에 고제(古制)를 복구하여 여러 과학기기를 만든 공로로 벼슬까지 제수받고,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은 이민철의 업적은 높이 평가될만 하다. 또한 이 작품은 재주가 있어도 신분적 제약 때문에 그 재능을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간 인재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당시 서얼차대의 사회상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민철은 타고난 재능을 적극적으로 계발시키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아버지께서 선물받은 자명종을 분석한 뒤 재조립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비슷한 기기를 만들어내고야 만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생각과 호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적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적극성은 결국 자신의 재능을 직업으로 삼는 데에 밑바탕이 된다.

이민철의 직업의식과 자아실현 양상 또한 작품 속에 잘 드러나 있다. '나는 단지 나라에서 역상의 정치를 펴려는 데에 재주를 다한 것 뿐'이라는 그의 말은 진정한 장인정신과 직업의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 나이가 많아 기력이 쇠했을 지라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민철의 이러한 태도는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때문에 글의 내용이 다소 어렵더라도 이 작품을 교육자료로 활용한다면 학생들은 이를 통해 바람직한 직업관을 내면화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 작품을 교육자료로 활용할 때에는 다른 작품과 연관지어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당대 사회에서 과학이 왜 중요한지를 학습하기 위해 조선초기의 과학자인 장영실과 연관지어 살펴보거나, 서얼차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중 1 국어 교과서에 실린 <홍길동전>과 연관지어 학습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 텍스트의 활용은 배경지식의 활성화와 사고력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지향해야 할 교수전략이다.⁴⁹⁾ 본고에서 제시하는 학습활동 역시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음은 학생들을 위한 ‘작품읽기’ 학습지와 이에 따른 학습활동을 제시해 둔 것이다.

<작품읽기>

제 2의 장영실, 과학자 이민철

이민철은 승상 문정공 경의 아들로 자는 안민 혹은 영중이다. 민철의 어머니는 미천한 신분이었다. 그는 어려서 기발한 생각을 지닌 똑똑한 아이였다.

어떤 사람이 문정공에게 자명종을 헌사했는데 문정공은 그것을 늘 책상 위에 두었다. 9세 되던 해 민철은 조용한 때를 틈타 자명종에 박혀 있는 못을 뽑고서 그것의 움직임을 관찰하고는 다시 조립을 했다. 대나무로 못을 만들고 기름을 넣어 그 법제에 따라 자명종을 움직이게 했는데 조금도 차이가 없었다.

민철은 조용한 것을 즐겨 속인과 사귀기를 기뻐하지 않았다. 문정공이 옥주로 가자 민철은 그를 따라갔다. 민철은 장애다 물길을 새겨 그 길에는 각각 칸막이를 만들고 그 칸막이에는 분촌(分寸)을 두었다. 물이 우회하여 기구 가운데로 떨어지도록 하여 시

49) 문학기해의 한 방식으로서 텍스트 상호간의 의미연관을 살피고, 해석하고, 탐구하는 일은 문학교육의 중요한 내용구성 전략인 동시에 문학교육 방법상의 요체가 되는 것이다. 텍스트 상호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문학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문학 교육의 방법을 확충해 나가는 것은 문학 수용자인 학생들로 하여금 문학 경험을 통해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자신들의 세계를 해석하고 비평하고 설계해 보게 하는 경지로 안내한다. 단일 텍스트 자체를 형식주의적으로만 파고드는 것은 그야말로 ‘문학을 위한 문학’으로 함몰하게 할 위험을 가진다. 이런 점에서 본 때 텍스트 상호성을 부단히 살피도록 문학교육의 내용을 구성해 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최현섭 외, 위의 책, p.449)

간을分別케 하였다. 아울러 죽동을 구하여 누기를 만들고 기관을 설치하여 물을 이용해 그것을 부딪치게 했다. 목인을 만들어 12인이 각기 한 개씩의 동패를 가지게 하여 매 시간마다 종을 치게 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들어오게 했다. 의주윤 정륜이 그것을 듣고 옥주에 있는 것과 견주어서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 줄 것을 청했다.

처음에 흥경각은 경복궁 안에 있었는데 그 궁궐이 불탔을 때 광해주는 찬성 이중동에게 창경궁의 양쪽에 대략각을 세우고 그 가운데는 산을, 산 위에는 해와 달을, 그리고 산 사이엔 천녀·신녀의 무리들을, 산 아래에는 밭 같고 씨 뿌리며 김 매고 거두어 들이는 기구를 설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아침이면 해가 동쪽에서 더 오르고 서쪽으로 지게 하였으며 봄에 김 매고 가을에 거두어 들이게 하였다. 그 기계는 아래에 있었는데 물의 흐름을 이용해 움직이도록 만들었다.

오래도록 황폐한 땅 만수전 터에 들어서면 보누각은 아직도 동편에 남아있는데 그 기물들이 흩어져 다시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현종 기유년에 문정공 송준길이 고제를 원상대로 복구할 수 있도록 관상감에 해당 기관을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민철로 하여금 대례안수통과 그 안에 영도기관을 제작하도록 그 역할을 맡겼다.

궐 남쪽에 각기 둥근 테가 있었다. 종이를 이용해 산과 바다를 그리고 평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물통으로부터 가운데까지 이어서 기관을 설치하고 남북 두 축의 중앙을 연결시켜 그 힘으로 하늘 주위를 맴돌게 하였는데 해와 달에는 각기 지속의 정도가 있었다. 궐 서쪽에는 한 개의 탑을 만들어 가운데 목인을 두고 그 사람들 옆에는 종이 있고 종 위에는 패가 있어 매 시간마다 목인이 패를 가지고 종을 치는데 앞에 것이 들어가면 뒤에 것이 나오게 되어 있었다. 궐 위에는 수기가 있어 물이 조금씩 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안팎의 기관들의 움직임은 모두 물의 힘을 이용한 것이다. 이것을 만들어 놓자 현종은 이를 칭찬하여 민철에게 벼슬을 제수하였다.

숙종 무진년에 민철은 영원수의 부름을 받아 다시 그것의 제작을 맡아 회정당 남쪽에 제정각을 설치하였다. 그는 이때 매우 늙어서 탄식하여 이르기를,

“나라에서 옛 보누각을 따라 그 안에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같은 역상의 정치를 펴려 하기에 나는 그 일에 나의 재주를 다하였을 따름이오.” 하였다.

(중략)

『담정유고(澗庭遺藁)』 권9 「단량패사(丹良稗史)」 50

< 학습활동 >

▷ 내용학습

1. 이민철이 자신의 신분적 제약을 극복한 방법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2. 다음은 자격투와 혼천의의 그림이다. 위 글에서 각각의 기구에 해당하는 제작원리가 나타난 부분을 찾아보고, 이 기구들의 필요성도 함께 적어보자.



<자격루>

<제작원리>

<필요성>



<혼천의>

<제작원리>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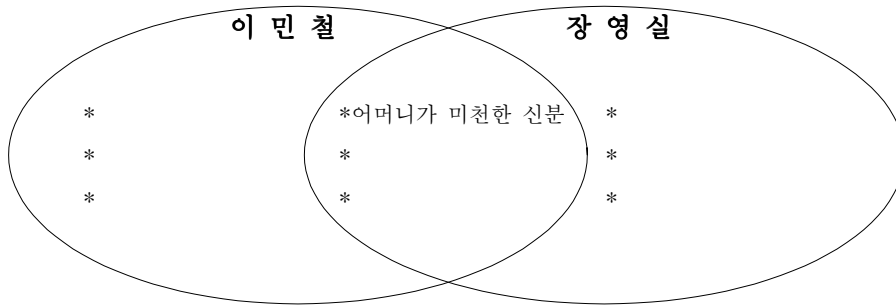
3. 다음은 조선시대의 과학자 장영실의 일생이다. 이를 참고하여 이민철의 일생과 비교하여 벤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해보자.

장영실(將英實)은 조선조의 과학자로서 본관은 아산(牙山)이다. 기생의 소생으로 태어난 장영실은 경상도 동래현의 관노 출신이라고 전해지는데 그 때문인지 정확한 출생일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사물에의 관찰력 또한 뛰어났으며, 기계의 원리 파악에 남다른 재주가 있었고, 기계 등을 만들고 고치는 일에 능통했으며, 무기나 농기구를 제작하고 수리하는 등 금속을 다루는 일에 능숙했다고 한다.

장영실은 비록 관노 출신이었으나 그는 탁월한 재능을 어려서부터 발휘하여 주위로부터 인정받았고, 한양의 조정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어 세종의 부왕(父王)인 태종(太宗) 때 발탁되어 궁중에서 일하게 되었다. 장영실이 관직에 오르게 된 것은 태종 때가 아닌 세종 때였다. 세

좋은 제련 및 축성, 무기, 농기구의 수리에 뛰어난 장영실을 가까이 두어 자신이 반드시 이루고자 했던 사업 중의 하나인 천문기기 제작사업을 비롯한 과학진흥사업에 참여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엄격한 신분제가 행해지던 당시에 노비출신인 자를 궁중에 두어 관리로 중용케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기에 모든 문무(文武) 대신들의 반대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세종은 장영실과 같은 뛰어난 재능의 소유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대신들을 설득하여 결국 장영실을 채용하였다.

이리하여 동래현의 관노가 엄격한 신분제의 벽을 넘어 상의원 별좌[5品]가 된 것이다. '상의원 별좌'라는 것은 임금의 의복을 만들고 대궐안의 재물과 보물의 관리를 맡아 관리하던 관서로써 태조(太祖) 때 세워진 것이다.



1. 이민철은 당시 신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학적 재능을 발휘하여 널리 인정을 받았다.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재능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이를 직업으로 삼는다면 어떤 직업이 적당한지 발표해보자.

2. 다음은 현대의 한 직능인의 모습을 담은 기사이다. 이 글에 드러난 인물의 직업의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느낀 점을 자유롭게 얘기해보자.

국내 최고의 기술사로 우뚝 선 한 공학도

경북 영주에서 태어난 이찬욱씨는 영주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구 영진전문대학으로 진학했다. 그는 일찍부터 기계와 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어 고등학교 3학년 때인 1984년 당시 에너지 분야의 유일한 자격인 열관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대학 재학시절인 85년에는 기계제도기능사, 86년에는 건설기계산업기사 자격증을 차례로 취득했다. 구미 열병합 발전소에 입사한 뒤에도 바쁜 직장생활 틈틈이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아 1993년 열관리기사, 일반 기계기사를 취득하였고, 2002년에는

열관리기능장과 산업현장의 기술지도능력을 인정하는 기계기술지도사 자격도 갖췄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내 플랜트 및 장치산업이 신규 시설을 설치하기보다 기존 설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하자 이에 대한 선진기술인 미국 노리아(Noria)사의 선정보전업무를 도입하여 앞장서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작년에는 이 분야의 국제인증기관인 국제유휴협회에서 1급 기계 유휴 분석사 인증을 받아 전문가로서의 발판을 다졌다. 이 기술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새벽 6시에 일어나 1시간 30분 정도 책을 보고 나서 출근하는 것을 4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에 옮겼다.

그는 "요즘처럼 열병합 발전소에 근무하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진 적이 없다"고 한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의 고공행진 때문에 어려워하는 구미공단 입주기업체에 자신이 몸담고 있는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저렴하고 양질의 에너지(증기)를 공급하여 수출경쟁력 강화와 원가절감에 기여하고, 환경보전이라는 대의에도 부합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 때문이다.

"365일 무정지 운전을 통하여 중단 없는 원활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이고 꿈"이라며 소박한 포부를 밝히는 그는 "퇴근이 늦어질 때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웃음짓는 인간미 넘치는 사람이기도 하다.

보통 사람은 한 가지도 갖기 힘든 자격증을 8개나 보유하고 엔지니어로서 최고의 자리인 기술사 자격까지 취득한 이찬욱씨. "주식투자 격언에 밀짚모자는 겨울에 사란 말이 있듯이 엔지니어는 변화무쌍한 신지식과 신기술을 배우고 터득하는 데 노력을 게을리 말아야 한다"며 자기계발을 강조하는 그의 표정에는 최고 엔지니어로서의 자부심과 자신감 넘치는 인간승리의 냄새가 물씬 풍겨난다.

(오마이뉴스, 2004년 9월 4일)

② 교수-학습 방안 예시

이 작품의 읽기 전 활동으로는 소재와 관련된 '의미지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의미지도는 범주화된 정보를 도식화시켜 보는 것으로,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작품 속 소재와 내용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과학'이라는

50) 본문 역주는 정병호, 「김려의 전 연구」, 경북대 석사논문, 1989를 참고함

단어나 '직업'이라는 단어에서 떠오르는 다양한 의미들을 그물망을 이용하여 범주화 시킨다. '과학'은 이 작품의 소재의 측면에서, '직업'은 주제의 측면에서 연관성이 있으므로 작품의 내용을 미리 예측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지도는 스키마 이론에 의해 뒷받침 되는 읽기 전 활동의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간단한 의미지도 활동이 끝나면 교사는 읽기 중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단어의 의미 파악에만 초점을 두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본문의 내용 중 대부분이 학생들에게 낯선 기기의 제작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학생들이 중심내용을 파악하거나 문제의식을 생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때문에 이 작품의 읽기 전략으로는 하향식 읽기 전략⁵¹⁾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교사는 학생들이 단어의 뜻 하나하나를 모두 숙지하는 것 보다는 내용 전체의 의미 구성 및 자신의 읽기 능력을 점검해 나가는 능동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도록 한다.

읽기 중 활동에서 학생들이 작품의 중심내용을 파악하고 작품에 대한 문제의식이 형성되면, 궁극적인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을 수행해 나간다. 이 작품의 학습목표는 인물의 직업의식과 자아실현의 양상을 알고 자신의 진로는 모색해 보는 것으로, 학습활동 역시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하였다.

내용학습에서는 먼저 이민철의 일생과 업적을 살펴보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적용학습에서는 학생들의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자신

51) 하향식 읽기 전략은 글 자체보다는 글에 대한 독자의 적극적인 가정이나 추측을 토대로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는 태도를 취한다. 이는 상향식 모형과는 달리 독자가 가정하거나 추측한 의미를 토대로 글을 읽어가면서 검증(top-down)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의미의 원천은 글이 아니라 독자가 된다. 따라서 독자의 배경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 글 내용에 대한 독자의 배경지식이 많을수록 글에 대한 이해가 쉽다고 본다. 이것은 합리주의적이고 연역적인 성격의 모형으로, 독자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을 이끌어내는 독자지향적 읽기라고 할 수 있다. (최현섭 외, 위의 책, p.311)

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학습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취지 및 교수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학습 1. 이민철이 자신의 신분적 제약을 극복한 방법은 무엇인지 말해보자.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이 활동은 작품의 기본 내용 파악 및 인물에 대한 인식의 강화를 위해 선정하였다. 주인공이 자신의 신분적 제약을 극복한 방법이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주지시켜 작품 속 인물에 대해 학생들이 거리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는 사소한 재능을 발전시키면 작품 속 주인공처럼 그것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음을 언급해주어,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예시답안】

이민철은 어머니가 미천한 신분이었기에 자신 역시 신분적 제약을 지니고 있었던 인물이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과학기기에 호기심이 많았던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여러 중요한 과학기구를 만듦으로써 결국 신분적 제약을 극복해 내었다.

내용학습 2. 다음은 자격루와 혼천의의 그림이다. 위 글에서 각각의 기구에 해당하는 제작원리가 나타난 부분을 찾아보고, 이 기구들의 필요성도 함께 적어보자.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이 활동을 지도할 때에는 교사가 먼저 자격루와 혼천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위 작품에 나타난 자격루, 혼천의에 대한 설명이 현대의 그것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교사는 과거 과학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

러한 과학기구를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을 정리해 줌으로써 과거와 현대의 과학기술에 차이가 있음을 알게 한다. 또한 위 작품에 나타나는 과학 기구의 용어가 학생들에게 생소하고, 제작 원리 또한 다르므로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학생들이 과학기구의 필요성을 당대 사회상과 연관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시답안】

물시계 제작원리

- 장에다 물길을 새겨 그 길에는 각각 칸막이를 만들고 그 칸막이에는 분촌(分寸)을 두었다. 물이 우회하여 기구 가운데로 떨어지도록 하여 시간을 분별케 하였다. 아울러 죽동을 구하여 누기를 만들고 기관을 설치하여 물을 이용해 그것을 부딪치게 했다. 목인을 만들어 12인이 각기 한 개씩의 동패를 가지게 하여 매 시간마다 종을 치게 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들어오게 했다.

혼천의 제작원리

- 궤 남쪽에 각기 둥근 테가 있었다. 종이를 이용해 산과 바다를 그리고 평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물통으로부터 가운데까지 이어서 기관을 설치하고 남북 두 축의 중앙을 연결시켜 그 힘으로 하늘 주위를 맴돌게 하였는데 해와 달에는 각기 지속의 정도가 있었다. 궤 서쪽에는 한 개의 탑을 만들어 가운데 목인을 두고 그 사람들 옆에는 종이 있고 종 위에는 패가 있어 매 시간마다 목인이 패를 가지고 종을 치는데 앞에 것이 들어가면 뒤에 것이 나오게 되어 있었다.

자격루와 혼천의의 필요성

- 둘 다 농업의 발전과 깊은 연관이 있는 과학기기들이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시간과 계절, 그리고 기상의 변화와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농경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과학기기들이 절

실하게 필요하다.

내용학습 3. 다음은 조선시대의 과학자 장영실의 일생이다. 이를 참고하여 이민철의 일생과 비교하여 벤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해보자.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이 활동은 두 명의 인물의 일생을 비교·대조함으로써 작품 속 인물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여기서는 벤다이어그램을 활용하였는데, 벤다이어그램은 시각적으로 인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활동은 학생들이 혼자서 벤다이어그램 속에 내용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교사가 칠판에 큰 원을 그려 그 속에 한 두가지 내용을 적는 다음, 나머지 부분을 학생들이 직접 칠판 앞으로 나와서 채우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의 변형으로는, 학생들로 하여금 작품 속의 인물과 자기 자신을 비교·대조하는 벤다이어그램을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예시답안】

두 사람의 공통점으로는 ‘신분의 변화가 생김’, ‘과학자로서 명성을 날림’ 등이 있다. 차이점으로는 이민철은 양반의 서얼 출신이면서 물의 힘을 이용한 과학기구를 많이 만들었지만, 장영실은 관노 출신이면서 과학기구 뿐 아니라 축성, 무기, 농기구 등을 만드는 데에도 일조했다.

적용학습 1. 이민철은 당시 신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학적 재능을 발휘하여 널리 인정을 받았다.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재능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이를 직업으로 삼는다면 어떤 직업이 적당한지 발표해보자.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이 활동은 작품 속 가치를 자신의 삶과 연관지어 내면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 작품을 학습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재점검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가치의 발견은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그러므로 남과 다른 자신만의 재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고, 특별한 재능이 아닐지라도 남과 다른 사소한 점 하나에서 긍정적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교사는 이를 직업과 연관 짓는다면 어떤 직업이 적합한지 생각해 보게 하면서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예시답안】

학생 1. 저는 만화를 그리는 데에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의 재능을 발전시켜 유명한 애니메이터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학생 2. 저는 하늘의 별에 관심이 많습니다. 계절에 따라 다른 별자리나 유성을 관찰하는 것을 무척 좋아할 뿐 아니라 별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많은 과학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취미를 살려 후에 천문학자가 되어 아직까지 관측되지 않은 별을 찾아 그 별에 제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학생 3. 저는 강아지 뿐 아니라 작고 귀여운 모든 동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물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주변 친구들의 강아지들이 아플 때 제가 가서 간단한 치료를 해 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 재능을 살려 저는 나중에 수의사가 될 것입니다.

적용학습 2. 다음은 현대의 한 직능인의 모습을 담은 기사이다. 이 글에 드러난 인물의 직업의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느낀 점을 자유롭게 얘기해보자.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이 활동은 작품 속 가치를 현대의 사례와 접목시켜 봄으로써, 참다운 직능인의 자세와 태도를 내면화하기 위한 활동이다. 교사는 작품 속 내용이 현대와 단절된 과거의 얘기가 아닌, 현대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얘기임을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 학생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들은 좀 더 작품에 공감하고, 작품 속에서 교육적인 가치를 찾으려 애쓸 것이다.

이와 같은 물음은 특정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예시답안을 제시하지는 않겠다.

2) <침은조생광일전(鍼隱趙生光一傳)> 교육방안 예시

① 작품 제시 및 학생-학습 활동 예시

<침은조생광일전(鍼隱趙生光一傳)>은 홍양호(洪良浩)(1724~1802)가 지은 작품으로 그의 문집 『이계집(耳溪集)』 권18에 전한다. <침은조생광일전>은 주인공 조광일이 침술에 능하여 의술이 높으면서도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곤궁하고 세력 없는 사람들을 우선시 하며, 아무 보답없이 자신의 재능으로 진정한 인술(仁術)을 베푼다는 내용이다.

조광일은 몰락한 유랑지식인으로 자신의 능력을 의술에 맡겨 여항의 의원으로 숨어 지내는 인물이다. 뛰어난 의술로 충분히 부귀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명의 목숨을 살리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욕심도 부리지 않는다. 그가 이러한 생각을 지니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작품 속에서도 드러나듯 '세상의 의원들이 그 의술을 끼고 남들에게 빠기는 것이 싫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명성 높은 의원들이 사대부와의 친분 속에 의원 본연의 자세를 잃고 타락해 가는 모습이 싫었던 것이다. 의원이란 자고로 남의 병을 고쳐주고 목숨을 구해주는 것을 소명으로 삼는 직업이다. 그렇기에 조광일은 이러한 의원 본연의 자세를 지키면서 한평생 의술로 남의 목숨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단지 '만명의 목숨을 살리는 것'을 자신의 인생 목표로 삼아 그것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직업인의 모습과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이 작품을 교육적 자료로 활용한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재능이 다른 사람에게 또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조광일과 같은 인간상을 토대로 자신의 인생관과 직업관을 정립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이 작품의 학습활동 역시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 양상과 참다운 직업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의 학습지를 통해 작품의 내용과 이에 따른 학습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작품읽기>

침술의 대가, 의원 조광일

조광일은 조상이 태안의 대성이었는데, 집에 가난하여 합호(충남 연기군 합장리의 금강 유역인 듯함) 서쪽 물가에 옮겨 살았다. 별다른 재주는 없고 침을 잘 놓는 곳으로 이름이 나서 자호하기를 '침은(鍼隱)'이라 하였다.

내(이 글의 저자인 洪良浩)일찍이 조생의 집을 방문한 바 있었는데, 한 노파가 기어와서 그 집의 문을 두드리며 말하였다.

"아들이 병이 나서 거의 죽게 되었으니, 제발 그 애 목숨을 살려 주시오."

①조생은 즉시 "그러겠소"라 응하고 일어서서 다른 아무런 주저 없이 걸어가면서도

어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를 길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마침 비가 내려서 길바닥이 질퍽였다. 머리엔 샷갓을 쓰고 발엔 나막신을 걸친 채 달리고 있었다. 그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더니,

“아무 동네에 사는 백성 아무개의 아버가 병들었는데, 접때 제가 침을 한 차례 놓았지만 효험을 못 보았습니다. 오늘 가겠다고 약속했기에 다시 침을 놓으러 가는 길입니다.”

라고 답했다. 나는 이상해서 다시 물었다.

“자네에게 뭐 이로운 게 있다고 그토록 힘들게 달려간단 말인가?”

그는 웃으면서 대답 않고 달려갔다. 그의 사람됨이 대략 이와 같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를 기이하게 여기고 그가 오고가는 것을 살펴보다가, 드디어 그와 가깝게 사귀었다. ㉠그는 인품이 성글고도 까다롭지 않았다. 남과 거슬리는 일 없이, 오직 의술 베푸는 것만으로 혼자 즐거워하였다.

그의 의술은 옛 처방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항상 작은 가죽 주머니를 갖고 다녔는데 그 안에는 동침과 철심 십여 개가 있었다. 그것으로 악성 종기를 터뜨리고, 상처를 치료하며, 막힌 피를 통하게 하여 풍기를 트이게 하고, 절름발이와 굽사둥이를 일으켜 세우는데 곧 낫지 않는 이가 없었다.

내가 일찍이 물었다.

【“의술은 천한 기술이고, 여항은 비루한 곳이오. 그대의 재주로 어찌 존귀하고 현달한 이들과 사귀어 명성을 취하지 않고, 여항의 서민들을 따라 노닐고 있소?”

조생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세상의 의원들이 그 의술을 끼고 남들에게 빼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술과 고기를 차려 놓고 기다리며, 서너 차례 부탁한 뒤에야 가보려고 하죠. 또 그들이 가는 곳은 권세가의 집이 아니면 부잣집이죠. 만약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부른다면, 아프다고 거절하거나 집에 없다고 속입죠. 일백 번 청해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이 어찌 어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오로지 민간에서만 노닐고 권세가들을 찾아 가지 않는 까닭은 이런 의원 나부랭이들을 꾸짖기 위해서입니다. 저 권세가들일지라도 어찌 우리 의원들을 깔보겠습니까?”

제가 애뜻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오직 여항의 가난한 백성들뿐입니다. 제가 침을 놓으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닌 지 십여 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온전히 살린 사람만 세어 보더라도 천 몇 백명은 밀돌진 않을 것입니다. 제 나이가 지금 마흔 남짓인데, 앞으로 수 십년을 더 산다면 만 명은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린 사람이 만 명이 된다면 나의 일은 다한 것입니다.”】

내가 듣고 감탄하며 다음과 같이 적는다.

(후략)

『이계집(耳溪集)』 52)

< 학습활동 >

▷ 내용학습

1. 조광일의 재주와 그 쓰임은 무엇인지 위 글에서 찾아보자.
2. 위의 밑줄 그은 ㉠과 ㉡의 성격제시 방법의 차이점을 말해보자. 그리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조광일의 성격은 어떠한지 말해보자.
3. 【】 안의 대화로 알 수 있는 조광일의 직업의식과 인생목표를 간단히 정리해보자.

직업의식	인생목표

4. 위의 글에는 작가의 논평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음 조건에 맞도록 지어보자.

- | |
|---------------------------------------------------------------|
| 조건 1. 조광일의 직업의식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드러날 것
2. 개인의 느낀 점이 생생하게 드러날 것. |
|---------------------------------------------------------------|

내가 듣고 감탄하며 다음과 같이 적는다. _____ _____ _____ _____

▷ 적용학습

1. 주변에서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도 남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인물들을 매체를 활용하여 모듬별로 찾아 발표해보자.

2. 자신의 꿈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그리고 ‘참다운 직업관에 대해’라는 주제로 공동창작을 해보자.

1. 모둠원이 토의하여 글의 구성 방법을 정한다.

예) 참다운 직업관 : 직업의 종류→직업의 가치→직업의 만족도

2. 모둠원 각자가 구성 방법에 따라 ‘참다운 직업관 + 그 이유’ 등을 쓴다.

3. 모둠원 각자가 돌아가며 발표하고, 발표한 내용 중 주제에 적합한 것들을 골라 초안을 작성한다.

4. 1차 완성 후 돌려보고, 어색한 부분을 고친다.

5. 한 사람이 이를 발표하고, 모둠원들은 다음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 항목	점수
주제가 보편 타당하고 감동적인가?	
표현이 적절하고 사례가 풍부한가?	
주제와 관련된 중심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자연스럽게 짜여져 있는가?	

② 교수-학습 방안 예시

이 작품의 읽기 전 활동으로 소재와 주제면에서 학생들에게 친숙한 <소설 동의보감>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소설 동의보감>의 내용은 중 1 국어 교과서에 간단히 실려있을 뿐 아니라 TV드라마로도 제작되었기 때문에 자료가 풍부하다. 또는 신체적인 장애를 이겨내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

52) 본문 역주는 유재건의 『이향건문록』을 참조함

습을 시청각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작품의 주제와 관련지어 사고력을 확장시킬 수 있으므로 효과적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교사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도록 해야한다.

읽기 중 활동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작품의 중심생각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작품의 중심생각은 주인공의 대사에 담겨있으므로 이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기 문학 교육은 인물의 행위와 가치관을 통해 학생들이 교훈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작품 속 인물에 대한 '인물지도'가 읽기 중 활동에서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인물지도'는 인물의 특성과 생각을 알도록 하는 데 유용하다. 교사는 학생들이 인물에 대해 느끼는 바를 마음껏 얘기하도록 유도하고, 학생들의 얘기를 몇 가지 분류기준(업적, 성격, 가치관, 행위)하에 적절하게 정리해준다.

이 같은 읽기 중 활동이 끝나면 학생들은 학습활동을 통해 작품 속 내용을 정리하고 내면화하도록 한다.

내용학습에서는 조광일의 성격 및 재능, 직업의식과 인생목표 등을 정리하게 하여 작품의 내용을 재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적용학습에서는 작품의 내용을 주변의 삶과 자신의 삶에 연관지어 학생들 스스로가 바람직한 직업관을 내면화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적용학습의 결과물을 교사가 통제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한다. 내면화의 과정은 가시적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교사의 개입보다는 자기교육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발표내용이나 글의 내용이 다소 심화된 감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교사는 이를 지적하지 않도록 한다.

교사의 편의를 위해 학습활동의 지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내용학습 1. 조광일의 재주와 그 쓰임은 무엇인지 위 글에서 찾아보자.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이 활동은 글의 기본내용 및 인물 파악을 위해 선정하였다. 인물의 재주는 무엇인지, 그의 삶에서 재주는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보게 하여 인물의 전체적인 삶을 이해하도록 한다.

【예시답안】

조광일의 재주는 침을 잘 놓는 것이었다. 이러한 재주는 남의 병을 치료하는데 쓰였다.

**내용학습 2. 위의 밑줄 그은 ㉠과 ㉡의 성격제시 방법의 차이점을 말해보자.
그리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조광일의 성격은 어떠한지 말해보자.**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이 활동은 인물의 성격과 작가의 인물성격 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게 하기 위한 활동이다.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은 직접적 표현법과 간접적 표현법으로 나뉘어진다. 직접적 표현은 작가가 직접적으로 인물의 특색이나 특성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방법이고, 간접적 표현은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성격을 드러내는 방법이다.

위의 글에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적절하게 사용되어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밑줄 친 부분을 통해서 작가가 어떠한 방법으로 인물의 성격을 드러냈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인물의 성격은 어떠한지 알아보게 한다.

【예시답안】

㉠은 간접제시의 방법이다. 미천한 노파의 아들을 살리는 데에 아무 주저함 없이 곧장 일어서서 가는 조광일의 모습에서 그가 곧은 성격의 소유자이며 돈에

욕심이 없는 소박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㉔은 직접제시의 방법이다. 작가에 의해 조광일이 ‘성글고도 까다롭지 않은 인품’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내용학습 3. 【】 안의 대화로 알 수 있는 조광일의 직업의식과 인생목표를 간단히 정리해보자.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이 활동은 등장인물이 어떠한 생각과 목표를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글의 주제적인 면을 미리 생각해 보게 하는 활동이다.

교사는 인물의 대화나 행동 속에 인물의 생각이나 입장이 드러난다는 점을 미리 주지시킨다. 그리고 주어진 문제의 답을 찾는 데에서 끝나지 말고 글의 주제적인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시답안】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조광일의 직업의식은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장인정신이 강하게 표출된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명성보다는 자신의 의술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청백리 정신 또한 볼 수 있다.

이러한 직업의식을 토대로 조광일은 자신의 인생목표를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만 명의 목숨을 살리는 것에 두었다.

내용학습 4. 위의 글에는 작가의 논평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음 조건에 맞도록 지어 보자.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이 활동은 논평 부분의 창작 활동을 통해 전기의 형식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이다. 전기의 논평은 작가가 직접 보거나 들은 객관적 사실에 대해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서술하는 부분이다. 전기의 논평은 긴 글을 창작하는 것이

아니므로 글쓰기에 두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도 적합한 쓰기 활동이다. 위의 논평은 학생들이 기본내용을 먼저 파악한 후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주인공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논평의 내용이 비록 교사가 요구하는 내용이 아닐지라도 교사를 학생들의 다양한 가치관을 인정해 주는 자세를 유지하도록 한다.

【예시답안】

실제 『이계집』에 적혀있는 작가의 논평은 다음과 같다.

“요즘 사람들은 한 가지 능력만 있어도 세상에 팔리기를 구한다. 남에게 조그만 혜택이라도 베풀면, 채권을 손에 쥐고서 값을 내놓으라고 독촉한다. 권세와 이익 사이를 어정거리며 살피다가, 아무것도 얻는 게 없으면 침을 내뱉고 돌아보지도 않는다. 그러나 조생은 의술이 높건만 명예를 구하지 않았고, 널리 베풀었던 그 보답을 바라지 않았다. 달려온 사람이 위급하다면 가난하고 권세 없는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먼저 치료해 주었다. 천명을 살리면 반드시 귀신의 도움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에게도 이 나라에 그 후손이 있을진저.”

적용학습 1. 주변에서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도 남을 위해 봉사하는 인물들을 매체를 활용하여 모둠별로 찾아 발표해보자.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이 활동은 모둠별로 매체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발표하게 하기 위한 활동이다. 현대 사회는 인쇄 매체로부터 영상 매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매체에 의한 정도가 소통된다. 이러한 매체를 통해 학생들은 질 높은 정보를 다량으로 수집하고, 그 속에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찾아낼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교사는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남을 위해 봉사하는 ‘자혜’의 개념을 학생들에게 먼저 인식시켜 주고, 학생들로 하여금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자혜의 행위를 한

인물들을 매체를 통해 찾아보도록 하고, 매체의 출처를 적도록 한다. 이 활동은 학습의 답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므로 예시답안을 제시하지는 않겠다.

적용학습 2. 자신의 꿈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그리고 ‘참다운 직업관에 대해’라는 주제로 공동창작을 해보자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공동창작이란 어떤 주제에 대해 함께 생각을 모으고 계획을 세워 집단적으로 창작하는 행위이다. 공동창작은 협동심을 길러주고 작문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는 점에서 지향해야 할 활동이다.

교사는 먼저 소규모 모둠을 지정해주고 모둠원들이 토의하여 글의 구성 방법을 정하게 한다. 그리고 각자가 구성 방법에 따라 ‘내가 생각하는 참다운 직업관이란?+그 이유’ 등을 쓰게 하고 모둠원의 글 중 주제에 적합한 것을 골라 초안을 작성하게 한다. 그 다음 내용을 다듬고 고쳐쓰기를 한 뒤 발표하게 한다. 참고로 이 활동은 정해진 수업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는 분량의 글이 아니므로 교사의 재량에 따라 수행평가로 활용하면 좋을 듯 싶다.

공동창작에 대한 평가는 교사의 직접평가, 학생간의 상호평가, 자기평가가 있을 수 있다. 교사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알맞은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여기에 대한 예시 답안을 따로 제시하지 않겠다.

이상으로 <이안민전>과 <침은조생광일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안민전>에서는 나라를 위해 자신의 재주를 다하고자 한 진정한 과학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고, <침은조생광일전>에서는 타인의 목숨을 구하는 데 한평생을 바친 참된 의원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다. 이 두 사람을 통해 자아 실현이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데서 이루어짐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작품들을 전기문학의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생관과 직업관이 내면화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사회적 시혜를 베푸는 인물 - 사회 정의와 공동체적 삶의 문제

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물질의 풍요와 문명의 혜택을 누리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개인만의 능력을 강조하는 경쟁주의, 이기주의, 금전 만능주의에 따른 인간 경시풍조의 팽배로 인해, 가정이 쉽게 파괴되고 학교가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수단의 장소로 전락되어 버린 것 역시 오늘의 현실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지고의 가치가 되지 못하고 다른 수단적 가치들이나 잘못된 가치들이 최고의 가치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의 부재가 아닌가 싶다. 학교에서의 교육은 입시위주의 경쟁주의 교육으로 전락되어 버린지 오래 되었다. 주입식 암기로 인하여 창의성은 계발되지 못하고 단순히 점수 올리기에만 급급한 현실에서 소외되고 경쟁에서 뒤떨어진 아이들은 문제아로 전락되고 말았다. 나아가 성적에 따른 차별된 교육으로 학생들간 학력의 차이는 점점 더 확대되어 평등주의의 원칙은 무너진지 오래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사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은 무엇일까. 바로 바람직한 교육자료의 제시를 통해 학생들에게 사회정의와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내면화 시키는 것이다.

현대가 아무리 각박한 사회라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안위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 이 사회는 삭막한 가운데서도 인간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얘기를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적 자료로 쉽게 접하게 된다면, 학생들은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인격형성과 사회 정의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과 이타적 삶의 가치 역시도 자연스럽게 내면화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여항인물전 속에는 사회적 시혜를 베푼 이들의 미담이 잘 담겨져 있다. 특히 이러한 시혜를 베푼 인물들이 대부분 지배계층보다는 시정의 서민이나 여성과 같은 상대적인 약자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들은 대부분 특별한 명예나 사회적 안정을 받기 위한 시혜가 아닌, 자발적이며 내적 동기에 의한 시혜이기에 더 큰 감동을 준다. 또한 시혜의 과정에서 자신의 희생이 다소 따르더라도 옳은 행동을 위해서는 이를 감수하는 모습을 보여 사회 정의의 문제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시혜의 미덕을 담고 있는 작품들을 학생들에게 제시해 준다면 학생들은 작품을 통해 어떠한 삶이 옳은 삶인가, 사회 정의와 공동체의 삶은 어떻게 실현 될 수 있는가 등에 대해 진지한 모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고찰은 학생들의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뿐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방법 또한 터득하게끔 해 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시혜의 인물들을 담고 있는 여항인물전의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목씨부전(睦氏婦傳)>은 정범조(丁範祖)(1833~1898)가 지은 것으로 그의 문집인 『해좌집(海左集)』에 실려 있다. 작품의 주인공인 목씨부는 양반인 아버지와 기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본처의 자식들과는 서로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복 형제를 찾아내어 은혜로운 사랑을 베푼다는 내용이다. 그는 비록 여자이기는 하나 그 마음 씀씀이는 대장부처럼 호연했으며 당시 서얼차대의 사회상 속에서도 꿋꿋이 재산

을 모으고 선조를 봉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이 작품의 가치와 의의는 시혜의 대상에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봉사·희생·사랑을 베푼다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여 생면부지의 불쌍한 사람들만을 돕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혜는 자기 주변의 아주 가까운 대상에서부터 출발한다. 곧 가족, 친척 및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시혜의 범위가 점차 사회로 확대되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요즘처럼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들과도 서로 무관심하며 각자의 삶에만 몰두하는 각박한 현실사회에서 이 작품은 사람들이 쉽게 인식하지 못한 시혜의 대상문제를 일깨운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유연전(金流連傳)>은 조구명(趙龜命)(1693~1737)이 지은 것으로 그의 시문집인 『(차계집(葦谿集))]』에 전한다. 작품의 입전 대상인 김유연은 금성의 일반 양민으로 재물로써 마을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나 이러한 자신의 선행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어 뽐내거나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김유연의 선행을 기특하게 여긴 고을 원님이 마침 순찰 나온 관찰사가 금성을 지남에 그를 추천해서 작은 벼슬을 내리려 했으나 그는 끝내 마다하고 벼슬을 하지 않았다. 김유연의 행위에 대해 작가 조구명은 '의도하는 바 없이 행하는 것을 의(義)라 한다. 의는 군자들도 어렵게 여긴다. 하물며 향리의 소소한 백성이라'라고 하며 김유연과 같은 사람에게 적당한 벼슬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평하였다. 이 작품은 개인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 사회정의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게끔 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별한 명예나 보상을 원하지 않는 자발적인 시혜야말로 단순히 봉사의 개념이 아닌 진정한 정의 실현의 밑바탕이 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덕전>과 <장복선전> 역시 인물의 시혜 행위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이 작품과 관련하여 사회정의와 공동체적 삶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만덕전(萬德傳)> 교육방안 예시

① 작품 제시 및 학생-학습 활동 예시

<만덕전(萬德傳)>은 조선 정조 때의 문신인 채제공(蔡濟恭)이 지은 것으로 그의 문집 『번암집(樊巖集)』에 실려있다. <만덕전>은 양인도 아닌 미천한 신분의 기생으로서 힘들게 모은 재산을 익명으로 관가에 맡겨 어려운 이웃을 구출한 만덕이란 여인을 입전한 작품이다. 만덕은 당대 전형적인 여성상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나고자 직접 관아에 찾아가 하소연을 하는 적극성이나 여성의 몸으로 뛰어난 수완을 발휘하여 재물을 쌓는 거상의 모습을 보이는 점, 임금님 계신 곳을 바라보고 금강산 기행을 하는 것을 평생의 소원이라 말하는 점 등은 전형적 여인의 모습에서 벗어난 주체적이고 개성적인 여성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만덕전>의 내용은 『정조실록(正祖實錄)』에 실려있기 때문에 실사와 전의 관계면에서 그 차이점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있었다.⁵³⁾ 또한 최준하⁵⁴⁾는 <만덕전>의 입전동기를 여성사적 시각에서 고찰하였고, 조동일⁵⁵⁾의 경우는 만덕의

53) 이동근은 자신의 논문에서 “번암의 <만덕전>이 구체성·흥미성·서민성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정조실록』은 간략화·교훈성·지배 세습적 질서의식을 보여준다”고 하며 “<만덕전>은 만덕이 중심이 되어 여장부의 호연지기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반면, 『정조실록』은 만덕의 공덕보다는 군주가 그 공적을 보고 받고 적절한 포상으로서 세교(世敎)에 이바지한 점이 강조되어 있다.”라고 평했다. (이동근, 위의 책, pp.99~101)

또한, 김정일은 “기생의 신분으로 제주도 기민을 구출했던 <만덕전>에서는 실록에 보이지 않는 구체화와 흥미성을 넣은 허구화(만덕의 부자가 되는 과정, 입경하여 내의원이 되는 과정 등)가 드러난다”고 하였다. (김정일, 위의 논문, p.116)

54) 최준하는 “<만덕전>은 실사파(實事派) 사전(私傳) 중에서 여성을 입전 대상으로 선택한 다른 작품이 대부분 효, 절개, 의 등을 표창하려는 의도에서 지어진 것과는 달리, ‘만덕’이라는 여인의 일생을 서술한 특이한 작품이다. 사회전반의 다양한 변보다 특히 변해가는 여성상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이 작품은 당시에 유행하기 시작하였던 여성계 영웅소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 환경이 여성의 능력과 존재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변천에 의해서 가능해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작품을 평가하였다. (최준하, 『번암의 전 문학 검토』, 어문연구학회 제 24집, 1993. pp.310~311)

행위를 자혜담의 측면에서 논평하였다.

이처럼 만덕의 행위를 여러 측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사회 정의적 측면에서 만덕의 행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만덕은 자신이 수십 년 동안 힘들게 모은 재물을 빈민구휼을 위해 하루아침에 모두 관에 기탁한다. 이는 누군가에 의한 강제적 행위도 아니요,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한 행위도 아니다. 때문에 이러한 만덕의 행위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속에 살고 있는 현대의 학생들에게 ‘더불어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정의로운 삶이란 과연 어떠한 것인가’ 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또한 만덕은 당시 제주의 여자가 몰으로 나오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를 벗어나 임금님을 알현하는 것과 금강산 기행이 소원이라고 말하였다. 이는 자신에게 부여된 환경적 제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이려고 한 의지있는 모습이다. 당대 사회가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여인의 모습을 미덕으로 삼았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만덕의 이러한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은 현대인에게도 큰 귀감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다음은 <만덕전>의 내용과 그에 따른 학습활동을 제시한 것이다.

<작품읽기>

빈민의 구휼에 앞장 선 제주 여인 만덕

만덕(萬德)의 성은 김(金)이니, 제주의 양가집 딸이었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는 의탁할 곳이 없어서 기생 노릇을 하며 살림을 했다. 조금 자라나자, 관가에서 만덕의 이름을 기생명부에 올렸다. 만덕은 비록 머리를 숙이고 기생 노릇을 했지만, 그는 여느 기생들처럼 행동하지는 않았다.

나이가 스물 남짓 되자, 그는 울면서 자기의 실정을 관청에 하소연했다. 관청에서도

55) 조동일은 <만덕전>은 “기생이었던 주인공이 장사를 해서 큰 재물을 모아 흉년이 들 때 기민을 구제 한 행실을 칭송하고, 조정에서 표창한 것을 기록한 작품으로, 이글의 주인공 ‘만덕’과 같이 열녀나 효자가 아닌 미천한 백성이라도 평가할 만한 행실이 있으면 널리 알리는 관례를 이은 작품”이라고 평했다.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권, 지식산업사, 2002, p.461)

불쌍히 여겨, 기생명부에서 그의 이름을 뽑아서 양민을 돌려 주었다. 만덕은 비록 살림을 차려 탐라의 사내들을 머슴으로 부렸지만, 남편을 맞아들이진 않았다.

그는 재산 늘이는 데에 재주가 뛰어났다. 물가의 높고 낮음을 때에 맞춰 내어놓기도 하고 사들이기도 했다. 그런 지 몇 십년이 되자 제법 부자라고 이름이 났다.

우리 임금 19년(1795) 을묘에 탐라에 큰 흉년이 들었다. 백성들의 시체가 더미로 쌓였다. 임금께서 곡식을 배에 싣고 가서 구제하라고 명하셨다. 팔백 리 바닷길을 바람에 돛을 달고서 빨리 달렸지만, 오히려 제때에 대지 못하는 느낌이 있었다.

이에 만덕이 천금을 내어 육지에서 쌀을 사들였다. 여러 고을의 사공들이 때맞춰 도착하면, 만덕은 그 가운데 십분의 일을 가져다 자기 친족을 살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관청으로 보내었다. 얼굴이 누렇게 든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듣고는 마치 구름처럼 관청 뜰에 모여들었다. 관청에서는 덜 급하고 더 급한 사정을 가려서 차이가 나게 나눠 주었다. 남자와 여자들이 나와서 모두 만덕의 은혜를 칭송하여,

"우리를 살려 준 이는 만덕일세."

라고 했다. 구제가 끝난 뒤에 목사가 그 일을 조정에 올렸다. 임금께서 몹시 기이하게 여기시어,

"만덕에게 만약 소원이 있다면 어렵고 쉬움을 가리지 않고 특별히 베풀어 주겠다."

고 회유하셨다. 목사가 만덕을 불러서 임금의 말씀대로,

"너에게 소원이 있느냐?"

고 물었다. 만덕이 대답했다.

"다른 소원은 없습니다. 원이라면, 한번 서울에 들어가 상감께서 계신 곳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강산에 들어가 일만 이천 봉을 구경한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대개 탐라의 여인들이 바다를 건너서 육지에 오르지 못하게 한 것이 국법이였다. 목사가 또 그 소원을 위에 아뢰었더니, 임금께서 그 소원대로 해주라고 하셨다. 관가에서 역마를 내어 주고 음식도 번갈아 제공케 했다.

만덕은 돛단배 한 척으로 만경창과를 넘어 병진년(1796) 가을에 서울에 들어왔다. 한두 번 채정승을 만났더니, 채 정승을 그 사실을 임금께 아뢰었다.

(중략)

며칠 뒤에는 그를 내의원 의녀로 삼아 모든 의녀의 우두머리가 되게 했다. 만덕은 전례에 따라 내궐(內闕) 문 안에 들어가 문안을 드렸다. 전(殿)과 궁(宮)에서 각기 나인으로 하여금 말씀을 내렸다.

"네가 한낱 여자의 몸으로 의기(義氣)를 내어 굶주린 백성 천백 명을 구제했으니 가늠하구나."

상을 내린 것이 매우 많았다.

반 년이 지난 정사년(1797) 3월에 금강산에 들어갔다.

만폭동, 중향성의 기이한 경치를 두루 구경하며, 금부처를 만나면 반드시 절하고 공양드려 그 정성을 다했다. 불법이 탐라국에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덕이 그 때

나이 선여덟이었지만 처음으로 절과 부처를 본 것이다.

그는 마침내 안문재를 넘고 유점사를 거쳐 고성으로 내려갔다. 삼일포에서 배를 타고 통천 총석정에 올라 천하의 장관을 다 구경했다. 그러한 뒤에 서울로 다시 돌아와 며칠을 머물렀다. 장차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내원(內院)에 나아가서 돌아가겠다고 아뢰었다. 전과 궁에서 각기 앞서와 같이 상을 내렸다.

(후략)

『번암집(樊巖集)』 56)

<학습활동>

▷ 내용학습

1. 만덕의 일생을 표로 정리해 보자.

시 기	활 동
기생이었을 때	
양민이었을 때	
의녀였을 때	

2. 다음 글을 읽고 글과 관련되는 질문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해보자.

본문 내용	질문 만들기	답하기
나이가 스물 남짓 되자, 그는 울면서 자기의 실정을 관청에 하소연했다. 관청에서도 불쌍히 여겨, 기생명부에서 그의 이름을 뽑아서 양민을 돌려 주었다. 만덕은 비록 살림을 차려 탐라의 사내들을 머슴으로 부렸지만, 남편을 맞아들이진 않았다.	예시) ○만덕이 기생에서 벗어나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	
다른 소원은 없습니다. 원이라면,	○	

<p>한번 서울에 들어가 상감께서 계신 곳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강산에 들어가 일만 이천 봉을 구경한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p>		
<p>3월에 금강산에 들어갔다 만폭동, 중향성의 기이한 경치를 두루 구경하며, 금부처를 만나면 반드시 절하고 공양드리 그 정성을 다했다. 불법이 탐라국에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덕이 그 때 나이 씬어덩이었지만 처음으로 절과 부처를 본 것이다.</p>	○	

▷ 적용학습

1. 내가 만일 만덕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임금님께 어떠한 소원을 얘기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만덕은 당시 미천한 신분의 여자의 몸으로도 힘들게 모은 전 재산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 바치었다. 우리 사회에서 만덕과 같은 행동을 한 사람들을 찾아 이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한 전(傳)을 다음 조건에 맞도록 지어보자.

- | |
|--------------------------------------------------------------------------------------------------------|
| <p>조건 1. 인물의 삶을 일대기 형식으로 쓸 것
 2. 사회적 시혜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
 3. 자신의 논평이 들어갈 것</p> |
|--------------------------------------------------------------------------------------------------------|

3. 다음은 자신의 전 재산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 모두 바친 한 할머니에 대한 글이다. 이 글을 읽고 다음 표를 완성해보자.

독거노인에 전 재산 남기고 떠난 할머니

혼자 월남한 할아버지와 자식도 없이 살다 사별한 후 쓸쓸히 살던 80대 할머니가 이승을 떠나면서 생활비를 아끼고 재활용품을 팔아 모은 전 재산을 의지할 데 없는 독거노인들에게 남겼다.

경남 진해시 익선동 김영철(60.노무사)씨는 최근 진해시 충무동 사무소를 찾아 "혼자 사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불우 노인들을 위해 써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며 지원 대상 노인들을 추천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 할머니는 진해시 송학동에서 살다 지난 1월 노환으로 사망한 조관례(당시 83세)씨.

조 할머니는 전세보증금 1천700만원과 예금 130만원 등을 남겼으며 생전에 "혼자 사는 불쌍한 노인들을 돕고 싶다. 내가 죽으면 얼마되지 않지만 재산을 그 사람들을 위해 썼으면 좋겠다"고 주변에 말해왔다.

할머니는 30여년전에 북에 가족을 두고 단신 월남해 혼자 살고 있던 7살 연상의 최순호씨를 만나 결혼했지만 그 인연도 길지 않아 지난 81년 사별, 그동안 독거노인으로 지내왔다. 할머니는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생활비를 아끼고 재활용품을 모아 팔아 껌돈을 부어 돈을 모으곤 했다고 김씨는 전한다. 그리고 집근처 시장 등에서 더 어려운 노인들을 만나면 1만원이든 2만원이든 들고 있던 돈을 손에 쥐어주기도 하고 재활용품을 모으는 다른 노인들에게 폐품을 건네주기도 했다.

조 할머니는 화장돼 한 줌 흙으로 돌아갔지만 가난하지만 항상 이웃을 생각하던 따뜻한 마음은 시민들의 가슴에 남았다. 충무동 사무소는 할머니의 뜻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된 유산으로 시내 불우노인 183명에게 10만원씩을 전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005. 5. 20

	만 덕	할머니
공 통 점		
차 이 점		

56) 본문 역주는 유재건의 『이향건문록』을 참고함

② 교수-학습 방안 예시

이 작품의 읽기 전 활동으로는 제목을 이용한 ‘예측하기’ 전략을 권장한다.⁵⁷⁾ ‘예측하기’란 글을 읽기 전에 읽을 내용의 제목, 사진, 기타 정보를 대하면서 글의 내용을 미리 추측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제주의 빈민 구휼에 앞장선 제주 여인 만덕’이라는 제목을 토대로 과연 인물이 어떠한 방법으로 제주의 빈민을 구휼했을지, 이러한 행위를 한 만덕이란 인물을 어떤 사람인지 예측해 본다면, 작품을 대할 때 좀 더 능동적인 자세를 갖게 될 것이다. 또는 사회 곳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제시하는 것도 이 학습의 동기유발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법이다.

읽기 중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주인공의 행위 및 사건 전개 양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단계를 적절히 나눠주는 것이 필요하다. 작품의 사건 양상이 다소 복잡성을 띠는 경우 교사가 읽기 중 활동에서 내용의 구조화를 유도해야 하는데, 이 작품의 경우 이러한 학습 전략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학생들이 주인공의 업적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인물의 여러 가지 업적이 눈에 띄는데, 학생들이 여기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교사는 인물의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이 같은 행위가 공동체의 삶에서 어떠한 중요성을 지니는지 생각할 수 있는 의도적인 질문을 자주 던져야만 한다.

읽기 중 활동이 끝나면 내용학습을 통해 글의 내용을 정리하고, 적용학습에서

57) ‘예측하기’ 전략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게 된다. 첫째, 읽을 책의 종류를 알게 된다. 신문 사설인지, 이야기인지, 광고인지, 교과서인지, 그리고 편지나 그 밖의 무엇인지 알게 된다. 둘째, 우리가 읽을 책의 내용에 대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된다. 셋째, 그 책을 얼마나 주의깊게 읽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모든 단어를 자세히 읽을 것인가? 대충 훑어볼 것인가? 즐기면서 읽을 것이라면 굳이 내용을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주로 제목이나 글의 첫 부분을 중심으로 예측을 진행하면서 그 내용을 토대로 글 전체를 몇 부분으로 나누어 예측을 진행하면서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최현섭 외, 위의 책, pp.335~336)

제시된 'what if'의 질문과 상호 텍스트 관련 항목을 통해 학습을 내면화 하도록 유도한다. 학습활동과 관련한 교수-학습 방안과 예시답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학습 1. 만덕의 일생을 표로 정리해 보자.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이 활동은 작품의 기본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이다.

글을 읽을 때 기본내용의 파악은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읽기 전략이다. 기본 내용이 파악되지 못한 글 읽기에서 더 이상의 깊고 넓은 이해도, 비판적 감상도 이뤄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기 작품은 대부분 일대기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 글은 서사적인 흐름에 따라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만덕의 일대기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리해 봄으로써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스스로 점검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시답안】

기생이었을 때 :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의탁할 곳이 없어 비록 기생이 되었지만 여느 기생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스무살이 되자 관청에 하소연을 하여 기생에서 벗어났다.

양민이었을 때 : 장사를 하여 돈을 벌고 제주에 기근이 들자 빈민의 구휼에 앞장섰다.

의녀였을 때 : 자신의 소원에 따라 금강산을 여행하였다.

내용학습 2. 다음 글을 읽고 글과 관련되는 질문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해보자.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글을 읽을 때에 마음 속으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글을 읽으면, 글과 적극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다. 이 활동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위한 활동이라 하겠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읽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이 질문이 될 수 있지만, 사실적인 질문보다는 추론적이고 비판적인 질문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질문이 질문으로 끝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으므로, 질문에 대해서 글에 명시적인 정보가 없거나 직접적인 단서가 없다고 할지라고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답을 만들어 보도록 강조한다.

이 활동은 학생들이 막연해 할 수 있으므로, 머릿속의 상호 과정을 풀어서 가시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고구술 방법⁵⁸⁾을 활용하여 교사가 먼저 이 활동에 대한 시범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시답안】

* <질문> 만덕은 왜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답하기> 만덕은 결혼을 함으로써 일반 여자들과 같은 생활 보다는 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혼을 하면 아무래도 가정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꿈을 펼치는 데 장애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 <질문> 만덕은 왜 이러한 소원을 말한 것일까? 다른 소원은 없었을까?

58) 사고구술(think aloud)이란 독자가 자신의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사고의 과정을 말로 표현하여 사고를 관찰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법이다. 읽기 과정은 독자의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이해 행위이고 이를 직접 관찰할 수 없다. 그러기에 교사가 읽기 지도를 능숙하게 하려면 좀 더 직접적으로 읽기 기능과 전략에 대해 시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읽기 기능을 보여 줄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읽기 과정에서 자신의 작용 기억 속에 진행되는 구체적인 기능이나 전략을 언어화하는 방법인데 이러한 기법을 사고구술이라고 한다.

사고 구술은 능숙한 독자로 상정된 교사가 초보 독자로 상정된 학생들에게 읽기 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제이다. 교사는 사고 구술과 같은 방법을 잘 활용하여 읽기 기능에 대해 능숙한 시범자가 되어야 한다. (국어·생활국어 7-(2) 교사용지도서, 교육인적자원부, 2001, p.86)

<답하기> 만덕은 제주 여인이 물으로 나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제주에만 살아야 하는 것을 답답하게 여겼을 것이다. 그래서 물으로 나와 임금님이 계신 서울에 가 보는 것과 유명한 금강산을 보고서 기쁨을 만끽하고 싶었을 것이다. 만덕은 이미 부를 이뤘을 뿐 아니라 재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소원 이외에는 다른 소원을 없었을거라 생각한다.

* <질문> 이 때 만덕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답하기> 이때의 만덕의 심정은 기쁘기 한량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소원을 이뤘을 뿐 아니라 금강산의 경치는 다시 보기 어려운 장관이기 때문이다.

적용학습 1. 내가 만일 만덕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임금님께 어떠한 소원을 얘기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이 활동은 작품 속 인물과 스스로를 동일시 하는 활동이면서 ‘what if’ 전략에 해당하는 적용활동이다. 학생들은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내가 만약 작품 속 인물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에 대한 답을 찾도록 하며, 교사는 이때 학생들의 상상력을 그대로 수용해 주도록 한다. 이러한 동일시 과정은 학생들이 작품에 흥미를 느낄 뿐 아니라 사고력 확장에도 도움이 된다.

【예시답안】

학생 1. 내가 만일 만덕이었다라면 임금님께 특별한 벼슬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부는 이루었지만 명예나 권력을 지니고 있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학생 2. 내가 만일 만덕이었다라면 더 많은 재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주의 불쌍한 사람들을 계속 돕기에는 많은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적용학습 2. 우리 사회에서 만덕과 같은 행동을 한 사람들을 찾아 이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한 전(傳)을 다음 조건에 맞도록 지어보자.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이 활동은 학생들이 작품에서 다룬 가치를 주변의 삶과 연관지어 내면화 하는 활동이다.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생각하기에 사회적 시혜의 행동이 돋보이는 사람들을 찾아 그에 대한 얘기를 전의 형식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먼저 전기의 내용 구성을 위해 학생들은 주변 인물들은 직접 조사·취재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그리고 그들의 일대기와 업적, 인물의 성격과 인품이 드러나도록 글을 쓰고 마지막에 자신의 논평을 추가하는 한 편의 전을 작성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작품 중 뛰어난 작품을 선발하여 발표하게 하고, 조사·취재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여 글의 작성 과정을 학생들 스스로가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 적용학습의 경우 수업시간 내에 행해질 수 있는 활동이 아니므로 교사는 이를 쓰기 교육의 수행평가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이 활동은 특정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예시답안을 따로 제시하지는 않겠다.

적용학습 3. 다음은 자신의 전 재산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 모두 바친 한 할머니에 대한 글이다. 이 글을 읽고 다음 표를 완성해보자.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이 활동은 학생들이 작품을 통해 알게 된 교육적 가치가 오늘날에도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교사는 아래 제시된 글을 학생들이 직접 읽게 한 뒤, 느낀점을 말하게 한다. 그 후 글의 주인공과 작품 속 인물과의 상관성 및 공동체적 삶의 가치에 대해 얘기하게 한다. 그리고 제시된 표를 완성하게 한다.

【예시답안】

공통점 : 타인에 대한 시혜의 행위가 돋보인다.

차이점 : 만덕은 빈민 구휼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바쳤고, 할머니는 독거노인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바쳤다.

2) <장복선전(張福先傳)> 교육방안 예시

① 작품 제시 및 학생-학습 활동 예시

<장복선전(張福先傳)> 또한 이옥이 지은 것으로 김려가 편찬한 『담정총서』 내의 산문 「도화유수관소고(桃花流水館小稿)」에 실려있다. 입전한 내용을 살펴보면, 참고지기 장복선이 평양감영의 은을 보관하던 관리로 일하면서 2천냥 상당의 은을 유용한 죄목으로 처형을 기다리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구명운동을 벌여 결국 그를 구해주었다는 내용이다.

장복선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대부분 그를 ‘유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험이란 의기로 교육하면서 베풀어주기를 좋아하고 서로 약속한 것을 중히 여기며 재난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고 우환이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인물이다. 이러한 ‘협’과 ‘의’에 대한 정의는 박지원의 ‘임협지도(任俠之徒)’에 대한 설명에 잘 나타나는데⁵⁹⁾, 본고에서는 ‘협’과 ‘의’를 따로 분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협’과 ‘의’의 본

59) 임협의식에 대해 연암 박지원은 “힘으로 남을 구하는 것을 ‘협(俠)’이라 하고 재물로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고(顧)’라고 한다. ‘고’일 경우 명사가 되고 ‘협’일 경우 전으로 남는다. ‘협’과 ‘고’를 겸하는 것을 의(義)라 한다. (박지원 『연암집』 5권). 연암은 ‘협’과 ‘고’를 분리한 뒤 다시 통합하여 ‘의’라고 정의했지만, 실제 임협의 행동양태는 양자를 겸하고 있었으니, 사실상 연암의 정의는 ‘임협’ 그 자체인 것이다. 임협의식은 그 실천요목으로 신의를 중히 여기고,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남을 돕는 것 등 다양하지만, 그 핵심은 무력에 의한 문제 해결 즉 폭력적 성향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폭력성이 어떤 방향을 취하느냐 하는 것인데, 여향인 출신 유험의 폭력성은 무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하층민인 민중과 연대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명관, 『조선후기 여향문학 연구』, 창작과 비평사,

질이 '옳은 것을 위해 남을 돕는다'에 있으므로 그 행위의 수단이 재물이든 무력 이든간에 그 자체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우성과 임형택 역시 “주인공 장복선이 돈을 가볍게 여기고 의기를 숭상해서 남의 어려운 사정을 앞장 서 도운 것으로 장복선의 의로움은 칭송할 만하다”⁶⁰⁾고 하였기에 장복선의 행위를 사회정의의 실현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하겠다.

비록 장복선이 관의 재물을 함부로 축내 법적인 면에서는 합당한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의기를 숭상해서 힘들고 절박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구휼함에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점,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락을 멀리하고 특정한 대가를 바란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그의 행동은 사회적 정의를 구현했다고 하기에 손색이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록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희생이 뒤따르게 된다면 그 일을 하는데 주저하게 된다. 바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의의 현장을 보고서도 혹여나 자신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까 몸을 움츠리는게 현실이다. 그러나 장복선은 자신의 희생이 뒤따를 것임을 알면서도 어려운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이러한 장복선의 행동은 이기주의에 물든 현대인들에게 큰 귀감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다음은 이 작품에 대한 내용과 학습활동을 제시해 둔 것이다.

1997, p.127)

60) 이우성 · 임형택, 『이조한문단편집』(하), 일조각, 1997, p.216

<작품읽기>

진정한 협객, 창고지기 장복선

장복선이란 사람은 평양감영의 은을 보관하는 창고를 맡아보는 고지기였다.

당시 판서로 있는 채제공이 평안감사로 있을 때 은고를 조사했더니 없어진 은이 이천 냥이나 되었다. 복선의 집이 본래 가난해서 그것을 갚을 수 없어서 법대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를 옥에 가두어 내일 장차 형을 집행하게 되었는데 평양 사람들이 모두 그가 죽게 됨을 애석하게 여기어 앞 다뒀 술과 밥을 옥중으로 들여보낸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채판서가 밤중에 사람을 시켜 옥중을 엿보게 하였더니, 복선은 바야흐로 술잔을 들고 평소처럼 태연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종이와 붓을 찾더니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는 것이 진실로 애석하지는 않다. 허나 내가 죽은 뒤에 혹 관의 재물을 훔쳐 개인의 욕심을 채웠다는 말이 있게 되면 대장부의 치욕이 될 것이다. 내 이제 기록 하나를 남겨 증거를 삼겠다.”

드디어 쪽 쓰기 시작했다.

“아무개가 초상에 가난해서 엄도 못하고 있을 때에 내가 은 몇 냥을 주었으며, 아무개의 장사에 내가 은 몇 냥을 주었다. 내가 주관하여 아무개의 처녀를 시집보내고, 아무 총각을 장가들일 때에 몇 냥의 은을 썼고, 아무개의 *환자(還子)와 아무개가 *포함(浦欠)진 것을 갚아 주는데 모두 내가 마련한 은 몇 냥이 들었다.”

다 적고 나서 셈해 보니 모두 이천 냥이 넘었다.

이튿날 아침 복선을 뜰에 끌리고 장차 형을 집행하려 하는데, 평양 사람들이 급히 뛰어다니며 서로에게 알렸다.

“오늘 아전 장복선이 죽는다.”

남녀 노소 모두들 둘러싸고 이를 지켜보는데 그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기생 백여 명이 모여 다리를 얹은 채 비단 치맛자락을 걸어 올려 허리띠에 꿸고 뜰 아래 줄지어 꿨어앉아 서로 화답하여 노래하였다.

(중략)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대열 중에 있던 장교가 커다란 버들 상자를 땅에 던지며 여러 사람들에게 말했다.

“오늘 장복선이 죽는 날입니다. 그를 살리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 은을 추렴하기 바랍니다.”

평안도 지방은 본래 은이 많고 풍속 또한 사치스런 곳이라 은장식을 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에 은장도나 *은잠(銀簪), 혹은 부녀자들의 은가락지, 은비녀, 은노리개 따위들을 던져서 마치 눈이 내리듯 분분하였다. 잠깐 사이에 은이 너덧 상자를 채웠는데, 아전이 그것을 달아보니 벌써 천여 냥이 되는 것이었다. 채판

서는 백성들의 원하는 바를 따르고 또 복선의 인간됨을 기특하게 여겨서 그를 석방 하라고 명하고 은 오백 냥을 내어서 도와주었다. 그 이튿날로 관의 장부가 채워졌 음을 알려왔다.

복선이 석방되고 사흘째 되는 날 먼 고을에서 은을 신고 온 사람이 또한 두 셋 있었는데, 모두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면서 자기들이 뒤늦게 당도한 것을 부끄러워 하였다.

*경금자는 말한다.

장복선 같은 자야말로 정말 험객이 아니겠는가? 그가 관의 재물을 축내면서 사사로 이 은혜를 관 것은 법에 있어서 마땅히 사형을 당할 일이다. 그러나 만약에 장복선의 집에 쌓인 재산이 있었던들 어찌 관의 재물을 훔쳐 나라의 법을 범했겠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무디고 웅졸한 뿐더러 재물에 인색하여 남의 어려움을 잘 돕는 것으로 이름 난 자가 드물다. 장복선은 지방의 일개 말단 아전이었지만 넉넉히 옛 대협(大俠)의 유풍을 지녔다. 관서 지방은 우리나라에서도 풍기(風氣)나 토속이 다른 지방과 약간 달라서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의리를 중히 여기며 기절(氣節)을 숭상하고 명예를 좋아하는 습속이 있어 그러한 것일까?

근년에 어떤 객이 평양을 지나는 길에 장복선을 찾았더니 그는 마침 안주(安州)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담정총서(潭庭叢書)』 「도화유수관소고(桃花流水館小稿)」⁶¹⁾

*환자(還子) : 각 고을의 사창(社倉)에서 백성에게 꾸어 주었던 곡식을 가을에 이자를 붙이여 받아들이던 일. 환상(還上)

*포흠(浦欠) : 관청의 물품을 사사로이 써버림

*은잠(銀簪) : 은비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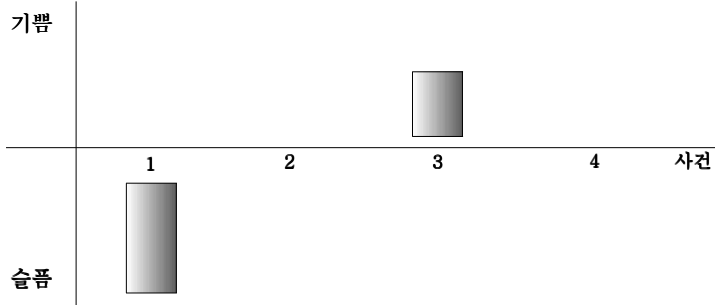
*경금자 : 작가 이육을 뜻함

<학습활동>

▷ 내용학습

1. 장복선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는가. 또 이유는 무엇이었나?
2. 밑줄 그은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장복선의 성격을 말해보자.
3. 사건의 진행에 따른 장복선의 심리변화를 다음 플롯 조직표로 나타내 보자.

- *사건 1. 장복선이 은을 유용한 죄로 감옥에 갇힘
- *사건 2. 장복선이 감옥 속에서 사람들과 담소를 나눔
- *사건 3.
- *사건 4.



4. 글의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 즉 장복선이 살아나길 바라는 노래에 해당하는 가사를 조건에 맞게 직접 지어보자.

- * 장복선의 구원을 위한 내용일 것
- *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간결하게 쓸 것

▷ 적용학습

1. 장복선은 관의 재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이러한 장복선의 행동은 옳은 것일까. 이에 대해 찬반을 나누어 토론한 후 토론 내용을 정리해 보자.

주 제 : 장복선이 관의 재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것은 옳은 행동이다.

사회자: 오늘의 주제는 '장복선이 관의 재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것은 옳은 행동이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정해진 찬반 토론자들은 각각 순서에 맞게 자신의 의견을 발표해 주십시오.

찬 성 :

반 대 :

적용학습 2. 다음은 타인을 구제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현대인의 모습이다. 이를 읽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말해보자.

한국 유학생, 철로 위 취객을 구하려다....

26일 오후 7시20분쯤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 지하철 야마노테선 신오쿠보역. 사카모토 세이코(37)씨가 친구와 함께 플랫폼에서 술을 마시다 발이 미끄러져 철로에 떨어졌다. 만취해서인지 그는 일어나지 못했다. 역에는 전차가 곧 도착한다는 벨이 울렸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다.

그때 건너편 플랫폼에서 한 젊은이가 철로로 뛰어 들었다. 그는 사카모토씨를 붙잡고 일으키려 했다. 그 때 한 사람이 더 내려와 거들었다. 바로 그 순간 전차가 진입했고, 셋은 함께 전차에 치여 숨졌다. 맨 먼저 건너편 플랫폼에서 뛰어든 젊은이는 한국인 유학생 이수현(26·고려대 무역과 4년 휴학)씨였다. 당시 이씨는 아르바이트하던 인터넷 카페에서 일을 끝낸 후 기숙사로 돌아가기 위해 전차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또 한 사람은 일본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의감 철로 위에 지다’, ‘용기있는 행동’, ‘목숨을 바친 위인’... 일본 마이니치신문과 NHK 등 일본의 신문과 방송들은 27일 이씨의 의로운 죽음을 속보로 계속 전했다. 방송들은 이날 새벽부터 이씨 사망 소식을 현장 사진과 함께 내보냈으며, 신문들도 석간부터 이씨의 희생을 주요 뉴스로 대서특필했다. 일본 신문들은 당시 이씨는 사고 직전 애인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전차가 왔으니까 30분 뒤면 집에 도착할거야”라고 했다는 애뜻한 사연도 전했다. 사카모토씨가 떨어진 곳은 이씨의 건너편 철로였음에도 이씨가 달려가 구조하려 했다는 보도는 전 일본 열도를 감동시켰다.

(조선일보 2001년 2월 6일자)

② 교수-학습 방안 예시

이 작품의 읽기 전 활동으로는 남몰래 선행을 베푼 이틀이나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시청각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는 작품의 사건전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닐 뿐 아니라 주제를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또는 ‘자신이 남몰래 선행을 베푼적이었는지’, ‘선행을 베푼고 나서의 기분은 어떠했는지?’ 등을 학습 도입 부분에서 먼저 질문해 보는 것도 학습의 동기 부여 차원에서 효과적이다.

본격적인 수업 전개가 이루어지는 읽기 중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기본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 전개 양상, 주인공의 심리 상태 등에 대해 틈틈이 날개 질문 형식으로 교사의 유도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사의 질문은 학습 목표의 강화 및 문제의식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

학습활동에서 중점을 둘 부분은 적용학습에 있는 토론 활동이다. 토론 활동은 자기주도적인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킨다는 점에서 7차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학습 활동 중 하나이다. 토론 활동에서 교사는 조언자로만 존재할 뿐 학생들의 토론 내용에 깊이 관여하지 않도록 한다. 이 때 교사는 학생들의 활동 양상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활동 및 토론 활동이 모두 마무리 되면 교사는 작품의 내용과 교훈점, 토론 내용의 정리 등을 정리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학습내용을 피드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특히 토론 활동을 재점검할 때 자신의 논거는 타당했는지, 토론상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반성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효과적이라 하겠다.

학습활동의 이해와 정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교수-학습 방안과 예시답안을 제

61) 본문 역주는 『(역주) 이육 전집』을 참고함

시하였다.

내용학습 1. 장복선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는가? 또 이유는 무엇이었나?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이 활동은 글의 기본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근본 이유가 여기에 해당하므로 주인공이 이러한 행동을 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은 작품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 이 질문 과정에서 교사는 주인공의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을 유보한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논의는 적용학습에서 토론 활동으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단지 학생들이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자유롭게 상상하는 데에서만 그치도록 한다.

【예시답안】

장복선은 관의 창고에 있는 재물로써 사람들을 도왔다. 왜냐하면 자신의 집은 너무 가난하여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남의 불쌍한 처지를 차마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내용학습 2. 밑줄 그은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장복선의 성격을 말해보자.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이 활동은 작품의 인물에 대한 이해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이다.

교사는 인물의 대화나 행동, 작가의 서술 속에서 인물의 성격이 드러난다는 점을 미리 주지시킨다. 그리고 주어진 문제의 답을 찾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인물의 성격이 작품의 주제와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시답안】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줄 알고 대장부로서의 호연지기를 지녔다. 또한 자신의 일에 기록을 남겨 증거를 삼고자 하는 모습에서 치밀하고 꼼꼼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내용학습 3. 사건의 진행에 따른 장복선의 심리변화를 다음 플롯 조직표로 나타내 보자.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이 활동은 작품 속 인물이 사건의 진행에 따라 어떠한 심리 변화를 겪었는지 생각해 봄으로써 학생들의 동일시 과정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 활동을 위해 플롯 조직표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작품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게 해 주고, 인물의 심리를 분석하는 도해적 수단을 제공해 준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작품의 이해를 위하여 글을 한 번 더 읽어보게 될 것이며, 글의 기본 내용을 더 잘 파악하게 될 것이다.

교사는 먼저 학생들이 작품의 사건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하도록 하고, 사건의 진행에 따라 주인공의 감정 변화를 막대 그래프를 이용하여 그려보게 한다. 세로축은 감정 표시, 가로축은 사건 진행 표시임을 알려주어 학생들이 정확하게 감정의 변화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시답안】

사건 3. 장복선의 형이 집행되는 순간 모두들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부름.

사건 4. 사람들이 은을 모아 장복선을 구원하고, 결국 장복선이 석방됨

사건 2의 막대 그래프는 슬픔 쪽에 그려지되 사전 1보다는 짧게 그려져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는 등 의연한 모습을 보이지만 자신이 감옥에 들어왔던 사실은 안타깝기 때문이다.

사건 4의 막대 그래프는 기쁨 쪽에서 가장 길게 그려져야 한다. 사람들의 도움

으로 석방되어 자유로운 삶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내용학습 4. 글의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 즉 장복선이 살아나길 바라는 노래에 해당하는 가사를 조건에 맞게 직접 지어보자.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이 활동은 작품 수용 결과를 바탕으로 글의 중간에 적합하게 들어간 노래 가사를 직접 창작하게 하는 표현하기 활동이다. 교사는 먼저 학생들에게 글의 이해를 바탕으로 함축적인 의미 표현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 그리고 제시된 조건에 맞도록 간결하면서도 쉽게 따라부르기 쉽게 지을 것과 내용상 인물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것을 언급해준다.

【예시답안】

‘비읍니다 비읍니다/ 장복선 살려 주시길 비읍니다/ 미동대감 채 판서님/ 장복선을 살려 주소서/ 장복선을 살려 주시고/ 이번에 돌아가시면/ 높은 자리 오르리다/ 정승이 못 되시더라도/ 전반 같은 비단 땡기/ 어린 손자를 보신다오/ 비읍니다 비읍니다/ 장복선 제 나이로 죽게 해주소!’

적용학습 1. 장복선은 관의 재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이러한 장복선의 행동은 옳은 것일까. 이에 대해 찬반을 나누어 토론한 후 토론 내용을 정리해 보자.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이 활동은 작품을 비판적으로 해석해 보고, 그 결과를 자신의 가치관과 연관지어 말하도록 하는 능동적인 토론 활동이다.

먼저 교사는 토론의 개념·목적·형식·절차·방법 등을 설명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토론에 있어서의 사회자의 역

할과 토론자의 역할, 청중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사회자는 객관적 입장에서 토론이 이루어 지도록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며 질문과 요약의 상황에 맞게 삽입해서 토론 진행을 도와야 한다. 토론자들은 토론의 규칙을 준수하고 논리적 오류를 범하지 않는 발언을 해야한다. 또한 청중은 토론자들의 논거의 정확성, 타당성, 신뢰성 등을 평가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고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토론 활동이 끝난 후 교사는 학생들의 토론 내용과 진행 과정을 피드백 해주어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토론 태도는 어떠했는지, 자신들의 논거가 타당했는지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 또한 자신들의 토론 내용을 글로 정리해 봄으로써 자신들의 견해를 다시 한번 점검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적용학습 2. 다음은 타인을 구제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현대인의 모습이다.
이를 읽고 느낀점을 자유롭게 말해보자.**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이 활동은 작품 속 가치를 현대의 사례와 접목시켜 봄으로써, 참다운 직능인의 자세와 태도를 내면화하기 위한 활동이다. 교사는 작품 속 내용이 현대와 단절된 과거의 얘기가 아닌, 현대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얘기임을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 학생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들은 좀 더 작품에 공감하고, 작품 속에서 교육적인 가치를 찾으려 애쓸 것이다.

이와 같은 물음은 특정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예시답안을 제시하지는 않겠다.

이상 <만덕전>과 <장복선전>에 대한 작품 및 교수-학습 방안을 살펴보았다. 두 작품 모두 주인공의 타인에 대한 시혜 행위가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이러한

작품들을 학교에서 전기문학 교육자료로 활용한다면 학생들은 인물들의 행위를 통해 공동체의 삶이란 무엇인지, 정의로운 삶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작품들 외에도 교사는 본고에서 제시한 <목씨부전>, <김유연전>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정의와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내면화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이다.

4. 신분적 좌절을 겪은 인물 - 사회제도의 모순과 현실 개혁의 문제

조선 시대는 신분제를 기반으로 운영되던 사회이다. 양반을 제외한 농, 공, 상인 계층과 중인, 서얼 등 신분적 제약이 뒤따르던 인물들은 그들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사회적 불평등을 겪어야만 하는 사회였던 것이다. 신분은 세습되었기에 부모의 신분을 그대로 물려받은 채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표출할 수 없었던 피지배 계층의 울분은 아무리 그것이 당연시되었던 시대라 할지라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때문에 조선시대 피지배 계층을 입전한 전기 작품의 대부분은 이러한 신분제의 한계를 직접 경험한 인물들이다. 그들은 때론 환경에 순종해 가면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극단적 행위로 저항하다가 좌절하고 만 인물들이 절대다수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평생 붙어다닌 이 귀속적 지위는 그들에게 있어 인간 본연의 삶을 억압하는 올가미였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한가. 조선시대의 신분제도가 완전히 해체되어 이제는 모든 이들이 평등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다. 현대사회가 물론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고, 개인의 능력이 최우선으로 보장되는 시대라 할지라도 이 시대는 분명 또다른 신분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 또다른 신분제란 현대판 신분제

라 불리우는 학벌주의를 일컫는 것이다.

물론 대학의 졸업 '간판'이 현상적으로는 개인의 능력에 의해 취득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중·고등학교의 학업 성적에 의해 한번 취득된 학벌은 평생토록 지속되어 개인의 삶을 거의 결정적으로 좌우하고 있다. 즉 학벌은 분명히 개인의 능력에 의해 얻어진 것이나, 실제로는 능력주의 원칙을 크게 위배한다는 점에서 신분제적 성격을 뚜렷이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학벌'이란 것은 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어느 시기에 가서야 비로소 정해진다는 점에서는 옛날의 신분과는 다르지만, 한번 정해진 후에는 평생을 따라다닌다는 점에서는 옛 신분과 다르지 않다. 이를 우리는 '후천적 신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후천적 신분은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데에 큰 문제가 있다. 현대의 삶에 있어서 학벌과 부의 획득과의 상관도가 매우 크다는 것은 이미 여러 조사에 의해 분명히 되었다. 이는 심각한 빈부 격차의 확대를 가져올 뿐 아니라 과거의 신분제와 같이 세습되는 양상을 빚고 있어 문제가 된다. 현대의 사회적 모순은 이뿐만이 아니다. 과거에서부터 여전히 뿌리깊게 내려오는 남녀 차별의 문제, 도시위주의 성장으로 인한 도농간의 문화·경제적 격차의 문제,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간의 차별 대우 문제 등 현대 사회의 불평등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하지만 여전히 개인의 삶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학생들이 이러한 과거와 현대의 사회적 모순에 대해 문제의식을 지니고 진지한 논의의 시간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본고에서는 여항인물전 속에서 찾고자 한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상인 계층의 경제력 확충과 임병양란으로 어느 정도 신분제가 와해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이 와중에도 여전히 신분제의 모순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겪어야만 했던 인물들이 여항인물전에는 다수 입전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개인의 전문적 직능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어 신분의 변화가 주어지고 성공을 일구어낸 인물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을 것이다. 당시는 아직도 수많은 이들이 불평등한 사회제도의 희생양이 되는 시대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을 사실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여항인물전을 교육자료로 제시한다면 학생들은 당대 사회적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보고, 현대의 사회적 불평등은 없는지, 있다면 이를 해결할 현실적인 개혁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논의할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작품들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유광억전(柳光億傳)>은 <포호처전>과 마찬가지로 김려의 『담정총서』 「매화외사」에 실려있는 이옥의 작품이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의 사회적 병폐와 신분제의 모순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입전대상인 유광억은 과시(科詩)에 매우 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 때문에 과거 시험에 대작(對作)하는 일로 재물을 쌓은 인물이다. 이러한 위법 행위가 나중에 발각되어 죄를 받게 되자 유광억은 과장을 어지럽혔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자결로써 속죄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 작품의 문제는 유광억의 행위의 잘잘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몰음에 있어 재물로 벼슬을 산 양반들의 행위는 제외됐다는 데에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은 작가의 논평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아! 천하에 글을 파는 자가 가장 야비하다고 했다. 그러나 만일 법으로만 따진다면 뇌물을 준 놈이나 받은 놈이 죄가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여 양반들의 위법 행위는 면제된 것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었다. 이는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든 벼슬을 하게 된 자에 한해서는 죄를 쉽게 물을 수 없었던 당대 사회적 병폐에 대한 고발이라 할 수 있다.

<박돌몽전(朴突夢傳)>은 김낙서(金洛瑞)(?~?)의 문집 『호고재고(好古齋稿)』에 실려있는 작품이다. 입전 대상인 박돌몽은 한 벼슬아치의 노비로, 어려서부터 배움의 욕구가 매우 강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천한 신분으로 인해 글을 배울 수가

없는 처지였다. 이를 딱하게 여긴 이웃의 한 평민이 그에게 글을 가르쳤는데, 문식(文識)이 날로 진보하였다. 이러한 돌몽은 주인이 끄찍이 여기자 주인집 아들은 이를 시기하여 돌몽을 때려 쫓아낸다. 이에 돌몽은 주인댁 부자 사이를 편안케 하리라는 마음으로 그 집을 나와 떠도는 삶으로 일생을 마친다. 이 작품은 신분의 제약으로 인해 '배움'의 욕심마저 제한될 수 밖에 없었던 당대 피지배층의 처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글의 마지막에 '운명이로구나, 감히 누구를 원망하겠는가?'라는 돌몽의 말에서 이러한 신분적 제약의 울분을 느낄 수가 있다.

이 외에도 양반의 자제로 해금의 달인이 되었으나 미친한 어미로 인하여 올바른 대접을 못 받자 사대부들에게 저항하고 그들의 허위와 허영을 조롱하다 좌절·은둔한 <유우춘전(柳遇春傳)>⁶²⁾, 한어 역관이었으나 조선의 계급구조에 저항하다 폭음과 방랑으로 생을 마감했던 <현기전(玄錡傳)>⁶³⁾ 등도 신분적 좌절과 사회적 모순을 경험한 인물들을 입전한 작품이다.

다음에서 살펴볼 <우상전>과 <최북전> 역시 신분적인 좌절을 겪은 인물들을 입전한 작품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방안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우상전(虞裳傳)> 교육방안 예시

① 작품 제시 및 학생-학습 활동 예시

<우상전(虞裳傳)>은 연암 박지원의 『연암집(燕巖集)』 「방경각외전(放靑閣外傳)」에 전하는 작품이다.⁶⁴⁾ 대대로 역관의 가문에서 태어난 우상 이언진은 통신

62) 유득공(柳得恭)(1749~?)의 『영재집(那齋集)』에 실려있음

63) 조희룡의 『호산외기』에 실려있음

64) 이언진에 대한 전기는 김조순(金祖淳)(1765~1832)의 『풍고집(楓臯集)』에도 실려있다. 사실 전통적인 전기 양식으로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김조순의 작품이지만, 작가의 가치관과 사상을 통해 현실을 비판하고 사회제도의 모순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연암의 작품이다. 때문에 전술한

사로 일본에 가서 필명을 날렸으나 조선에서는 신분적인 한계로 인해 재주를 인정받지 못한 인물이다. 그가 조선통신사의 일원으로 일본에 가서 보인 문장력은 가히 신필(神筆)에 가까웠으나, 국제적으로 알려진 문필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출신이 미천하단 이유 하나만으로 조선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 때문에 그는 27살에 자신이 남긴 시문(詩文)을 불태우고 요절을 하고 만다.

<우상전>에서 드러나는 신분제에 대한 갈등은 태생적 한계에 근거한 사회와의 갈등인 동시에 운명과의 갈등이기도 하다. 이러한 갈등은 자신의 재능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우상으로서는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더구나 타국에서는 그 능력이 인정됨을 경험한 그였기에 조선의 신분적 제약은 그 무엇보다 답답하고 비참한 현실로 다가왔을 것이다.

연암은 이러한 우상을 추모함과 동시에 봉건적인 신분제도의 폐단을 설파하기 위해 <우상전>을 지었다. 작품 속에 드러난 '나무가 재(才 : 材木)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사람은 그것을 배려한다. 자개가 재(才 : 財貨)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사람은 그것을 빼앗으려 한다. 그러므로 재(才)라는 글자는 안을 향해 빠침이 있을 뿐, 바깥을 향해 날림은 없는 것이다.'라는 연암의 말은 신분제의 제약 속에 자신의 재능을 안으로 삼킬 수 밖에 없는 일반 백성들의 울분을 대신한다.

이와 같은 신분제의 병폐는 현대의 사회적 모순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자이기 때문에, 지방대 출신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계약자이기 때문에 겪어야만 하는 현실에서의 차별 대우는 과거의 신분제와 다름없는 또 다른 사회적인 병폐이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에서는 전기문학 교육에 위와 같은 작품들을 활용함으로써 과거의 모순을 비판해보고, 현대의 사회적 모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찰은 학생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현실 개혁의 의지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바와 같이 연암의 작품이 장르론적으로 시비가 있다 하더라도 본고에서는 이 작품을 교육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다.

다음은 <우상전>의 내용과 이에 따른 학습활동을 제시한 것이다.

<작품읽기>

비운의 천재 시인, 우상 이연진

(전략)

우상(虞裳)이 한어 역관으로 따라갔다가 홀로 한문을 잘하여 일본 안에 크게 올랐다. 일본의 유명한 중과 존귀한 계층의 인물들이 모두 운아(雲我)선생은 둘도 없는 큰 선비라고 일컬었다. 대관의 동쪽으로 들어서면서 절은 여관집 같고 중은 기생 같은데 시문을 칭하는 것이 꼭 장기, 바둑을 두자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그림 있는 시를 쓰는 용지나 꽃무늬 놓은 두루마리를 책상과 곁상에 가득 쌓아 놓고 시짓기 힘든 운자를 추려 내서 곤란을 보이건만, 우상이 그전에 지어 둔 것을 외우듯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죽죽 불렀다. 운자를 다는 것도 평안하고 타당하였으며, 조용히 끝을 마치기까지 어려운 빛도 보이지 않았고, 맥이 빠진 말도 내놓지 않았다.

(중략)

우상은 한어(漢語) 통역관으로 사신의 일행을 따라갔다. 그 홀로 문장으로써 일본에 이름을 크게 떨쳤으니, 그 나라의 이름있는 승려나 귀족들은 입을 모아 말하기를,

“*우아선생(虞我先生)이야말로 둘도 없는 *국사(國士)이다.”

라고 하였다.

대관(大坂) 동부에는 승려가 기생처럼 많고 사찰들은 여관처럼 많았다. 사람들은 우상에게 시문을 받기 위해 수전(繡箋)과 *화축(花軸)을 평상이나 서안(書案)에 수북히 쌓아 놓고, 도박이라도 하듯 서로 재촉했다. 대개 어려운 시제(詩題)나 맞추기 어려운 운(韻)을 불렀는데, 이는 우상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였다.

우상은 매번 창졸간에 입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미 지어 놓은 글을 외는 것처럼 차근차근했고, 운을 맞추는 것 또한 어색함이 없이 평탄하였다. 또한 자리를 마치고 사람들이 물러가도 피로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으며, 보잘 것 없는 문장 따위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중략)

【덕만 있고 재주가 없다면 그 덕이란 빈 그릇과 같은 것이며, 재주만 있고 덕이 없다면 그 재주를 담을 곳이 없는 것이며, 그 그릇이 알다면 넘치기 쉬운 것이다. 인간이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여 삼재(三才)를 이루었으니 귀신이 재주라면 천지는 커다란 그릇이 된다. 저 지나치게 고결한 척하는 자는 복이 불을 여유가 없으며, *정상(情狀)을 헤아리기에 능한 자에게는 사람이 불으려 하지 않는 법이다.

문장이란 것은 천하의 지극한 보물이다. 음양을 누설하면 귀신이 노할 것이다.

나무가 재(才 : 材木)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사람은 그것을 배려한다. 자개가 재(才 :

財貨)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사람은 그것을 빼앗으려 한다. 그러므로 ‘재(才)’라는 글자는 안을 향해 빠침이 있을 뿐, 바깥을 향해 날림은 없는 것이다.】

우상은 일개 통역관에 불과하다. 나라 안에 있을 때에는 명예가 마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행세깨나 하는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해외 만리나 떨어진 나라에서 그 이름을 떨쳐 빛낸 것이다.

(중략)

이 시들은 모두 세상에 널리 전할 만한 것들이다. 급기야는, ‘갈 적에 한번 지나친 곳으로 다시 돌아오니, 지은 시들이 모두 이미 판목(版木)에 새겨져 있었다.’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었다.

나는 우상과 더불어 삶을 살았지만 직접 대면하지는 못했다. 우상이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 지은 시를 보이면서,

“오직 이 사람만이 나를 알아줄 수 있다.”

라고 하였지만, 나는 심부름꾼에게 장난삼아 말하기를,

“이것은 *오(吳) 땅 녀석의 가는 침이군. 너무 자질구레한 것이 진품(珍品)이라고 하기엔 부족해.”

라고 하였다. 우상은 화를 내며,

“미친 놈이 사람의 성질을 돋우는구나.”

라고 하였지만, 이윽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내 어찌 이 세상에서 오래 지탱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며 두 줄기 눈물을 흘렸다. 나 역시 이 말을 전해 듣고 슬픈 마음이 들었다.

이미 우상은 죽었다. 그의 나이 이십칠 세였다. 집안 사람의 꿈에 술에 취한 선인(仙人)이 검은 구름이 드리운 곳에 푸른 고래를 타고 가는데, 우상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뒤를 따르더니, 이윽고 그가 죽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상은 신선이 되었을 게야.”

라고 한다.

아아, 슬프도다! 나는 일찍부터 마음속에 홀로 그의 재주를 사랑하였지만, 몇 마디 말로써 그의 기운을 꺾은 것이다. 우상은 아직 젊으니 겸손으로써 도를 따르다면 훌륭한 글을 남겨 세상에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하니 우상은 필시 ‘나의 재주로는 그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여겼던 것 같다.

나는 우상을 만나보지 못한 것을 항상 한으로 여겼다. 그의 문장은 이미 그의 손에 불살라져 남겨진 것이 없으니, 세상에선 더욱 그를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제 상자 안의 오래 된 글들을 꺼내어 그가 일전에 보여준 글 몇 편을 찾을 수 있었다. 이것들을 모두 옮김으로써 우상에 관한 전기(傳記)를 만든다.

『연암집(燕巖集)』 「방경각외전(放瑠閣外傳)」 65)

- * 우아선생(虞我先生) : 우상의 호(號)
- * 국사(國士) : 한 나라에 제일가는 선비를 가리킨다. 사마천의 『사기』 「열전」 중 ‘자객열전’에서 예양(豫讓)이 지백(智伯)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조양자(趙襄子)를 암살하려다 실패한 후 ‘지백은 나를 국사로 대우했기 때문에, 나 또한 국사로서 이에 보답하려 했을 뿐이다.’라고 한 말에서 유래된다.
- * 대판(大坂) : 대판(大阪). 오사카
- * 정상(情狀) : 인간의 내면과 외면.
- * 수전(繡箋) : 수를 놓은 종이
- * 화축(花軸) : 지질(紙質)이 좋은 두루마리
- * 오(吳)땅 녀석 : 이용휴의 문하생임을 일컫는다.

<학습활동>

▷ 내용학습

1. 우상의 직업과 활약상을 본문에서 찾아 얘기해보자.

2. 위의 글에서 ‘나’가 우상을 인정해 주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3. 우상이 죽음을 택하게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4. 위의 【 】 안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자.

▷ 적용학습

1. 살면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때의 기분은 어떠했었는지 말해보자.

2. 다음은 얼마 전 한 신문에 게재된 기사이다. 이 글을 읽고 현대 사회의 병폐에 대해 논의해보자.

서울시 차별고용 논란

서울시가 주차단속원 공채모집 과정에서 성별이나 학력을 제한하고 정규직 업무를 비정규직 업무로 대체시키는 등 반사회적 고용형태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8일, 120명의 1년 계약직 주차단속원을 모집하면서 ‘반드시 여성이어야 하고, 전문대졸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남녀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장단속 가능한 신체건강한 자’를 18세에서 29세 여성으로 제한함에 따라 1년 비정규직 채용에 ‘너무나 가혹한 나이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성별을 제한하는 등 성차별 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14일 “이것이 여성고용을 확대하는 것이라 해도 단순업무나 기피업무, 여성의 외모를 필요로 하는 직종에 여성만을 모집하는 것은 여성을 하위직종에 집중시키고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방치하는 것을 뜻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본부는 특히 “서울 각 구청의 주차단속원이 정규 기능직 공무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서울시만이 작년부터 주차단속업무를 1년 계약직으로 대체하는 것은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서울본부 관계자는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성별, 학력, 나이 차별과 비정규직 양산에 반대한다”면서 “이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일보 2005년 4월 15일)

② 교수-학습 방안 예시

이 작품의 본시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교사는 남녀차별의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어떠한 생각을 지니는지 자유롭게 얘기하도록 하면서 학습의욕을 고취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가 남녀 차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고용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학벌중심주의 등 여타의 사회적 문제는 학생들에게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주제일 수 있으므로 학습의욕을 고취시켜야 하는 읽기 전 활동으로는 부적합하다.

남녀차별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수용해 가면서 교사는 사회

65) 본문 역주는 박종채의 위의 책 『k의 아버지 박지원』을 참고함

적 모순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이 작품과 연계해 나가도록 한다. 작품 속에 드러나는 사회적 모순을 학생들이 그저 ‘과거의 것’으로 인식하는 데 그쳐서는 이 작품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작품 속 인물에 공감을 하고, 사회의 제반 문제들에 대해 비판적 안목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유도는 읽기 중 단계에서 교사의 적극적인 질문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이 작품을 지도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주인공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을 파악하는 것이다. 작가는 당대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재능이 있어도 쓰이지 못하고 불평등한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던 이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다. 피지배층의 재능이 사회에 쓰이기도 전에 먼저 빼어지고 마는 현실을 작가는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글 속에 드러난 작가의 생각에서 당대 현실의 모순점을 찾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대의 사회적 모순에는 무엇이 있는지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어야 한다.

읽기 후 활동으로 제시된 학습활동은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내용학습에서 먼저 작품의 기본내용 및 작가의 중심생각을 파악한 뒤 적용학습을 통해 이를 내면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적용학습에서 제시된 신문기사는 학생들이 토의, 토론 주제로 다루어도 좋을 것이다. 학습활동의 선정취지와 예시답안은 다음과 같다.

내용학습 1. 우상의 직업과 활약상을 본문에서 찾아 얘기해보자.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이 활동은 작품의 기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러한 기본 내용의 파악은 문학의 감상 방법 중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 위 작품을 읽고 주인공의 직업은 무엇인지, 그의 활약상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게 된다면 작품의 주제를 파

악하기가 쉬울 것이다.

【예시답안】

우상의 직업은 한어 역관이다. 역관이란 오늘날의 통역관을 말한다. 우상은 역관으로 일본에 가서 ‘우아 선생이야말로 둘도 없는 국사이다.’라는 말을 들을만큼 그의 문필을 인정받는다.

내용학습 2. 위의 글에서 ‘나’가 우상을 인정해 주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이 활동은 반영론적 관점에서 작가의 생각을 도출해 내기 위한 활동이다. 이 작품의 경우 주인공에 대한 작가의 판단이 두드러지는데, 작가의 이러한 판단 속에 작품의 주제가 들어있기도 하다. 작가의 생각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이 작품을 제대로 읽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예시답안】

‘나’는 사실 그의 능력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상이 아직 젊기에 그 능력을 쉽게 인정받게 되면 겸손을 잃을 것이라 생각했다. 때문에 그가 좀 더 나이가 들어 겸손함을 안 뒤에 훌륭한 글을 남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려 했던 것이다.

내용학습 4. 위의 【 】안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자.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이는 이 작품의 주제 의식을 암시하는 작가의 말이다. 이 부분을 이해함으로써 학생들은 당대 사회적 모순의 문제를 단지 피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논리적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작가의 말

속에 이 작품의 주제가 들어있음을 인지시키고, 학생들 스스로가 【 】 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어야 한다. 이 활동에 대한 발표가 끝나면 교사는 학생들의 얘기를 점검·정리해주어 학생들이 이 부분의 의미를 내면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한다.

【예시답안】

‘나무가 재(才 : 材木)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사람은 그것을 배려한다. 자개가 재(才 : 財貨)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사람은 그것을 빼앗으려 한다. 그러므로 재(才)라는 글자는 안을 향해 빠침이 있을 뿐, 바깥을 향해 날림은 없는 것이다.’라는 연암의 말은 신분제의 제약 속에 자신의 재능을 안으로 삼킬 수 밖에 없었던 당대 피지배층의 불평등한 삶을 의미한다. 즉 재주가 있어도 그 재주를 인정받지 못하는 당대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다.

적용학습 1. 살면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때의 기분은 어떠했는지 말해보자.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이 활동은 작품 속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한 활동이다.

작품 속 인물은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좌절하고 만다. 자신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사회적 모순에 의해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건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이다. 학생들 역시 지금까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사회적 불평등을 겪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 직접 얘기해보고, 그때의 기분은 어땠는지 돌이켜 보면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넓히는 일이 이 학습 활동을 통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예시답안】

학생 1 : 전 늘 집에서 여자라고, 그리고 누나라고 모든 집안일과 심부름을 도

말아 합니다. 이런 건 억울하다고 하소연 할 때면 부모님은 늘 ‘집안 일은 아무래도 남자보단 여자가 잘하잖아. 니가 그냥 하렴’하고 말씀 하십니다. 이럴 때면 정말 여자로 태어난 게 원망스럽습니다.

학생 2 : 전 얼마전까지 시골의 아주 작은 분교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최근에 도시로 전학을 왔습니다. 도시에 와서 가장 놀란 것은 제가 이전에는 볼 수도 없었던 최첨단 문화시설이었습니다. 남들은 다 받던 문화적 혜택을 저는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니 참 억울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용학습 2. 다음은 얼마 전 한 신문에 게재된 기사이다. 이 글을 읽고 현대 사회의 병폐에 대해 논의해보자.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제시된 기사는 최근 사회의 주요 쟁점인 고용문제, 그 중에서도 남녀 차별에 따른 고용 문제를 비판하는 글이다. 고용의 문제는 학생들에게 다소 거리감이 있는 주제일 수도 있으나, 고등학생 정도라면 충분히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주제이기에 선택하였다. 고용의 문제는 남녀차별,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대우 등 여러 가지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학생들은 어떠한 시각으로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닐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예시답안】

이 기사는 특별한 사유없이 서울시가 주차 단속원을 모집하면서 남녀차별의 행위를 저지른 것을 비판한 글이다. 남녀 차별은 이 글에 제시된 고용문제 뿐 아니라 사회 저변에 아직도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사회적인 병폐이다. 현대 사회의 사회적 병폐는 이 뿐만이 아니다. 부익부빈익빈의 문제, 도농간의 소득격차의

문제, 계층간의 갈등 등 아직도 우리 사회는 해결해야 할 사회적 모순이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사회적 모순에 대해 맞서 대항하는 현실 개혁의 의지를 키워야 한다. 모두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태도로는 절대 현대사회의 모순을 극복해 내지 못할 뿐 아니라 또다른 병폐를 만들어 내기만 할 것이다.

2) <최북전(崔北傳)> 교육방안 예시

① 작품 제시 및 학생-학습 활동 예시

개성적인 한 인물이 문인의 손에 의하여 입전되어 그 사람됨을 후세에까지 전하면서 동시에 시의 대상으로도 채택되는 일은 흔히 있어 왔다.⁶⁶⁾ 최북 역시 마찬가지이다. 최북에 대해서는 남공철(南公轍)(1760~1840)과 조희룡이 입전한 전작품은 물론 그를 추모한 시 <최북가(崔北歌)>도 현재 전해지고 있다.⁶⁷⁾ 그만큼 최북은 타인의 이목을 주목시킨 개성적인 인물이었다.

작품 속에서 최북은 자신의 예술에 대한 자부심과 사대부들에 대한 저항적 행동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 저항적 행동은 결국 자해 행위를 하는데까지 이르게

66) 이광정이 남편에게 소박을 당했으나 개가하라는 주위의 권고를 거부하고 자살로 생을 마친 한 미천한 아낙네 향낭에 깊은 관심을 쏟아 <임열부향낭전(林烈婦香娘傳)>과 <향낭요(香娘謠)>를 동시에 남기고 있는 것이나, 정약용이 곡산부사(谷山府使) 시절 직접 만나 본 장천용이라는 기인화가의 모습을 <장천용가(張天慵歌)>와 <장천용전(張天慵傳)>을 통해 그리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한시학회, 『한국한시연구 2』, 1994, p.103)

67) 남공철의 <최칠칠전>이 조희룡의 <최북전>보다 먼저 지어졌다. <최북전>의 분량이 <최칠칠전>의 삼분의 일밖에 되지 않지만 <최칠칠전>을 본뜨지 않고 독자적인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북의 반항적인 자세가 잘 보여진다. 또한 신광하는 그를 추모한 가행체(歌行體)의 시 <최북가>(『진택집(震澤集)』 권 7)를 남기고 있다. (박희병, 『한국고전인물전 연구』, 한길사, 1992, pp.414~415)

된다. 그는 강렬한 자존의식으로 일체의 권위와 지배적 규범, 그리고 신분적 차별에 항거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자존의식의 표출은 그의 높은 예술가적 자의식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신분적 억압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의 표출로 볼 수 있다. 최북이 살던 조선후기는 근대이항기적 면모를 드러내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봉건적 질서가 압도적이었던 시대였다. 그러므로 최북의 기행적 행위와 자해의 행위는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시대적 질서에 대한 저항의 몸짓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작품을 학생들이 접하게 된다면, 최북의 행위의 근본적인 이유 및 당대 사회적 모순 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무심코 넘겼던 사회적 모순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사회적 모순 때문에 불평등한 대우를 받은 적은 없었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의 모순은 무엇이 있을까?’ 등에 대한 문제의식 생성은 학생들이 보다 비판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학습자료를 학생들에게 제시해 줌으로써 그들의 사고력을 확장시키고, 바람직한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주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최북전>의 작품 내용과 이에 따른 학습활동을 제시한 것이다.

<작품읽기>

한국의 반 고흐, 최북

최북의 자(字)는 칠칠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의 족보와 본관을 몰랐다. 자기의 이름을 둘로 나누어서 자를 만들었다. 술을 좋아하고 놀러 다니기를 또한 즐겼다. 금강산 구룡연에 갔다가 너무 즐거워 술을 많이 마시고 몹시 취했다. 통곡을 하다간 웃고 웃다간 통곡을 했다. 그러다가 부르짖기를,

“천하 명인 최북이 천하 명산에서 죽는다.”

하더니 곧 몸을 날려 연못으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곁에서 구해준 사람이 있어 바닥에까지 떨어지진 못하고 들것에 실려 산 아래 큰 바위로 옮겨졌다. 숨을 헐떡이며 누웠

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가 숲 속 나무들 사이로 울려서 보금자리를 찻던 새들이 모두 짹짹거리며 날아가 버렸다.

칠칠은 보통 하루에 대여섯 되 술을 마셨다. 시장바닥의 술집 아이들이 술병을 날라 다 주면 칠칠은 그 자리에서 들이마시곤 했다. 집안에 있는 책 나부랭이, 종이돈 쪽지 까지도 모두 술값으로 주어 버리니 살림은 더욱 가난해졌다.

칠칠은 결국 평양과 동래로 떠돌아다니며 그림을 팔게 되었다. 두 도시 사람들이 비단을 가지고 문지방이 닳도록 줄을 이어 썼다. 어떤 사람이 산수화를 그려 달라고 부탁했더니 산만 그리고 물은 그리지 않았다. 그 사람이 괴상히 여기고 따졌더니 칠칠이 붓을 던지고 일어서며 소리쳤다.

“허 참, 종이 바깥은 모두 물이란 말야.”

그림이 자기 마음에 맞게 잘 그려졌는데도 돈을 적게 받으면 칠칠은 그 자리에서 성을 내며 욕하곤 했다.

(중략)

하루는 어느 대감의 집에 갔는데, 문지방이 닳아도 없는 그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기 어색해서 사랑채에 들어가,

“최 직장이 왔습니다.”

고 아뢰었다. 칠칠이 성을 내며,

“왜 정승이라 부리지 않고 직장이라고 불렀느냐?”

고 따졌다. 그랬더니,

“언제 정승이 되셨습니까?”

라고 되물었다. 칠칠이 다시

“내가 직장은 언제 됐느냐? 기왕 없는 벼슬을 빌어서 나를 높여 부르려면 왜 정승 벼슬은 놔두고 직장이라고 부르느냐?”

라고 하더니 주인도 만나 보지 않고 돌아가 버렸다.

후에 어떤 높은 벼슬아치가 그에게 그림을 요구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그를 위협하려고 하였다. 칠칠이 노하여,

“남이 나를 저버리는 게 아니라, 내 눈이 나를 저버리는구나.”

하면서 곧바로 한 눈을 찢어서 애꾸가 되었다. 늙은 뒤에는 돋보기 안경을 한쪽만 끼었다. 나이 마흔 아홉에 죽으니 사람들이 칠칠의 참이라고 하였다.

『금릉집(金陵集)』 68)

<학습활동>

▷ 내용학습

1. 위의 글에서 최북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의 성격에 대해 말해보자.

2. 밑줄 친 부분과 같은 행위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 적용학습

1. 다음은 최북을 추모한 한시 <최북가>이다. 한 인물에 대해 전(傳)으로 표현했을 때와 시(詩)로 표현했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말해보자.

<崔北歌>

신광하

君不見	그대는 보지 못했나?
崔北雪中死	최북이 눈 속에서 얼어 죽었음을.
貂裘白馬誰家子	갓옷 입고 백마 탄 이 님 집 자손인가?
汝曹飛揚不憐死	너희들은 으쓱거리며 남의 죽음 애달파 않네.
北也卑微眞可哀	최북의 가련한 처지 진실로 슬프다.
北也爲人甚精悍	최북의 사람됨 정갈하고 매서워,
自稱畫師毫生館	스스로 화사 호생관이라 칭했다네.
軀幹短少眇一目	체구도 작고 눈도 한 쪽 멀었으나,
酒過三酌無忌憚	석 잔 이상 술 마시면 거리낄 게 없었네.
北窮肅愼經黑朔	북으론 숙신 땅 다 보고 흑삭을 지났고,
東入日本過赤岸	동으론 일본에 들어가 적안을 지났지.
貴家屏幃山水圖	귀한 집 병풍에 그린 산수도,
安堅李澄一掃無	안건도 이징도 다 쓸려나 없어졌네.
高堂白日生江湖	한낮의 높은 집에 강호가 생겨 났네.
賣畫一幅十日餓	열흘 주린 후 그림 한 폭 팔아서
大醉夜歸城隅臥	크게 취해 돌아오다 성 모퉁이에 쓰러졌네.
朝賣一幅得朝飯	아침에 한 폭 팔아 아침 사먹고,
暮賣一幅得暮飯	저녁에 한 폭 팔아 저녁 사먹네.
借問北邙塵土萬人骨	북망산에 진토된 만인의 뼈에 묻노니,
何如北也埋却三丈雪	어찌하여 최북은 세 길 눈 속에 묻혔는가?
嗚呼北也	아아! 최북이여,
身雖凍死名不滅	몸은 비록 얼어 죽었지만 이름은 영원하리.

<참고자료>



최북의 초상화

(지본설채 65.5×41.5cm, 이원기 소장)



최북의 그림 <표훈사도>

② 교수-학습 방안

이 작품의 읽기 전 활동으로는 참고자료로 제시된 최북의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주어 인물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방법, <홍길동전>에서 드러난 사회제도의 모순을 언급하여 배경지식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 ‘한국의 반 고호, 최북’이라는 제목으로 작품의 내용을 미리 생각해 보게 하는 예측하기 방법 등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전략들 모두 학습의 도입단계에서 행해져야 할 ‘학습동기 유발’, ‘학습 의욕의 고취’ 등과 관련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읽기 중 활동으로 들어가면 작품 속 인물의 행위에 대해 ‘최북은 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일까?’, ‘최북이 한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등의 교과서의 ‘날개질문’은 학생들이 글을 읽으면서 중점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 자칫 놓칠

68) 위의 역주는 남궁철의 『금릉집(金陵傳)』 <최칠칠전(崔七七傳)>을 바탕으로 하되, 마지막 부분은 조희룡의 『호산외기(壺山外記)』 <최북전(崔北傳)>의 내용을 첨가인용했다. <최칠칠전>의 내용이 더 상세하고 재미가 있으나 최북의 저항적 자세가 극명히 보여지는 자해의 행위는 <최북전>에만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 있는 주제 등을 연상하게 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따로 마련해 두지 않은 ‘날개질문’의 형식을 교사는 음성언어로 대신하는 재치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사의 유도적인 질문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독서 태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작품의 읽기 후 활동으로 제시된 학습활동은 글의 기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학습과 학생들의 사고력을 확대·증진시키는 적용학습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내용학습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최북이 저항적인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하게 함으로써 인물의 행위에 공감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적용학습 2번의 경우, 제시된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을 주제별로 나누어 모둠별 토의 학습으로 응용하는 것이 좋겠다.

다음은 교사의 편의를 위해 위에 제시된 학습활동의 선정이유와 예시답안을 작성한 것이다.

내용학습 1. 위의 글에서 최북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의 성격에 대해 말해보자.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이 활동은 작품의 기본내용과 인물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이다. 작품 속 인물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언행을 보인다. 이러한 언행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 봄으로써, 그 인물에 대해 보다 명확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예시답안】

‘천하 명인 최북이 천하 명산에서 죽는다. 하더니 곧 몸을 날려 연못으로 뛰어 내렸다.’ - 이 부분은 최북의 자의식 강한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부분이다.

‘기왕 없는 벼슬을 빌어서 나를 높여 부르려면 왜 정승 벼슬은 놔두고 직장이

라고 부르느냐? - 이 부분에서 최북의 사대부들에 대한 저항과 비판적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직설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내뱉는 말에서 그가 불의를 참지 못하는 끈은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 또한 잘못된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용학습 2. 밑줄 친 부분과 같은 행위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한 개인의 성격이나 삶의 자세 등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더욱이 위 작품과 같이 한 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사회적 모순에 억눌리게 될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하는가를 살펴보면, 그 사람에 대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제시된 최북의 행위는 최북의 어떠한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취해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여, 작품 속에 드러나는 시대상과 인물상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예시답안】

밑줄 친 부분에서 최북의 행위는 자기 저항적 내지는 자기 파괴적 행위로 볼 수 있다. 통곡을 하다가 웃다가 울다가, 그러다가 연못으로 뛰어드는 그의 행위는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억압하는 사회적 제도에 대한 항거의 표출이다. 즉 당대의 신분적 제약의 현실이 최북의 그러한 행위의 근본적 이유인 것이다.

적용학습 1. 다음은 최북을 추모한 한시 <최북가>이다. 한 인물에 대해 전(傳)으로 표현했을 때와 시(詩)로 표현했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말해보자.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이 활동은 서사 양식과 서정 양식의 차이점을 알아보게 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을 지도할 때는 서정 양식이 비유와 함축, 생략 등의 방법으로 의미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양식이라는 점과 서사 양식은 삶의 모습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양식으로 사건 중심의 서술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도해야 한다. 학생들이 먼저 위의 전 작품과 시 작품을 읽고서 자유롭게 느낀점을 발표하도록 하고, 이를 종합하여 교사가 서사와 서정 장르에 대한 이론 설명을 해 주면서 학생들이 얘기한 차이점을 정리해 주도록 한다.

【예시답안】

전으로 표현했을 때는 최북의 일생이 일대기적으로 그려져 있어 그의 삶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몇 개의 일화를 통해 구체적인 행동을 알 수 있어 작품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시로 표현했을 때는 최북의 삶이 좀 더 미화된 듯 하다. 시인이 최북의 삶에 연민을 느끼고 그리워 한다는 것을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다. 최북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인물의 모습을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적용학습 2. 다음은 문학에 나타난 사회적 모순의 예이다. 각각의 작품에서 드러난 사회적 모순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선정이유 및 교수-학습 방안】

이 활동은 사회적 모순의 문제를 문학은 어떻게 거르고 추출하여 독자들에게 제시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형상화가 다시 독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지 알아보는 활동이다. 교사는 작품 속에 드러난 다양한 사회적 모순을 학생들이 직접 도출하게 한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

하게 한다. 이 활동을 하기 전에 여기에 제시된 작품들을 학생들이 미리 읽어 오게 하여, 작품 속에 드러난 사회적 모순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 토론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시답안】

- * 학생 작품 - 이 시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모순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남녀차별의 문제이다.
- * 홍길동전 - 이 소설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모순은, 조선시대 서얼차대의 문제이다.
- * 타는 목마름으로 - 이 시는 1970년대 유신 정권의 독재에 온몸으로 맞서 싸워야만 했던 젊은이들의 민주화에 대한 갈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시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모순은, 자유와 민주를 억압하는 독재 정치라 할 수 있다.
-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 자유당 정권 말기에 권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억누르던 사회를 한 학습에 비유하여 그려낸 소설이다. 이 소설 속에 드러나는 사회적 모순은, 권력의 비인간성과 거기에 기생하는 변질적 기회주의의 풍토이다.

이상 <우상전>과 <최북전>에 대한 교육방안을 살펴보았다. 입전된 두 사람 모두 조선시대의 신분적 좌절을 경험한 인물로, 그 저항적 면모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저항적 태도는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사회적 모순에 대한 항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모순이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었다.

교사는 이 두 작품 외에도 본고에서 제시한 <유광익전>, <박돌몽전>, <현기전>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과거의 사회적 병폐를 비판해보고, 현대사회의 모순을 개혁할 수 있는 현실개혁의 의지를 유도해 주어야 할 것이다.

IV. 결 론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 후기는 이전 시기부터 나타난 여러가지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한층 증폭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역동성을 지니고 있었다. 때문에 조선전기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인물들이 나타나, 다양하고도 새로운 인간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화가, 가객, 악공, 역관, 유협, 의관 심지어 거지나 숲장수 아내, 사기꾼 등 한결같이 새로운 가치를 드러내는 인물들이 문학의 소재로 입전되었는데, 본고는 이들에 대한 전을 여항인물전이라 일컬었다. 그리고 이러한 여항인물전을 현행 전기문학 교육에 활용하고자 여항인물전이 지니는 내적 가치를 교육적으로 조명해 보았다. 그리하여 여항인물전을 교육적 가치 유형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한 뒤, 각각의 유형에서 교육적으로 유용한 개인적·사회적 문제의식을 이끌어 내었다.

이를 요약해 보자면, 먼저 순간적 기지를 발휘한 인물군에서는 현실대처 방법의 문제를 이끌어 내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자신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을 현명하게 극복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현실 대처 능력이 갖춰져야 한다. 이러한 현실대처 능력이란 하루 아침에 키워질 수는 없는 것으로, 어릴 때부터 학교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함양되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현실대처 능력의 함양을 위해 본고에서는 <포호처전>과 <각저소년전>을 교육자료로 제시하였다. 이 두 작품은 위기 상황에서의 대상의 지혜와 용기가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이 작품의 학습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위기 대처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작품의 바람직한 지도 방법을 교수-학습 방안 또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전문적 직능을 발휘한 인물군에서는 자아실현과 직업의식의 문제를

이끌어 내었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삶의 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시기로서, 이러한 시기에 학생들에게 올바른 직업관과 인생관을 내면화 시킬 수 있는 교육자료를 제시해 주는 것은 필수적이다. 때문에 여기서는 여항인물전 중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의 모습의 구체적으로 담겨있을 뿐 아니라, 입전 대상의 직업의식이 확고하게 드러나는 <이안민전>과 <침은조생광일전>의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두 작품에서는 모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개인적인 이득보다는 타인과 나라를 위해 자신의 재능을 다하고자 하는 입전 대상의 모습을 살필 수가 있었다. 이러한 작품들이 전기 문학의 교육적 자료로 활용된다면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직업의식 함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사회적 시혜를 한 인물군에서는 사회 정의와 공동체적 삶의 문제를 이끌어 내었다.

여항인물전 속에는 사회적 시혜를 베푼 이들의 미담이 잘 담겨져 있다. 이러한 여항인물전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물든 현대의 학생들을 바람직한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줄 뿐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방법 또한 터득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사회적 시혜의 행위가 돋보인 인물을 입전한 <만덕전>, <장복선전>을 교육자료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이 작품들에 대한 학습활동과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여 학교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분적 좌절을 겪은 인물군에서는 사회제도의 모순과 현실 개혁의 문제를 이끌어 내었다.

과거의 신분제와 마찬가지로 현대 역시도 인간의 삶을 제약하는 사회 제도의 모순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회제도의 모순을 인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현실 개혁의 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깊이 생

각해 볼 수 있는 교육자료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우상전>과 <최북전>은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불우한 삶을 살다간 인물들을 입전한 작품이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의 교육방안을 통해 사회제도의 모순은 어떠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 이를 극복해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상에서 제시한 여항인물전의 교육방안은 '학생들로 하여금 작품을 통해 흥미와 교훈을 얻게 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기 문학의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도록 구성한 것으로, 이를 학교교육에서 활용한다면 현행 전기문학의 교육적 틀을 보다 넓힐 수 있으리라고 본다.

참 고 문 헌

1. 자료 및 교과서

- 김군태, 『文集所在傳資料集』 1~10編, 계명출판사, 1986
- 김 려, 『潭庭遺藁』, 계명출판사, 1984
- 김 려 編, 『潭庭叢書』, 통문관 주인소장본
- 김 려, 박혜숙 譯, 부령을 그리며(사유악부 선집), 돌베개, 1996
- 김부식, 김종권 譯, 『三國史記』(上·下), 명문당, 1998
- 박지원, 『燕巖集』, 경희출판사, 1966
- 변종운, 『嘯齋詩抄』, 규장각 소장본
- 사마천, 정범진 외 옮김, 『史記』 「列傳」(上·中·下), 까치, 1995
- 유득공, 「那齋集」 『고전문학전집』 2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6
- 유재건,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里鄉見聞錄』, 민음사, 1998
- 이경민 編, 『熙朝軼史』, 민족문화사, 1980
- 이 옥,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譯註, 『(역주) 이옥 전집』 1~3권, 소명출판사, 2001
- 일 연, 이민수 譯, 『三國遺事』, 을유문화사, 1994
- 조희룡,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 『趙熙龍 全集6』 「壺山外記」, 한길아트, 1999
- 채제공, 남만성 역, 『樊巖集』, 대양서적, 1975
- 홍세태, 임형택 編, 「浣巖集」 『李朝後期間巷文學叢書』 1, 여강출판사, 1986
- 국어·생활국어 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7~9학년, 교육인적자원부, 2001
- 국어 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교육인적 자원부, 2001
- 문학(하) 교사용 지도서, 한국교육미디어, 2001
- 문학(하) 교사용 지도서, 문원각, 2001

2. 단행본

- 강명관, 『조선후기 여항문학 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7
- 구인환, 『진이전』 신원출판사, 2004
- 김균태, 「傳文學」 『韓國古典小說論』, 새문사, 한국고전소설 편찬위원회 편, 1990
- , 「이옥·김려의 傳」 『古小說史의 諸問題』, 집문당, 1993
- 김용덕, 『韓國傳記文學論』, 민족문화사, 1987
- , 「傳記小說의 통시적 고찰」 『古小說史의 諸問題』, 집문당, 1993
- 김태준, 『韓國古小說論』, 아세아문화사, 1991
- 김 호, 『조선과학 인물열전』, 휴머니스트, 2003
- 박기석, 『朴趾源 文學 研究』, 삼지원, 1993
- 박종채 지음, 박희병 옮김, 『나의 아버지 박지원』, 돌베개, 1998
- 박희병, 『韓國 古典人物傳 研究』, 한길사, 1992
- , 『朝鮮後期 傳의 小說的 性向 研究』,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3
- 유 협, 최동호 역편, 『文心雕龍』, 민음사, 1994
- 유홍준, 『화인열전』, 역사비평가, 2001
- 윤재민, 『朝鮮後期 中人層 漢文學의 研究』, 고려대 민족문화 연구원, 1999
- 이동근, 『朝鮮後期 傳 文學 研究』, 태학사, 1991
- 이우성·임형택, 『李朝漢文短篇集』(下), 일조각, 1997
- 이종주, 『북학파의 인식과 문학』, 태학사, 2001
- 임형택, 『韓國文學史의 視角』, 창작과 비평사, 1984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3권, 지식산업사, 2002
- 최태호, 『한국고전문학 연구』, 역락출판사, 2000
- 최현섭 외,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1999

한국한시학회, 『한국한시연구 2』, 1994

허경진, 『조선 위항 문학사』, 태학사, 1997

-----, 『평민열전』, 웅진북스, 2002

-----, 『악인열전』, 한길사, 2005

3. 논문

김군태, 「李鈺의 文學理論과 作品世界の 研究」, 서울대 박사논문, 1986

김미정, 「조선후기 자혜인물전 연구」, 경성대 석사논문, 2004

김상렬, 「李鈺의 傳文學 研究」, 성균관대 석사논문, 1986

김용남, 「朝鮮後期 中人作家의 傳 研究」, 충북대 박사논문, 1999

-----, 「朝鮮後期 傳 研究」, 충북대 석사논문, 1991

김용봉, 「李鈺의 傳 研究」, 명지대 석사논문, 1999

김정일, 「朝鮮後期 閭巷人物傳 研究」, 동아대 박사논문, 2002

김홍식, 「茶山 文學 研究」, 서울대 석사논문, 1986

남상구, 「국민학교 국어과 전기문 인물 선정의 타당성 분석」, 수원대 석사논문, 1995

류준형, 「국어 교재에 나타난 전기문의 분석적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78

이문규, 「허균 散文文學의 研究」, 서울대 박사논문, 1986

박준원, 「潭庭叢書 研究」, 성균관대 박사논문, 1994

박희병, 「朝鮮後期 傳의 小說的 性向 研究」, 서울대 박사논문, 1991

손순아, 「소집단 협동학습을 이용한 전기문 지도방안」, 서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이대형, 「18세기 열녀전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4

- 이동근, 「傳 樣式的 歷史的 展開樣相」, 대구대 학술논문, 2003
- 이원주, 「연암소설고(1)」, 한국어문학15, 1966
- 임유경, 「조선후기 전에 나타난 여성상의 변모」, 語文學 제 75호, 1999
- 정근영, 「초등국어 전기문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1994
- 정병호, 「金鱧의 傳 研究」, 경북대 석사논문, 1989
- , 「17,18世紀 閩巷人の 文學的 肖像과 鄭來僑의 傳」, 동방한문학 제14회, 1998
- 정상규, 「전기문의 속살 연구」, 경상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6
- 정홍태, 「燕巖文學研究」,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75
- 조태영, 「傳 樣式的 發展樣相에 관한 研究」, 서울대 석사논문, 1983
- 주명희, 「傳의 樣式的 特徵과 小說로의 受容樣相」, 서울대 박사논문, 1986
- 주종진, 「초등국어 교재에 수록된 전기문의 내용 변천 연구」, 한국교육대 석사논문, 1997
- 최준하, 「번암의 전 문학 검토」, 어문연구학회 제 24집, 1993
- 황경임, 「연극적 기법을 활용한 전기문 지도 방법 연구」, 서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ABSTRACT

Educational Plans of Biographical Literature by Using Townsmen's Biographies

Bo Ra, Kim

Dept. of Korea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educational values of townsmen's biographies which contain all over the social features and human images in the upheaval of those days and use them to apply to the education of biographical literature.

As is generally known, various social and economic changes collapsed the social status system in the late Chosun Dynasty, and accordingly the flourishing activities by official clerks and the class of Chungin(中人:common people) promoted the expansion of classes which were in charge of literature. The class of Sadaebu(士大夫: high officials), which was the existing

class in charge of literature, became interested in townsmen's lives. Townsmen themselves also started reflecting a variety of characters in literature by showing surrounding people. Thus, characters such as painters, singers, court musicians, translators, chivalrous persons, medical officers, even beggars, a charcoal dealer's wife and swindlers, who showed new values all alike, were shown as materials of literature. This study called the biographies of them "townsmen's biographies."

In this study, the subtypes of townsmen's biographies were divided into four in total and educational senses of issues were drawn from each type.

First, from the character group that exhibited instantaneous wits, the issue of how to deal with reality was induced.

For the moderns who live in a society rapidly changing day by day to be able to overcome unpredictable critical moments wisely, it is necessary above all to have the ability to cope with reality actively. Therefore, to cultivate the ability to cope with reality, this study presented <Pohocheojeon> and <Gakjeosonyeonjeon> as educational materials. These two works are distinctive in their subjects' wisdom and courage in critical situations. Through learning activities of these works, students were encouraged to search for many ways to deal

with crises.

Second, from the character group that displayed their professional abilities, the issues of self-realization and professionalism were drawn.

In this regard, presented as educational materials were <Yianminjeon> and <Chimeunjosaengkwangiljeon> among townsmen's biographies, both of which not only specifically included the features of self-realization through jobs, but also firmly revealed professionalism of the shown subjects. These two works all showed such characters who carry out their job as hard as possible and try to use up their best gifts for others and the nation rather than for personal profits.

Third, from the character group that bestowed their favors on society, the issue of communal life was attracted.

Townsmen's biographies well include laudable episodes of those who gave their favors to society. Such townsmen's biographies not only lead students who are influenced by egoism and individualism to the direction of desirable lives, but also help them realize ways of living as a community member. Thus, in this study, it was argued to use <Mandeokjeon>, <Jangbokseonjeon>, in which characters who distinctively bestowed their favors on society were shown, as educational

materials.

Finally, from the character group that went through frustration in their social positions, the issues on the contradiction of the social system and reforms of reality were drawn.

To be aware of the contradiction of the social system and have the will to reform reality to overcome it, schools should present educational materials through which these issues can be deeply considered. <Woosangjeon> and <Choibukjeon> were the works that showed the characters who were ill-fated throughout their lives due to the social atmosphere that did not recognize their gifts. Therefore, through the educational plans of these works, what problem the contradiction of the social system has and what should be done to overcome it were investigated.

The educational plans of townsmen's biographies as presented above were composed to reach the ultimate goal of biographical literature, "to help students have interest and lessons through the works, and moreover, be able to choose the direction of desirable lives." If these plans are used for school education, the educational frame of the current biographical literature can be more extended.